

ONLY ONE NUMBER ONE SPECIAL ONE

동국의 이름으로, 빛나는 미래

동국에서 1은 모든 것의 시작인 독존적 존재인 '나'를 의미합니다.

1의 개성과 꿈을 존중하고 키워주는 대학

동 . 국 . 대 . 학 . 교



111th

ANNIVERSARY OF
DONGGUK

Only ONE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목표로 걸어온 111년,
더 큰 캠퍼스, 융복합 교육·연구,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곳!

Number ONE

수석합격, 최우수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의
타이틀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학과
거침없이 도전하는 학생들의
공동 성과입니다.
대학과 학생의 팀워크가 가장 강한 대학!

Special ONE

대학다운 대학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학,
동국의 특별함은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것!



동국에서 배운
30만 동문의 힘

세상을 움직이는 동국인

동국과 함께 빛날 다음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빈칸을 채울 주인공입니다.



- 01 홍영표(국회의원) 02 유재중(국회의원) 03 전재수(국회의원) 04 권노갑(전 국회의원) 05 최재성(전 국회의원)
- 06 백영철(전 관동대 총장) 07 신윤표(전 한남대 총장) 08 이중화(전 세종대 총장) 09 어청수(14대 경찰청장)
- 10 이성환(18대 경찰청장) 11 조지훈(시인) 12 서정주(시인) 13 한용운(시인, 독립운동가) 14 신경림(시인)
- 15 조정래(소설가) 16 문정희(시인) 17 황석영(소설가) 18 차중근(전 유한양행 CEO) 19 신준호(푸르밀 회장)

Who is Next?

111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사학 동국대학교가 배출한 30만명이 넘는 인재들이
정치계, 교육계, 경찰계, 문학기, 산업계, 금융계, 스포츠계, 연예계 등
각계 각층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동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미래 동국인이 되고 싶다면 도전하세요!
동국은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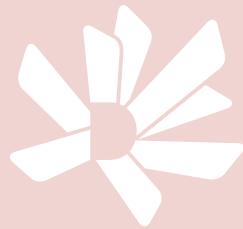


- 20 정연주(전 삼성물산 사장) 21 이종호(JW그룹 명예회장) 22 김진문(신성약품 회장) 23 박준형(신라교역 회장) 24 최진식(심팩CEO)
25 민병덕(전 국민은행장) 26 김정남(동부화재 사장) 27 정상영 (KCC 명예회장) 28 박영석(산악인) 29 김승현(농구선수)
30 박한이(야구선수) 31 고현정(배우) 32 이경규(개그맨) 33 김혜수(배우) 34 최민식(배우) 35 한효주(배우)
36 이정재(배우) 37 서현(가수) 38 이승기(배우) 39 전지현(배우) 40 미래 동국의 주인공



동국이 걸으면 역사가 됩니다 성과가 실력을 말합니다

D O N G G U K



U N I V E R S I T Y

1



- ▶ 2016 한의사국가시험 수석 합격
- ▶ 2016 전국대학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

4



- ▶ 4개의 캠퍼스(서울-경주-고양-LA)
- ▶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

7



- ▶ 2016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 4명
- ▶ 전국 7위

7

동국대학교 7관왕

- ▶ ACE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4년간 80억 원)
(서울-경주 국내 유일 동시 선정)
-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3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36억 5천만원)
- ▶ IPP(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사업
(5년간 50억 원)
- ▶ 창업선도대학(7년 연속, 16년 20억 원)
- ▶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6년간 106억 원)
- ▶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획득
-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8년 연속, 16년 9.9억 원)



8



한국경제신문 '2016 이공계 대학평가'
사립대 8위

9



2016 행정고시 6명(전국대학 9위)

11



2016년 공인회계사 합격자수 30명
전국 11위

300,000

2016 동문수 30만명 돌파



230

2016 기부금 230억 돌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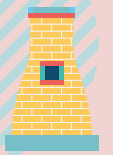


2016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17위

20

2016 세무사 합격 20명

25



경주캠퍼스, 2016 '대학창조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5년간 25억 원 지원

100

2016 한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 100% 합격

LAND
MARK

동국대 혜화문 부지에 7700여 평 규모,
108주년 기념관 건립 가시화

Q5

▶ 전년도 537위에서 93계단 상승한 444위
▶ 국내대학 14위

고전의 힘, 토론의 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제도

동국대학교는 다전공 지식융합형 지성인을 키워내기 위해 교육의 크기부터 달리합니다. 동국대학교가 쌓아온 탄탄한 인문학적 기반 위에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융합교육 시스템, 다르마칼리지를 소개합니다.

D H A R M A C O L L E G E

4학기 동안 4개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고전도서 독파!

GREAT BOOKS SEMINAR

다르마 칼리지

요즘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스펙 쌓기에 급급해 종합적인 판단력과 응용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학생들의 교양교육을 위해 다르마칼리지에서는 '세계명작세미나(Great Books Seminar)'를 마련했습니다.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눈 다양한 고전도서를 4학기에 걸쳐서 읽고 토론하는 수업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 간 쌍방향 소통, 학생 간 상호 협업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양교육시스템, 지식인을 넘어 지성인으로 성장한 자신을 만나보세요.

Benefit 01

소수정예 환경



깊이 있는 글쓰기 수업과 함께 '존재와 역사', '경제와 사회', '자연과 기술', '문화와 예술', '지혜와 자비' 등 5개 영역으로 명작을 나누어 다양한 고전을 독파하는 세계명작세미나는 정원 40명, 영어 수업은 정원 19명 이하로 완벽한 소수정예 교육환경을 실현합니다.

Benefit 02

쌍방향 소통의 수업



수업은 학생들이 담당하는 발표와 토론 위주로 진행됩니다. 교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강독식 강좌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참여하거나 학생 상호간 협업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전교육 강좌입니다.

Benefit 03

실용적인 영어교육



읽기와 회화 중심의 교육에서 쓰기, 토론, 발표 중심의 교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의 영어 활용 능력 증대를 목표로 교과 내용을 구비하고 원어민 교원이 100% 담당하며 영어 에세이 경진대회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영어 능력 우수자를 배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Benefit 04

SW소양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인문학 관점에서 과학기술, 공학,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SW 융합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SW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리적 사고 및 창의력 증진을 위해 전공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학제간 SW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사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50%

■ 전과(전공변경)제도

깊이 고민한 끝에 결정한 전공일지라도 실제로 경험하는 대학생활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동국대학교는 전과(전공변경)제도를 실시합니다. 2~5학기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전공을 변경할 세 번의 기회를 갖게 되며(단, 전과 확정은 1회), 정원의 50%까지 선발합니다. 전공과 계열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원하는 전공을 찾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200%

■ 복수전공제도

자신의 분야, 한 가지 전공에 국한된 사람보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리드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제2, 제3의 전공을 배우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잔여석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복수전공제도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유학 오는 대학, 유학 가는 대학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프로그램

2015년 교환학생 비율 전국 4위, 2014년 국제화 순위
3위 등 세계 260여 개 대학과 교류하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G L O B A L P R O G R A M

Exchange Student Program

교환학생 프로그램

동국대와 교류를 맺고 있는 해외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학한 후,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2학기 이상 이수자(1학년 2학기부터 지원 가능),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 학점도 취득하면서 다양한 문화경험으로 시야도 넓히는 기회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Tutoring Program

외국어 튜터링

동국대에 재학중인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이 자율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지 영어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 1명 당 재학생 그룹 2~3명이 한 학기동안 튜터링 그룹을 조직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물론 서로에 대한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Overseas Internship

해외인턴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면 '해외인턴십' 제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미국, 중국 등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경력 개발은 물론 진로 설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견 기간은 1년에서 2개월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Dongguk International Summer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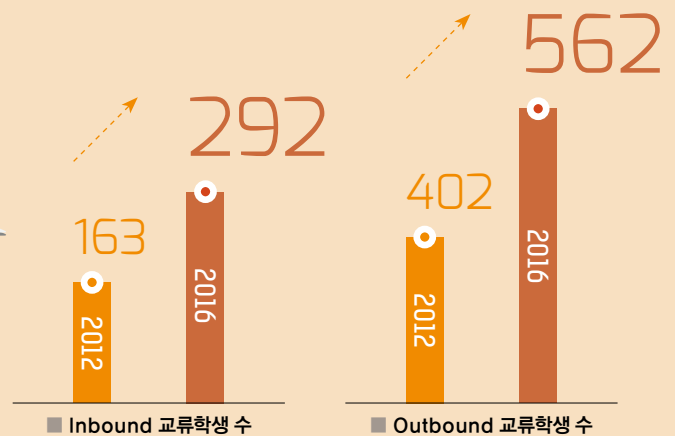
인터내셔널 서머스쿨

긴 여름방학도 동국인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동국대만의 특성화 된 학문을 경험해보세요. 해외에서 초빙된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만남은 참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외국인 학생들과의 템플스테이, 등산, 단편영화 제작,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즐거운 문화교류의 장도 놓치지 마세요.

Dongguk BUD

동국벗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버디가 되어주세요. 동국벗은 새로 입학한 외국인 교환학생의 원활한 캠퍼스 적응 및 유학생할 조기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을 1:1로 매칭하여 서포트하는 Buddy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도움만 주는 프로그램이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디 활동도 하며 자연스럽게 외국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취업의 강자! 창업의 메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취업률〉




8 위

2016년 기준(2016. 06. 01 기준)

88.2% 통계학	87.5% 컴퓨터공학
87.5% 약학	84.8% 전자전기공학
81.3% 기계로봇에너지공학	80.0% 정보통신공학
〈동국대 이공계 취업률〉 2015년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기준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힘내라! 청년!**


취업성공까지 길고 긴 레이스! 지치시죠?
여러분은 혼자가지 않습니다!
적성진단, 진로결정,
체계적인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STEP 1
적성진단**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성격검사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STEP 2
진로 결정**

진로목표 설정과
커리어 로드맵 수립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핵심역량과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STEP 3
취업전략 수립**

취업선배, 취업
전문가에게 듣는
취업성공 노하우

취업한 동문 선배 멘토링, 기업별 캠퍼스 채용설명회, 해외취업 설명회 등을 통해 나에게 맞는 기업, 취업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S U P P O R T P R O G R A M

2011~2017년 7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선정

Q. 동국대는 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동국대학교. 일반형 창업선도대학 중 '최우수' 대학으로 재 선정 및 국내유일 4년 연속 교육부 지정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누적 정부지원금이 총 155억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년기업가센터,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을 통해 창업 강좌 및 교육, 창업 동아리에 공간과 지원금 제공, 나아가 사업화와 투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을 캠퍼스에 유치해 학생과의 활발한 교류를 돕고,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등 창업을 꿈꾸는 청년기업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42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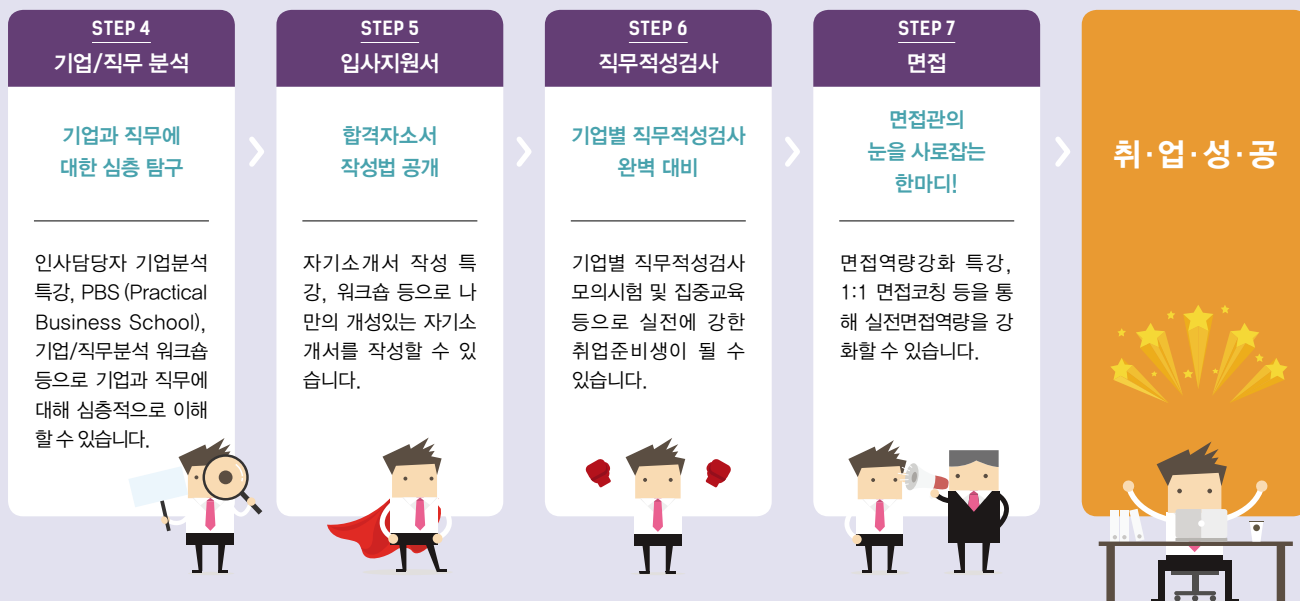
동국대 창업동아리



Q. 창업과 관련한 동국대 학생들의 성과를 알고 싶어요.

동국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 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해외 창업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 발명전시회인 "2016 타이베이 국제 발명전시회"에서는 우리대학 학생 창업동아리 4팀(8명)이 참가하여 금상 1건(오르담 : UV코팅 점자 디자인 제품), 동상 2건(SEED LAB : 2차 사고방지 아이템 / 젤봉이 : 젤라틴 봉지), 특별상 1건(언리얼파크 : AR(증강현실) 게임) 등 참가팀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중국 북경에서 열린 창업 경진대회 "YES Challenge Asia 2016 Startup Competition"에는 총 8개 대학 19팀이 출전했습니다. 우리대학은 7팀이 출전하여 1st Prize 1건(위플레이 : 이색스포츠 프로그램), 2nd Prize 2건(VSP : 반려동물 전용 카메라 앱 / 삼복프로덕션 : 바이럴 마케팅 영상 브랜드 웹 드라마), 3rd Prize 2건(날다 : 인공지능 제어 기반의 자동 접이식 드론 / 슬러비 : 나만의 노래방 비밀무기 '고래방')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창업 지원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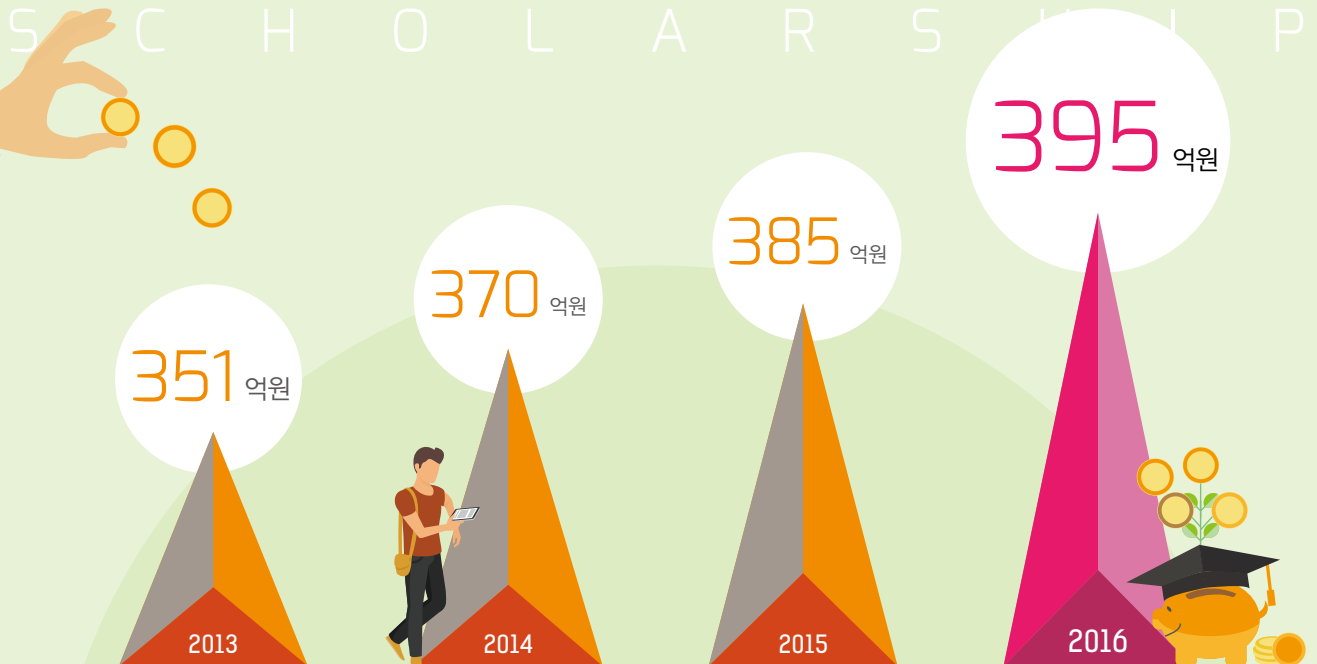
동 국 대 세 꿈 을 J O B 아 라 !



학 생 중 심 의 장 학 제 도

더 커진 혜택, 등록금 걱정없는 장학제도

학생중심의 장학제도! 매년 커진 혜택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를 알아보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장학혜택을 꼭 찾아보세요!



학생 1인당 수혜금액
264 만원

학생 1인당 수혜금액
281 만원

학생 1인당 수혜금액
293 만원

학생 1인당 수혜금액
301 만원



신입생 대상 장학은

입학(최)우수장학 / 불교대학장학 / BMC특성화장학 /
문학인육성장학 / 원흥장학 / 동국가족장학 등



재학생이 되면

수석장학 / 성적우수장학 / 강좌별수석장학 / 교육활동우수장학 / 모범장학 / 복지장학 /
보훈장학 / 교육보호장학 / 근로장학 / 동국리더장학 / 공로장학 / 고시장학 /
공인회계사장학 / 체육특기자장학 / 전문자격장학 / 중단추천장학 / 중립학교장학 /
군중법사장학 / 불교미술장학 / 외국인장학 / 교환학생장학 / 해외탐방장학 /
108리더스장학 / 동대신문사·교육방송국·동국포스트장학 등

여유있는 교내 장학과 더 풍성한 교외 장학들,

동문회장학

81 개

+

장학재단장학

122 개

+

공공기관 및 지자체장학

41 개

+

불교청년 지도자 장학

15 개

그 외에도 많은 교외 장학들이 있어 동국에서의 캠퍼스 라이프가 즐겁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111주년을 맞이한 동국대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리더들을 배출해 왔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젊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는 우리대학과 함께 세계로 뻗어갈 우수 인재 선발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대학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단일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논술전형은 꼭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춘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대학 논술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풀어내고 있어 충실하게 학교 수업에 임한 학생들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 고교교육 중심의 평가라는 절대적 지표를 세워두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암기위주의 표면적 평가가 아닌, 대학교육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성적 사고력과 종합적 판단력 평가를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대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첫째, 선행학습에 의한 불균형한 교육환경을 지양하고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다뤄지지 않은 어려운 개념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논술 사교육을 통해 단기간 내에 얻은 특정 지문이나 공식을 암기한 지식은 사용될 수 없도록 판단의 폭을 넓혀 두었습니다. 결국 고교 교육과정의 울타리 내에서 길러낸 통합적 사고능력을 위주로 여러 교과와 내용을 하나의 주제 내에서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응용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논술전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수학능력 즉, 대학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분야의 깊이있는 학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본 논술 가이드북의 발간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우리대학 논술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갖게 되어, 동국대학교로 가는 길을 다지는 탄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남산자락의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동국대학교 입학처장

강삼모



2 0 1 8 동 국 대 학 교

Contents

- 16 I. 2018학년도 신입학 주요사항 안내
- 26 II. 2015~2017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 III. <인문계> 2016, 2017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 36 1) 논술 전형 특징
 - 36 2) 논술 전형 유의사항
 - 38 3) 논술 문제 및 해설
 - 38 - 2017학년도 논술고사(인문I) 문제 및 해설
 - 48 - 2017학년도 논술고사(인문II) 문제 및 해설
 - 55 - 2016학년도 논술고사(인문I) 문제 및 해설
 - 62 - 2016학년도 논술고사(인문II) 문제 및 해설
 - 71 - 동국대논술, 이렇게 대비하라! (인문계)

꽃피는 봄
응원합니다.



논 술 가 이 드 록

IV. <자연계> 2016, 2017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 74 1) 논술 전형 특징
- 74 2) 논술 전형 유의사항
- 76 3) 논술 문제 및 해설
- 76 - 2017학년도 논술고사(자연) 문제 및 해설
- 88 - 2016학년도 논술고사(자연) 문제 및 해설
- 101 - 동국대논술, 이렇게 대비하라! (자연계)

V. 논술우수자 전형 합격생 합격수기

- 104 1) <인문계>
- 109 2) <자연계>

112 VI. 논술전형 Q&A

- 114 동국대학교 주요학과 소개
- 119 논술고사 모의 답안지

2018

신입학 전형 주요 사항

I

전형 간소화 유지

- ▶ 전형 방법 수를 정원내 기준 수시 4개, 정시 1개로 유지
- ▶ 수시는 학생부 종합/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
- ▶ 수시 특기자는 예체능계열 및 관련학과에 한해 모집

수시모집 인원확대

-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319명 증원(전년도 1,828명 → 2018학년도 2,147명) ▲319명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인원 확대

- ▶ 학생부 종합 전형 : 700명 증원(전년도 821명 → 2018학년도 1,521명) ▲700명
- ▶ Do Dream 전형 : 217명 증원(전년도 430명 → 2018학년도 647명) ▲217명
- ▶ 학교장추천인재 : 305명 증원(전년도 132명 → 2018학년도 437명) ▲305명
- ▶ 학생부 교과 전형 폐지
- ▶ 고른기회전형 : 70명 증원(전년도 259명 → 2018학년도 329명) ▲70명

논술전형 축소

- ▶ 모집인원 축소 : 15명 축소(전년도 489명 → 2018학년도 474명) ▼15명

학생부 비교과반영 (논술, 특기자전형)

- ▶ 논술우수자, 특기자 전형 : 학생부(출결), 학생부(봉사) 영역 반영

수시 특기자전형 모집단위 추가

- ▶ 특기자(S/W) :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과 ■14명
- ▶ 특기자(체육-일반) : 체육교육과 ■20명
- ▶ 특기자(영화영상) : 영화영상학과 ■10명

논술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 학력기준

- ▶ 영어 절대평가 시행을 반영한 기준 적용
- ▶ 한국사 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 반영 방법 변경

- ▶ 인문계열/체육교육과/영화영상학과 : 국어(30%→35%), 영어(25%→20%) 영역 반영 비율 변경
- ▶ 자연계열 : 수학(30%→35%), 영어(25%→20%) 영역 반영 비율 변경
- ▶ 영어영역 : 영어등급에 따른 우리대학 기준 환산점수 적용
- ▶ 체육교육과 : 수학 영역 반영
- ▶ 미술학부/연극학부 : 영어(40%→30%), 사회/과학/직업(20%→30%)

정시모집

- ▶ 가군 26개, 나군 25개 모집단위로 나누어 모집
- ▶ 가/나군 845명 모집(2017학년도 대비 324명 축소) ▼324

●● 2018학년도 수시모집 ●●

1)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 유형	전형명	구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1단계 성적	학생부			서류 종합 평가	면접 평가	기타			
				교과	출결	봉사						
학생부 종합	Do Dream/불교추천인재/ 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단계(3배수)	-	-	-	-	100	-	-	미적용		
		2단계	70	-	-	-	-	30	-			
	학교장추천인재/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일괄	-	-	-	-	100	-	-			
논술	논술우수자	일괄	-	20	10	10	-	-	논술 60	적용		
실기	특기자	문학/어학/SW	일괄	-	20	10	10	-	-	실기 60	미적용	
		연기	1단계 (10배수)	-	-	-	-	-	-	기초실기 100	미적용	
			2단계	-	20	10	10	-	-	종합실기 60		
		영화영상	1단계 (3배수)	-	20	10	10	-	-	실기 60	미적용	
			2단계	70	-	-	-	-	30	-		
		체육(일반)	1단계 (5배수)	-	-	-	-	-	-	-	실기 100	미적용
			2단계	-	60	10	10	20	-	-	-	
		체육(선수)	일괄	-	10	5	5	80	-	-	미적용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논술우수자, 특기자 전형만 해당)

【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및 점수 】

가. 반영교과 중 상위 10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성적산출

학년별 교과 반영비율(%)	활용 지표	반영교과	반영과목수	이수단위 반영여부
학년 구분 없음	등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반영교과 중 상위10과목	X

나. 반영점수

구분	논술우수자, 문학, 어학, S/W, 연기, 영화영상	체육-일반	체육-선수
최고점수	200	600	100
기본점수	120	360	60

다. 학생부 석차등급별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95	9.9	9.8	9.7	9.6	8.8	8.0	6.0

※ 산출방법 : $\{[(\text{등급점수}) \div \text{반영과목수}] \div \text{최대 등급점수}(10점)\} \times \text{반영총점}$

라. 학생부 출결 및 봉사활동 환산점수

환산점수	10	9.5	9	8.5	8	7.5	7	6.5	6
무단 결석일수	3일이하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18일	19~21일	22~24일	25일이상
봉사활동 시간	30시간이상	29~27시간	26~24시간	23~21시간	20~18시간	17~15시간	14~12시간	11~9시간	8시간이하

마. 반영방법

- 1)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조기졸업은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 반영
- 2) 교과별, 학년별 반영비율과 각 과목별 이수단위는 적용하지 않음
- 3) 무단(사고) 결과·지각·조퇴는 결과·지각·조퇴 3회당 1회 무단(사고) 결석 1회로 반영
- 4) 검정고시 출신자 등 교과 및 출결·봉사활동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내신으로 산출

3)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방법

【서류종합평가】

가. 해당전형

전형명	반영단계	반영비율(%)	반영점수(최고점수/기본점수)
Do Dream/불교추천인재/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단계	100	1,000
			600
학교장추천인재/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일괄	100	1,000
			600

나. 평가방법

- 1) 평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 2) 평가항목 : 학교생활충실도를 바탕으로 한 학업역량, 전공관심도, 인성 등을 종합평가
-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배점)

구분	평가영역 비율(%)		
	학교생활충실도 (전공 및 기초 학업역량/전공관심도)	인성	합계
비율	70 내외	30내외	100

【면접평가】

가. 해당전형

전형명	반영단계	반영비율(%)	반영점수(최고점수/기본점수)
Do Dream/불교추천인재/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단계	30	300
			180

나. 평가방법

- 1) 평가방법 : 2인의 입학사정관이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0분 내외의 개별면접
- 2) 평가내용 :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발전가능성, 전공·적형 취지 적합성, 인성·사회성 등을 종합평가

3) 평가영역별 비율

전형명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발전가능성	전공·전형취지 적합성	인성·사회성	합계
Do Dream/불교추천인재/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	40	30	100

4)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격

【 Do Dream 】

- ▶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장추천인재 】

- ▶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 소속(졸업)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고교추천인원 : 총 4명 이내(모집단위 기준 인문(영화영상학과 포함)계열 2명 이내, 자연계열 2명 이내)

【 불교추천인재 】

구분	지원자격
일반	-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포교당 포함) 주지스님이나 소속(졸업) 종립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불교학부(승려) 불교사회복지학과(승려)	- 국내 · 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로서 - 대한불교조계종 재적 승려(2017년 9월 승적 취득예정자 지원 가능) ※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 국가보훈대상자 】

- ▶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세부 지원 자격〉

구분	관련법령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2)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8호 (단, 제10호 제외)
(3)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4)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7조 제9항
(6)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
(7)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8)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 농어촌학생 】

- ▶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지원불가
- ▶ 아래 <유형1>과 <유형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유형1>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하고, 재학기간 6년 동안 부·모·학생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2>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하고, 재학기간 12년 동안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특성화고졸업자 】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2016년 2월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 다만, 마이스터고, 종합고 “보통과”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 ▶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우리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전공)가 동일계열인 자
 - ※ 다만, 동일계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동일계열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 이 전형에서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합니다.

▷ 특성화고 재학기준

- ① 특성화고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전에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한 자는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4월 1일 이후에 전입학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② 마이스터고, 종합고 “보통과”, 대안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을 졸업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 ▶ 2018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참조

5) 논술 전형 지원자격 등

【 논술우수자 】

가. 지원자격

-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나.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선발배수	학생부			서류종합평가	논술	수능 최저학력기준
		교과	출결	봉사			
일괄	1배수	20	10	10	-	60	적용

2) 수능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응시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2과목)			
		가형	나형			사회	과학		직업
인문계열	○	○	○	○	○	○			국어/수학(가형 또는 나형)/영어/(사회 또는 과학)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경찰행정학부	○	○	○	○	○	○			국어/수학(가형 또는 나형)/영어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자연계열	○	○	○	○	○	○			국어/수학 가형/영어/과학탐구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사회 또는 과학)탐구 영역은 2개 과목 중 상위 1개만 반영 / •직업탐구 응시자도 지원은 가능하나 등급합 산정 시 제외

3) 논술고사 출제방식

구분	내용
형태	특정 교과영역의 단순 암기위주식(주입식)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 주장, 사회·자연 현상 등에 대한 이해력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창의적으로 서술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논술
시간 및 분량	- 시험시간은 100분 - 문항 수는 3개이고, 전체 답안 분량은 최대 1,500자 이내(자연계는 50줄)
문항구성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① 문항 2개는 250자~400자 정도의 답안 분량 ② 문항 1개는 550자~700자 정도의 답안 분량으로 구성
출제방향	- 인문계열 :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도록 문제 출제(영어지문 없음) - 자연계열 : 수리는 풀이과정을 보는 1개 문제, 과학은 통합교과형 문제 출제
유의사항	- 최종 답안 작성 시 흑색 볼펜 또는 연필 사용가능 - 출제된 문항 일부만 선택하여 작성하면 안 되고, 모든 문항을 풀어야 함 - 지정된 답안 분량(범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유의 - 답안은 제공된 답안지 1장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내용이나 답안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표시 금지

4) 평가기준 및 배점

- ① 평가기준 : 문제와 주제에 대한 이해력,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능력(문제해결력), 지식의 풍부함과 사고의 균형감각, 분석력과 추리력 등 종합적 사고능력, 언어 표현의 정확성(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② 산출방법 : 각 문항별 배점의 합은 100점으로 하고, 문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총점(600점)으로 환산
- 산출수식 : $[\sum(\text{문항별점수}) \div \text{만점}(100\text{점})] \times \text{반영총점}(600\text{점})$

6) 실기 전형 지원자격 등

【 특기자(문학) 】

가. 지원자격

- ▶ 2016년 2월 이후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나. 실기고사

종목	시간	내용
운문 또는 산문	120분	- 실기고사 종목별 문제는 고사 당일 제시함 - 표현력, 창의력, 정서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원고분량은 제공된 답안지 1장으로 작성

【 특기자(어학) 】

가. 지원자격

-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 ▶ 2016년 2월 이후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중
- ▶ 2015. 10. 1(목) ~ 2017. 8. 13(일)까지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아래 외국어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외국어 성적 입력 및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FL(IBT)	TOEIC	TEPS	JPT	HSK
성적	110점 이상	960점 이상	873점 이상	920점 이상	6급 260점 이상

※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실기고사

종목	모집/단위	작성언어	내용
작문 (에세이)	영어영문학과	영어	- 한국어로 된 제시문을 읽고 지문과 연계한 질문에 본인 생각(의견)을 해당언어로 기술하는 에세이
	일본학과	일본어	- 표현력, 사고력, 정서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 원고분량은 제공된 답안지 1장으로 작성(40줄 이내)

【 특기자(S/W) 】

가. 지원자격

- ▶ 2016년 2월 이후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나. 실기고사

모집단위	종목	내용
컴퓨터공학전공	SW설계 (120분)	- 과제는 고사 당일 제시 - 수학을 비롯한 계산 사고력, 프로그래밍 능력 등 SW설계를 위한 기초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멀티미디어공학과	프로그래밍 (120분)	- 과제는 고사 당일 제시(문제유형: 분석문제, 작성문제) - 멀티미디어공학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 특기자(연기) 】

가. 지원자격

-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나. 실기고사

구분	내용
기초실기고사	- 연극 또는 뮤지컬 관련 작품 하나를 자유 선정하여 준비 - 한 장면을 선택하여 2분 이내로 실연
종합실기	- 지정 작품, 즉흥연기, 특기 등을 실연 - 지정 작품에 대한 이해력, 즉흥연기, 특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특기자(영화영상) 】

가. 지원자격

- ▶ 2016년 2월 이후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나. 실기고사

종목	내용
장면 구성 (70분)	- 제시된 1개 혹은 다수의 이미지(그림 또는 사진)을 활용하여 간략한 이야기와 스토리보드 구성
시나리오 작성 (90분)	- 제시된 문장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성

다. 면접고사

구분	내용
진행방법	- 면접 전 면접카드 작성 - 2~3인의 면접위원이 아래 평가항목에 대해 개별 면접 실시(전체 10분 이내)
평가항목	[전공적성] 지원자의 해당 전공에 대한 학업적성, 기초수학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성·사회성] 지원자가 작성한 면접카드를 참고로 질의응답을 통해 인성·사회성·기본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특기자(체육-일반) 】

가. 지원자격

- ▶ 2016년 2월 이후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우리대학 운동부(야구, 축구, 농구) 소속 선수는 특기자(체육-선수) 전형에서 선발함

나. 실기고사

종목	내용
배근력/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제자리멀리뛰기/중량메고 달리기	종목별로 측정한 결과를 점수화하여 성적을 합산함

다. 서류종합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과 각종 대회 수상실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특기자(체육-선수) 】

- ▶ 2018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참조

●● 2018학년도 정시모집(가/나군) ●●

1) 일반/농어촌학생/특성화고출신자/특수교육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전형방법
가군	일반/농어촌학생/특성화고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문계열/자연계열/영화영상학과	수능 100%
	일반	체육교육과/연극학부	수능 60% + 실기고사 40%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치안과학융합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서류종합평가 100%
나군	일반/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문계열/자연계열	수능 100%
	일반	미술학부	수능 60% + 실기고사 40%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있음

2)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구분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제2외국어 /한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형	나형		사회/과학	과학	사회/과학/직업		
인문계열/ 체육교육과/ 영화영상학과	35%	25%(택 1)		20%	20%	-	-	가산점	탐구 1과목 대체가능
자연계열	20%	35%	-	20%	-	25%	-	가산점	-
미술학부/ 연극학부	40%	-		30%	-	-	30%	가산점	탐구 1과목 대체가능

- ※ 자연 및 예체능계열 구분별 모집단위는 정시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 한국사 영역은 가산점제도로 적용하며, 미응시자 및 결시자는 지원 불가함
- ※ 특성화고졸업자 전형은 인문 및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도 탐구영역에 직업탐구 포함

3) 반영방법

- 1) 전형 및 계열별로 지정한 반영영역의 성적이 모두 존재해야 함
- 2) 계열 및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반영영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반영
 - 국어/수학 : 수능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를 반영
 - 영어/한국사 : 수능성적표에 기재된 등급을 우리대학 기준 환산점수로 반영
 - 탐구 및 제2외국어 / 한문 :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 반영
 - 인문계열/예체능계열 지원자 중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변환표준점수가 탐구 영역의 2개 과목 중 1개 과목의 변환표준점수와 비교하여 우수한 경우 탐구영역 1개 변환표준점수와 자동 대체함
- 3) 영어/한국사 영역 등급별 환산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어	200	196	190	180	160	140	120	20	0
한국사(가산점)	6			5	4	3	2	1	0



DONGGUK UNIVERSITY

2018 동국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2015~2017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2015~2017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II

1) 경쟁률

(1) 2015학년도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질경쟁률
인문/사회/예체능	145	7,796	53.77	18.05
경영학부	90	2,277	25.30	6.02
경찰행정	30	909	30.30	10.47
자연	234	4,797	20.50	6.18
계	499	15,779	31.62	9.86

* 실질경쟁률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지원자의 경쟁률

(2) 2016학년도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질경쟁률
인문/사회/예체능	150	7,493	49.95	14.96
경영학부	90	2,365	26.28	5.42
경찰행정	30	1,073	35.77	10.93
자연	229	4,869	21.26	6.66
계	499	15,800	31.66	9.19

(3) 2017학년도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질경쟁률	
인문/사회/예체능	150	6,106	40.71	12.99	
*경영	경영학	35	1,001	28.60	6.71
	회계학	25	578	23.12	7.64
	경영정보학	20	511	25.55	8.30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30	992	33.07	9.93
자연	229	4,819	21.04	6.80	
계	489	14,007	28.64	8.99	

★: 2017학년도부터 경영학부 모집에서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로 모집단위 분할

☆: 2017학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사법대학(경찰행정학부)으로 변경

- ▶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의 상승으로, 실질 경쟁률(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 경영대학은 타 인문계열 모집단위와 비교할 때, 실질경쟁률 대비 합격할 가능성이 1.5~2배정도 높다고 할 수 있음
- ▶ 자연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 대체로 경쟁률과 실질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계열별 경쟁률 상위 5개 학과

계열	학과 및 경쟁률
인문 (영화영상)	영화영상학과(57.4 : 1) / 철학과(53.4 : 1) /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51.7 : 1)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48.2 : 1) / 광고홍보학과(47.2 : 1)
자연	화공생물공학과(29.3 : 1) / 컴퓨터공학전공(24.1 : 1) /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23.6 : 1) / 전자전기공학부(22.6 : 1) / 의생명공학과(22.3 : 1)

▶ 계열별 경쟁률 하위 5개 학과

계열	학과 및 경쟁률
인문	회계학과(23.1 : 1) / 경영정보학과(25.6 : 1) / 경영학과(28.6 : 1) / 경제학과(31.6 : 1) / 행정학전공(32.9 : 1)
자연	물리·반도체과학부(15.9 : 1) / 바이오환경과학과(15.9 : 1) / 건설환경공학과(16.8 : 1) / 식품생명공학과(17.3 : 1) / 생명과학과(17.8 : 1)

▶ 계열별 실질경쟁률 상위 5개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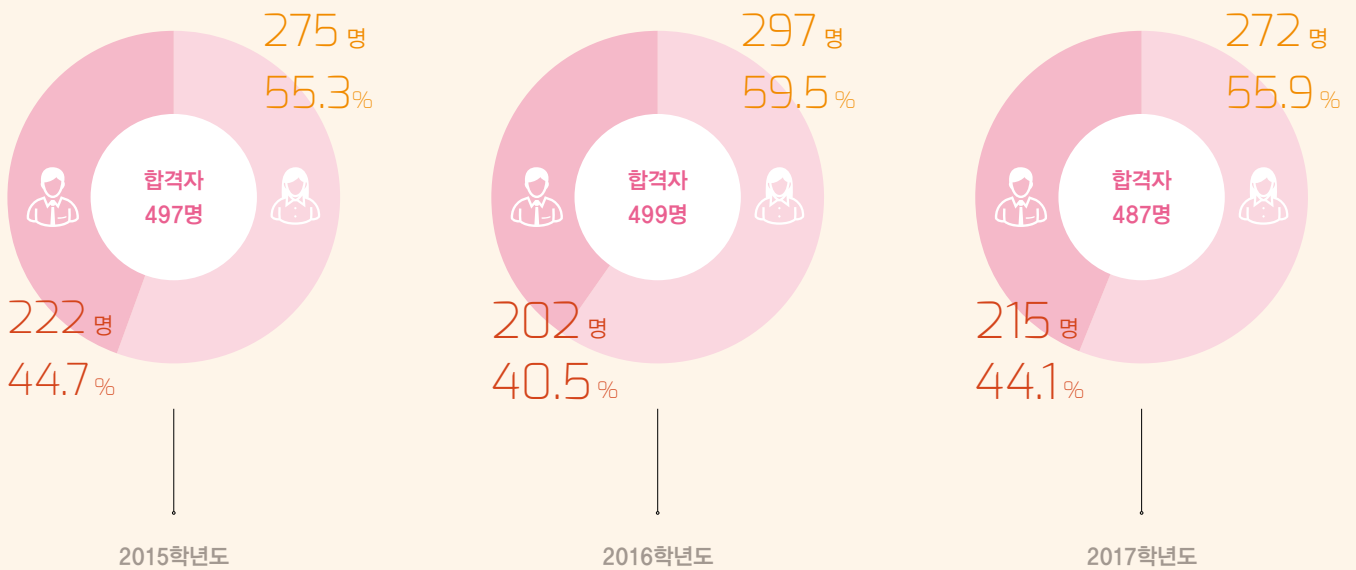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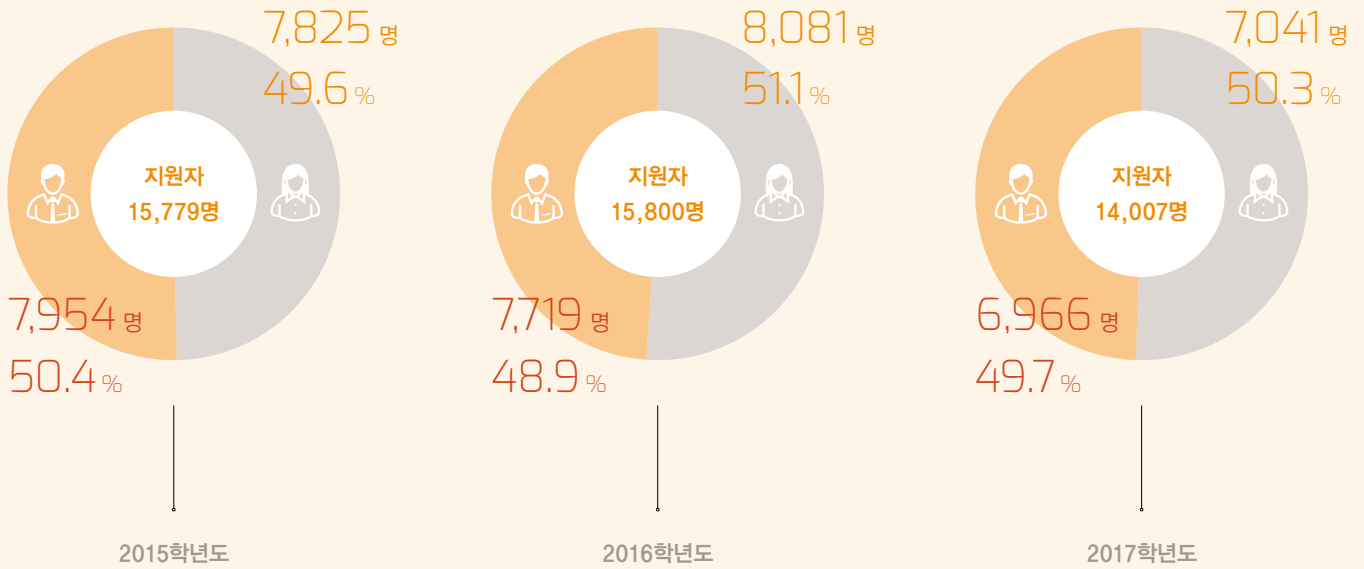
계열	학과 및 경쟁률
인문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16.7 : 1) / 영어영문학부(15.7 : 1) / 광고홍보학과(15.3 : 1) / 사학과(15.0 : 1)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14.2 : 1)
자연	화공생물공학과(13.2 : 1) / 컴퓨터공학과(9.2 : 1) / 전자전기공학부(7.7 : 1) /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7.6 : 1) / 수학과(7.2 : 1)

▶ 계열별 실질경쟁률 하위 5개 학과

계열	학과 및 경쟁률
인문	경영학과(6.7 : 1) / 회계학과(7.6 : 1) / 경영정보학과(8.3 : 1) / 행정학전공(9.8 : 1) / 경제학과(9.8 : 1)
자연	바이오환경과학과(3.4 : 1) / 멀티미디어공학과(4.5 : 1) / 물리·반도체과학부(4.7 : 1) / 건설환경공학과(4.7 : 1) / 건축공학부(5.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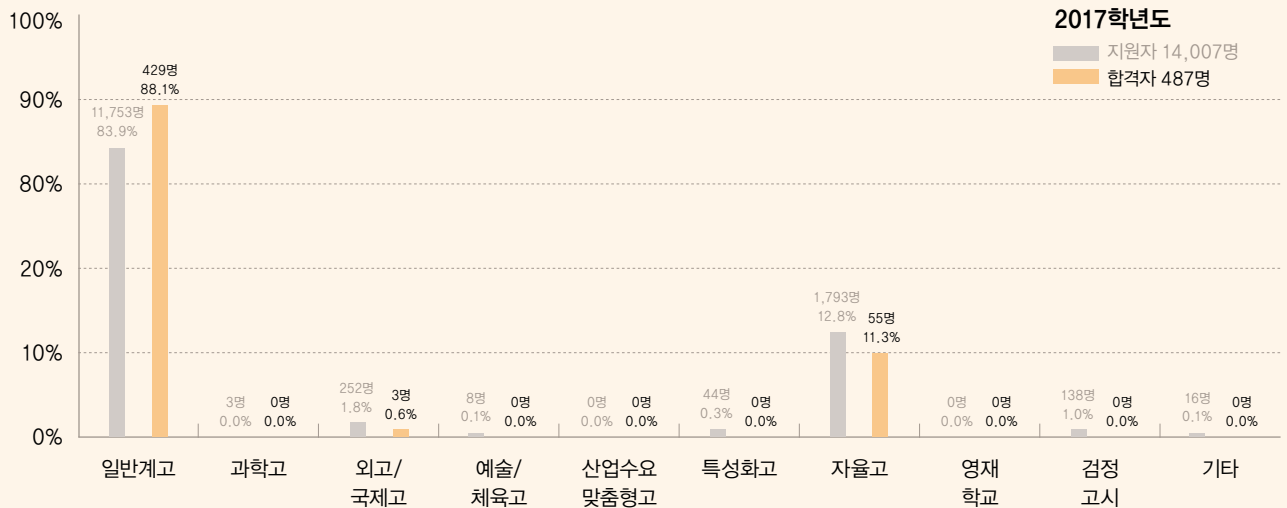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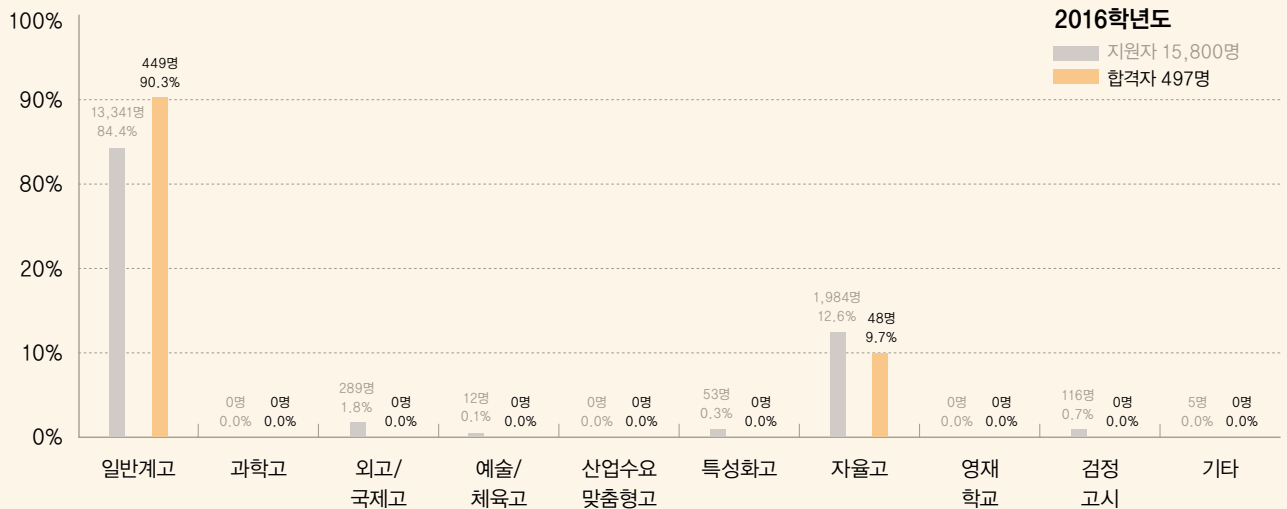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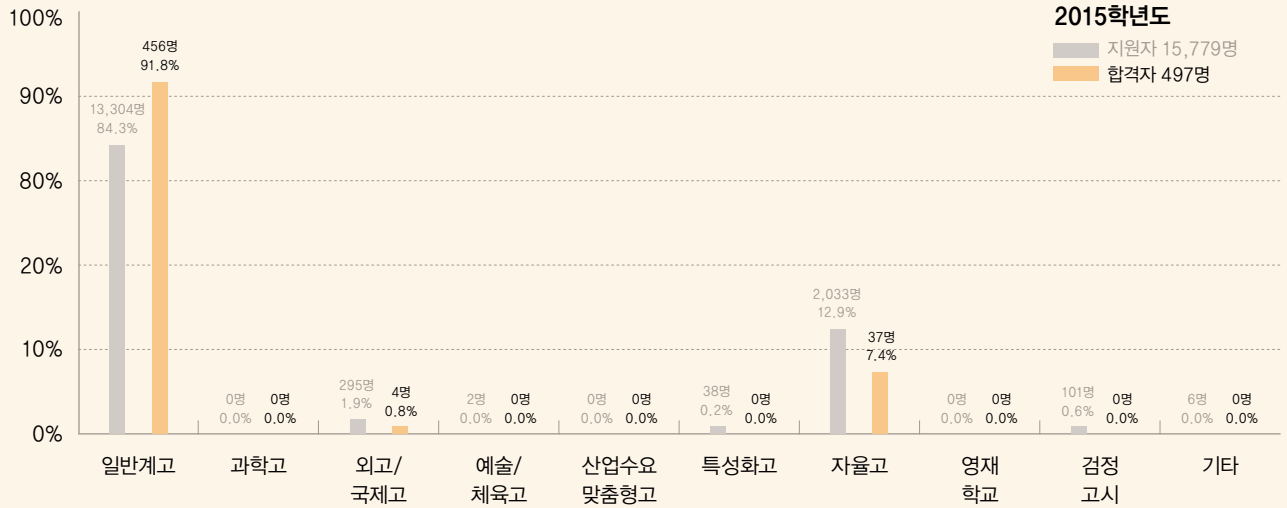
2) 지원자 분석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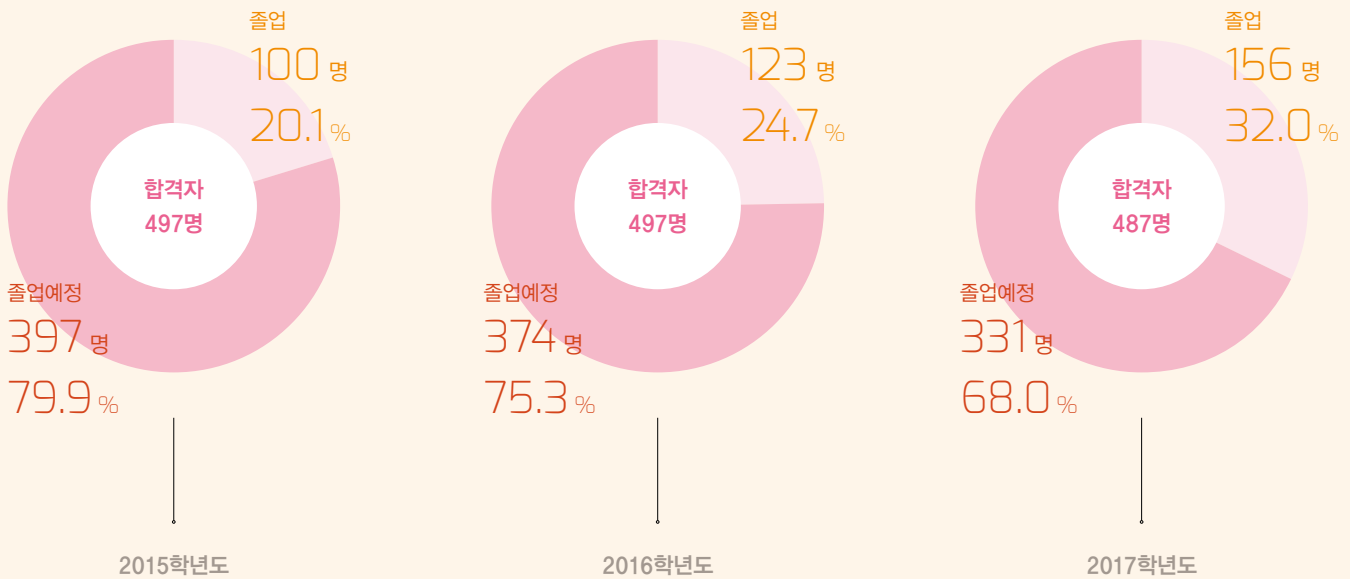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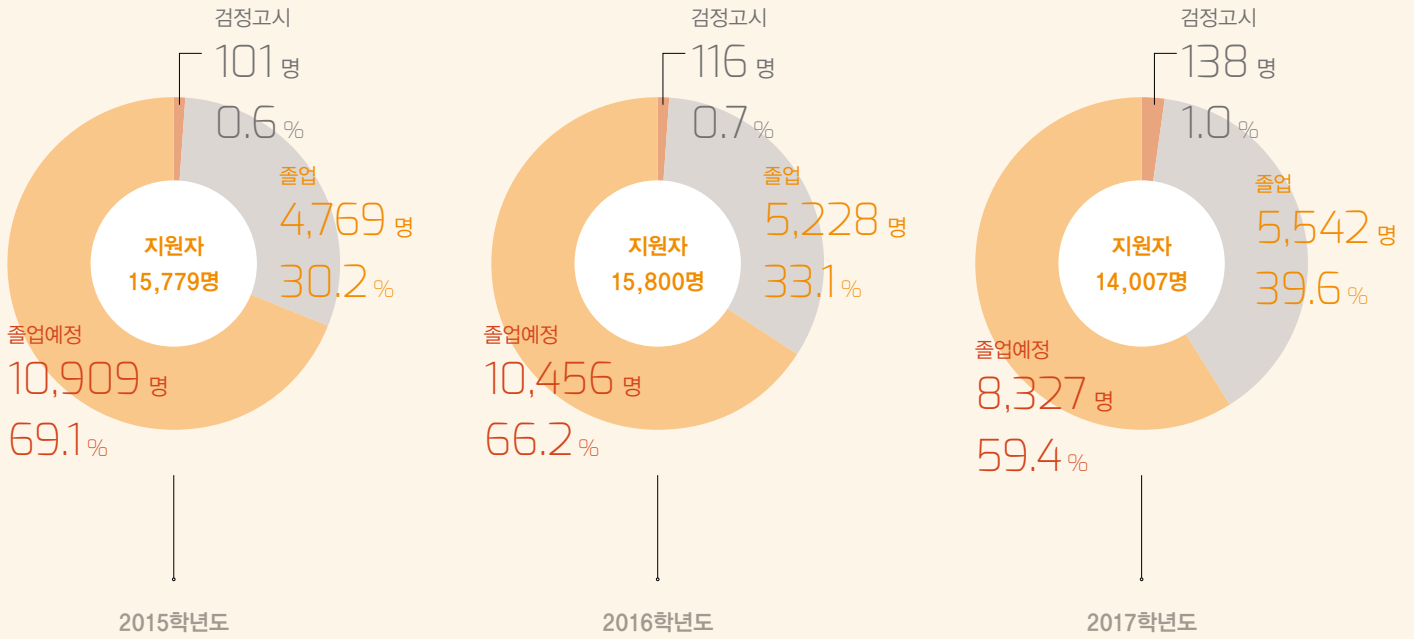
▶ 2016학년도 대비 남학생의 합격률은 3.6%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여학생의 합격률이 높음

(2) 고교유형별



- ▶ 2016학년도 대비 외교/국제고 학생의 합격률이 소폭 증가
- ▶ 일반계고의 합격률이 하락한 반면 자율고의 합격률이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3) 졸업시기별



- ▶ 재학생의 지원율과 합격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 2016학년도 대비 졸업자의 지원율과 합격률이 각각 6.5%, 7.3% 상승하여 재수생의 강세가 두드러짐

3) 논술 성적

▣ 고사유형별

(1) 2015학년도

구분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1	86.1	70 ~ 98	90.1	87 ~ 95
인문2	84.8	70 ~ 98	90.3	86 ~ 97
자연	84.0	70 ~ 97	88.9	83 ~ 97

(2) 2016학년도

구분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1	84.8	70 ~ 98	88.8	85 ~ 96
인문2	83.9	70 ~ 97	89.5	86 ~ 97
자연	84.1	70 ~ 98	90.8	82 ~ 98

(3) 2017학년도

구분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1	85.4	70 ~ 96.4	90.9	87.9 ~ 94.2
인문2	86.0	70 ~ 98.5	91.3	88 ~ 96.8
자연	81.6	70 ~ 95.1	86.9	81.8 ~ 95.1

- ▶ 위 표는 최근 3년 논술고사 시간(인문계 오전, 인문계 오후, 자연계)에 따른 고사유형별 논술성적 자료를 나타냄
- ▶ 2016학년도 대비 인문계열의 논술성적은 지원자, 합격자 모두 상승한 반면, 자연계열의 논술성적은 지원자, 합격자 모두 하락함
- ▶ 합격자 논술성적 범위(최저-최고 범위)가 2016학년도 대비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 단과대학별

(1) 2015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86.4	70 ~ 98	91.4	88 ~ 95
이과	84.0	70 ~ 97	89.2	83 ~ 97
법과	85.3	70 ~ 97	91.0	88 ~ 97
사회과학	84.7	70 ~ 98	90.2	86 ~ 95
사회과학(경찰행정)	84.8	70 ~ 94	89.8	88 ~ 94
경영	85.8	70 ~ 96	89.7	87 ~ 94
바이오시스템	83.9	73 ~ 94	88.6	85 ~ 92
공과	84.0	70 ~ 95	88.9	84 ~ 94

(2) 2016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85.5	70 ~ 98	91.2	87 ~ 96
이과	85.1	72 ~ 98	92.5	86 ~ 98
법과	84.9	70 ~ 96	90.6	87 ~ 94
사회과학	83.9	70 ~ 97	89.7	86 ~ 97
사회과학(경찰행정)	82.6	70 ~ 94	87.7	86 ~ 91
경영	84.2	70 ~ 94	87.8	85 ~ 94
바이오시스템	84.1	71 ~ 96	89.4	82 ~ 95
공과	83.9	70 ~ 97	90.7	84 ~ 97
예술	84.9	77 ~ 93	91.1	90 ~ 93

(3) 2017학년도

단과대학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86.2	70 ~ 96.8	92.2	89.5 ~ 96.8
이과	81.7	70 ~ 95.1	87.2	83.4 ~ 95.1
법과	85.9	70 ~ 95.6	91.2	89.1 ~ 93.4
사회과학	85.2	70 ~ 96.4	90.8	87.9 ~ 94.2
경찰사법	85.4	71.2 ~ 98.5	91.2	89.2 ~ 94
경영	86.2	70.7 ~ 96.4	91.0	88 ~ 96.4
바이오시스템	81.8	70 ~ 91.4	86.2	82.9 ~ 91.4
공과	81.6	70 ~ 95	87.0	81.8 ~ 95
예술	85.3	75.3 ~ 93.6	91.6	90.5 ~ 93.3

- ▶ 2017학년도 합격자의 단과대학별 논술성적 평균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6.2 ~ 92.2 점수 사이에 형성되고 있음
- ▶ 2017학년도 합격자는 지원자 평균점수보다 4.4 ~ 6.3점 더 높은 경우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4) 학생부 성적

▣ 고사유형별

(1) 2015학년도

구분	지원자 학생부성적		합격자 학생부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1	3.37	1.00 ~ 8.17	2.45	1.25 ~ 4.17
인문2	3.38	1.00 ~ 7.92	2.41	1.00 ~ 4.50
자연	3.74	1.17 ~ 7.75	2.86	1.33 ~ 5.25

(2) 2016학년도

구분	지원자 학생부성적		합격자 학생부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1	3.47	1.00 ~ 8.42	2.51	1.08 ~ 4.58
인문2	3.44	1.00 ~ 8.17	2.42	1.00 ~ 4.25
자연	3.78	1.33 ~ 7.67	3.00	1.58 ~ 5.83

(3) 2017학년도

구분	지원자 학생부성적		합격자 학생부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1	3.19	1.00 ~ 8.00	2.34	1.00 ~ 4.20
인문2	3.13	1.00 ~ 8.90	2.22	1.00 ~ 3.80
자연	3.34	1.00 ~ 7.50	2.51	1.00 ~ 4.80

- ▶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 합격자의 경우 인문계열은 내신 최하 4.2등급, 자연계열은 최하 4.8등급으로 나타남
- ▶ 2016학년도 대비 자연계열 합격자의 학생부성적 평균이 0.49 등급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단과대학별

(1) 2015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학생부성적		합격자 학생부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3.39	1.08 ~ 7.42	2.58	1.33 ~ 4.17
이과	3.56	1.17 ~ 7.50	2.70	1.33 ~ 4.33
법과	3.36	1.17 ~ 6.75	2.68	1.25 ~ 4.50
사회과학	3.40	1.08 ~ 7.92	2.36	1.33 ~ 4.08
사회과학(경찰행정)	3.31	1.00 ~ 7.42	2.22	1.00 ~ 3.92
경영	3.35	1.00 ~ 8.17	2.41	1.25 ~ 4.00
바이오시스템	3.69	1.33 ~ 7.75	2.71	1.33 ~ 4.42
공과	3.80	1.33 ~ 7.67	2.95	1.42 ~ 5.25

(2) 2016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학생부성적		합격자 학생부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3.52	1.08 ~ 7.67	2.49	1.08 ~ 3.67
이과	3.63	1.42 ~ 6.50	2.96	1.58 ~ 5.00
법과	3.48	1.08 ~ 8.00	2.68	1.50 ~ 4.08
사회과학	3.47	1.17 ~ 8.17	2.49	1.25 ~ 4.25
사회과학(경찰행정)	3.26	1.00 ~ 7.42	1.92	1.00 ~ 2.75
경영	3.40	1.00 ~ 8.42	2.52	1.42 ~ 4.58
바이오시스템	3.73	1.58 ~ 7.58	2.98	1.58 ~ 4.67
공과	3.82	1.33 ~ 7.67	3.01	1.58 ~ 5.83
예술	3.72	1.17 ~ 7.75	2.32	1.58 ~ 3.25

(3) 2017학년도

단과대학	지원자 학생부성적		합격자 학생부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3.15	1.00 ~ 6.90	2.20	1.50 ~ 3.20
이과	3.09	1.00 ~ 7.00	2.50	1.00 ~ 4.40
법과	3.20	1.00 ~ 7.50	2.27	1.20 ~ 3.40
사회과학	3.18	1.00 ~ 8.00	2.37	1.00 ~ 4.20
경찰사법	2.92	1.00 ~ 8.90	1.92	1.00 ~ 3.60
경영	3.20	1.00 ~ 7.90	2.36	1.00 ~ 3.80
바이오시스템	3.28	1.00 ~ 7.50	2.31	1.10 ~ 3.70
공과	3.40	1.00 ~ 7.40	2.56	1.00 ~ 4.80
예술	3.25	1.00 ~ 8.00	1.94	1.00 ~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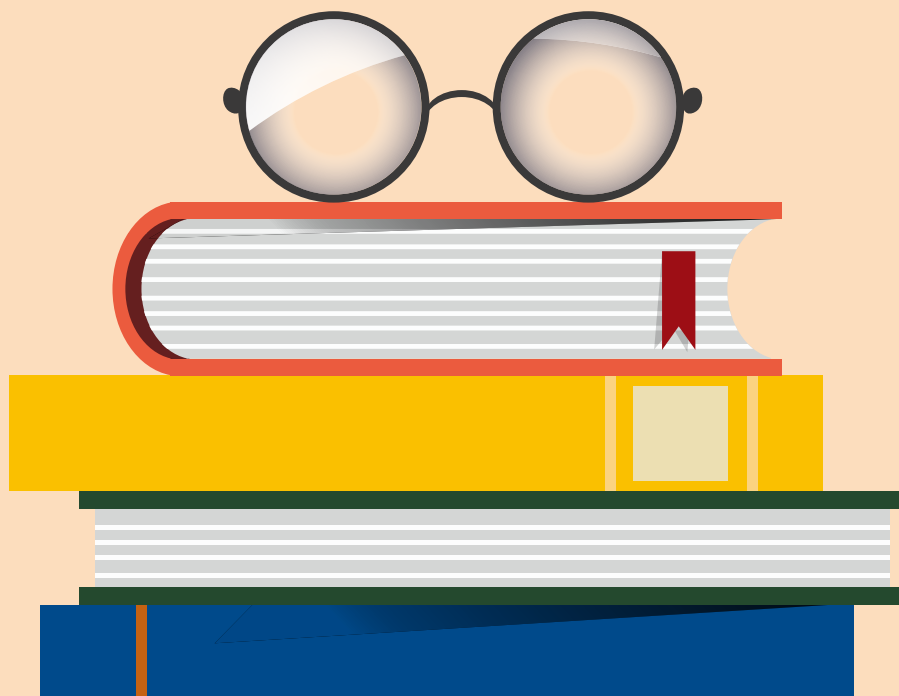
- ▶ 2016학년도와 같이 2017학년도의 경찰행정학부 합격자의 학생부 성적 평균등급이 1.92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학생부 반영과목 변경
 - 2016학년도 : 계열별 반영교과별 상위 3과목
 - 2017학년도 : 인문계열, 자연계열 관계없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기준으로 취득한 과목 중 상위 10과목만 반영



DONGGUK UNIVERSITY

2018 동국대학교
논술가이드북

2016·2017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인문계〉

2016, 2017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1) 논술 전형 특징

동국대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취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기존에는 한 개 이상의 영어지문을 출제했으나 2014학년도 이후에는 영어지문과 함께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나 내용은 배제시켜 출제하고 있다. 즉, 고교 3년간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앞으로도 동국대 논술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출제한다는 기초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 동국대 인문계열의 논술은 평이한 수준에서 난이도를 설정하였다.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의 지문을 주로 교과서나 EBS 교재 내에서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14개에 이르는 많은 지문이 제시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지문들이 다양한 사실, 주장, 사회, 자연 현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일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 인문계열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인문, 사회, 문화 등에 걸친 다양한 독서 체험을 쌓고, 요구하는 논제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출제자는 수험생이 공통화제를 파악하여 논지를 일반화시키고, 핵심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압축적으로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상반된 논거를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도 등장하는데,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이나 정형화된 답안으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응용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와 주제에 대한 이해력, 문항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력, 지식의 정도와 균형감각, 추리력 등을 수험생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동국대 논술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최근 동국대 인문계 논술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둔 통합 논술적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험생은 자신의 관심영역과 전공분야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험생이 문항 요구에 따라 여러 교과와 내용을 하나의 주제 내에서 풀어내는 응용력, 융복합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동원하여 설득력 있게 보여줄 때에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2) 논술 전형 유의사항

동국대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인문I과 인문II로 나누어 출제된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인문I 논술 문제는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자가 응시하였고 인문II 논술 문제는 문과대학, 경찰사법대학, 경영대학, 영화영상학과 지원자가 응시하였다. 인문계 논술 문제는 공통적으로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10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 분량은 1,500자 이내로 문항 2개는 250~400자, 문항 1개는 550~7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의 기출문제를 보면, 과거와 달리 도표와 그래프를 제시하는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문제 풀이가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학년도부터 시험시간이 120분에서 100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시간이 20분 줄었으므로 신속하게 제시문을 파악하고 논제를 숙지하고 문항요구에 따라 답을 써야 한다.

문제는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를 통한 제시문의 요약, 화제를 적용한 설명과 비판, 그리고 수험생의 견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유형 등이 그것이다. 3가지 유형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논점을 토대로 수험생이 정확히 추론하여 요구에 맞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다. 제시문의 요약처럼 평이한 문제는 배점을 낮게 하고 있으며 비판적 시각으로 수험생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하는 문제에 배점을 높여 평가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험생은 제시문 사이에서 적용기준과 대상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비판적 사고를 앞세우기보다 짧은 제시문에 포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논지와 핵심개념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제시문 간의 상호 핵심내용을 연결 지을 때는 그에 대한 타당하고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문제들은 단문에다 익숙한 글들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줄어든 시간 안에 지문을 해독하고 논제 요구에 맞게 견해를 정리하기 위한 수험생의 시험 적응력과 순발력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동국대 논술은 앞으로도 기존에 유지해 온 출제 패턴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항상 평이한 수준의 문제만 출제된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논술은 대학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변별력과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시문의 정확한 해독만으로 요구 논제에 답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사고력을 발휘해야 풀 수 있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심층적 논의를 요구할 때는 평이한 주장에서 나아가 함축이나 귀결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물론 논제의 맥락이나 배경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시각, 독창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평범한 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론을 제시하거나 가정이 생략된 전제까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교과영역에 대한 충실한 학습과 함께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 체험이야말로 자신만의 언어로 논제에 맞는 창의적 답안을 작성해내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용 요소 이외에 형식면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내용별로 단락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표현 의도에 맞는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철자법, 주종 관계, 문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하고 정해진 답안 분량에 맞는 문장과 단락으로 구성해야 한다.



3) 논술 문제 및 해설

●●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인문계1)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분업이란,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각기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생산 방식을 말한다. 교실을 청소할 때, 바닥을 닦는 일과 유리창을 닦는 일, 책상과 걸상을 정돈하는 일을 각 분단이 나누어 하는 것은 분업의 예가 된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 하게 되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며 일의 효율성도 올라간다. 분업은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다.

- 『고등학교 경제』

[나]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재화를 소비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에게는 필요하지도 않은 재화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모든 경제 주체는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그것을 판매한 소득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경제 주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집중시키는 것을 '특화'라고 한다. 특화는 혼자서 모든 것을 생산하여 조달하는 자급자족 방식에 비해 주어진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렇다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특화하여 생산할 것인가?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하는 영역이 많을 경우에 어떤 것을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거로 기회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즉 같은 종류의 재화를 생산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있다면, 그것을 특화해야 한다.

- 『고등학교 경제』

[다] 1914년 포드 자동차 회사는 생산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조립 라인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생산의 동시화, 부품의 표준화로 이어져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포드 자동차 회사는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이룩한 엄청난 이윤을 노동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미국이 중산층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경쟁 기업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임금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이탈이 없어지고 숙련공들이 증가하여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 『EBS 사회탐구영역 경제』

[라]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여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 소개된다. 그중에는 '장인(匠人)'이라 불릴 정도로 평생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도 배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왜 손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무엇이든 기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손으로 공들여 무언가를 만들어 내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팔리지 않거나 기계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과 같이 낮은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화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발휘하는 숙련 노동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산업이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 방식이 확산되면서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마] 산업화는 인간의 노동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 노동은 주로 농업과 간단한 수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은 제조업 분야에 대량으로 투입되었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을 매개로 한 노동관계가 형성되었다.

분업이 진전될수록 노동자들의 직무는 몇 가지의 매우 단순한 작업으로 한정된다. 노동자의 변화 없는 단조로운 생활은 정신적 용기도 상실하게 하고, 그때까지 그가 배워 온 일 외에는 어떤 작업이나 직업에서도 활기 있고 참을성 있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1936)에서 주인공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못만 조이는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매일 되풀이되는 단순 작업의 결과 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조여 버리는 정신 이상이 생겨 정신 병원으로 끌려가게 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고등학교 경제』

문제 1

[가]와 [나]를 읽고 분업과 특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가], [다], [라], [마]를 이용하여 분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2~14줄 (36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은 경제적 보상을 얻음으로써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일을 마친 뒤에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이처럼 일은 인간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매개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일을 힘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을 하는 목적이 경제적 보상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일은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 일은 전통적으로 종교 혹은 철학을 통해서 모든 사회가 늘 강조해 온 대로 오히려 찬미되고, 격려되며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가서는 안 될 귀중한 가치라고 봐야 한다. 일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은 일과 인간됨이 떼어 수 없는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 『고등학교 사회』

[나] 엄행수는 똥을 저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으나 그가 밥벌이 하는 일의 내용을 따져 보자면 지극히 향기로운 그의 몸가짐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깨끗하다.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비록 만종의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는 것이다. (……) 저 엄행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어찌 감히 벗이라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엄행수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穢德先生)'이란 칭호를 바친 것이다.

- 『고등학교 문학』

[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딱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똥똥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 번 목욕탕 속을 휘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대화에는 무심히 한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렸다.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쿠리(苦力) 말씀요.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이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제,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고등학교 문학』

[라] 조선 시대 후기의 화가 장승업의 생애와 예술은 지나간 시대의 역사에 있어서만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의 생애와 예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예술가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은 물질적 부와 세속적 권위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일상적인 행복과 나태에 빠져서도 안 된다. 투철한 예술혼이 없는 외형적 양식 추구가 과연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는지, 예술가의 인생 자체와 융합되지 않은 예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장승업 자신의 치열한 삶과 운치가 넘치는 작품 속에 담겨 있다.

- 『고등학교 생활·윤리』

문제 2

[가]에 나타난 일의 의미에 근거하여 [나], [다], [라] 에서 제시된 일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시오.
〈12~14줄 (36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在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앓은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성한 두 손으로 명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마는, 그것만으론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재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별을 먼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려하여서, 그의 세 끼의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든가 을해년의 새 무궁화가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재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 무겁디무거운 모습만이 산 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탄 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 신선도(神仙道)에도 약간 알음이 있다는 좋은 흰 수염의 조 선달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 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천 년은 된다고 하네.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거여…….”

그래 “재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 맺돌을 단단히 매어 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이 없으니 조 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가불 옳기사 옳다.”고 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에 두 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 『고등학교 문학』

※ 다음은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이다. “그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에 두 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는 구절이 뜻하는 바를 설명해 보자.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이 아래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가정한다.

A : 재곤이 사후 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 반영되어 있다.

B : 재곤이의 불행한 죽음을 ‘신선살이’라는 상징 조작을 통하여 집단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나] 목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배 계층의 사치스런 문화 활동을 자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 재화를 백성들의 복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기회 균등을 제안하였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라나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부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공자가 물질적 풍요보다 균등한 분배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분배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맹자 또한 왕도 정치사상을 통해 소외계층과 분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개입하여 백성들의 최소 생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향산(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공평한 재화의 분배를 시도함으로써 공동체의 복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양의 다양한 분배 정의관은 현대 복지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

- 『고등학교 생활·윤리』

[다] ‘나눔’이란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네 속마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한구석, 아니 내 마음 전체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서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 마음을 여는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며, 가난한 이웃과 우리의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감정적으로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끊고 죽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은 물론이요,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 재산에 대한 애착도 끊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 문학』

문제 3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나]의 세 관점 중 재곤이를 돕는 마을 사람들 태도가 어디에 가장 근접한지 설명하고, 재곤이의 실종(혹은 죽음)으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대안의 실제 효과가 없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한 다음, [다]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서술하시오.

〈20~24줄 (600~700자)〉 **[40점]**

●●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인문계1) ●●

【 문제 1 】

출제의도

오늘날 인간의 경제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생산방식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써 분업과 특화를 꼽을 수 있다. [문제1]은 분업과 특화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생산 방식과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문제1]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과 추론능력을 측정하여 대학 학업수행에 따른 기초 역량 등을 평가하고자 했으며, 고교 교육 과정 내(교과서와 EBS교재)에서 출제하였다.

문제해설

[가]는 분업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사람들은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특화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비교우위에 기초한 특화와 교환은 경제 주체들 상호 간에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다]는 분업의 장점과 기계화를 설명한 것으로, 1910년대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 의해 기계식 분업 생산 체제가 도입되면서, 분업은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생산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기계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기계화에 따른 수공업 기술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산업화의 단점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마]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 양상을 통해 분업의 단점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제시하였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분업과 특화가 최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이해하고, 개인, 기업, 국가는 비교 우위를 지닌 분야에 특화한 후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산업화에 따른 노동 및 인구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원인 및 대처방안을 탐색하는 능력도 지녀야한다. 우수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분업과 특화의 공통점, 분업과 특화의 차이점, 분업의 장점, 분업의 단점 모두를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며,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완성도가 높은 답안이어야 한다. 또한 비교우위, 교환 등의 어휘와 개념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한다.

작성요령을 반영한 답안을 예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분업과 특화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공통점이 있다. 분업은 작업자들이 동일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공정별로 일을 나누어 맡는 데 반해, 특화는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차이가 있다. 분업의 장점은 기능 숙달과 작업 요령 터득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저렴한 비숙련공을 고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분업의 단점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조로운 작업을 반복해 개인이 획일화됨으로써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분업이 어려운 직업은 계승자가 없어지기도 하며, 고도의 분업화 결과 기계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기도 한다.

【 문제 2 】

출제의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정의한 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서 [문제2] 제시문에 각각 나타난 일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서 주제에 관련된 일의 특징적인 의미를 파악해내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문제2]의 제시문에 나타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구현되는 일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이해와 표현'의 통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해설

[가]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경제적 보상을 얻음으로써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일을 마친 뒤에는 그에 따른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일의 목적이 경제적 보상에만 치중될 경우, 즉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일은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사회과의 '합리적 선택과 삶' 단원 중 '일과 직업' 부분에서 발췌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논술시험 응시자에게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출제되었다.

[나]는 박지원의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에서 발췌한 것이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선굴자(蟬橘子)에게 예덕선생이라는 벗이 있었다. 그가 바로 종본탑(宗本塔) 동편에 살면서 똥을 저 나르는 역부의 우두머리 엄행수(嚴行首)이다. 선굴자의 제자 자목은 그의 스승이 사대부와 교유하지 않고 비천한 엄행수를 벗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의 뜻을 표시한다. 이에 대해서 선굴자가 제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소설로, 똥을 저 나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엄행수'라는 인물을 통하여 무위도식하면서 허욕에 찬 양반과 관리들의 위선적 생활을 비판하였다. [나] 에서 일의 의미는 똥을 치우는 고된 일을 함으로써 "밥을 먹고 있으니"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보상을 통한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 기능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일의 내용을 따져 보자면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고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에서 나타나듯이 누군가는 이웃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을 하는 사회적 공헌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의 자아실현적 특성이나 일을 통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측면에서의 일의 의미를 충족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다.

[다]는 염상섭의 <만세전>에서 발췌하였다. 전체 줄거리는 조선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겨울,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이인화)'는 서울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한다. '나'는 귀국하는 배 안의 목욕탕에서 조선의 노무자를 경멸하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족적 울분을 느끼는데, 이런 상황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하는 동안 계속된다. 발췌한 부분은 '나'가 일본 하관(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 안에서 겪은 일을 담고 있다. 제시문에서 나타난 직업은 순진한 조선 사람을 속여서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팔아버리는 "협잡배의 술중"과 같은 일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멸하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본도 노동도 하지 않고 쉽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경멸을 받게 되는 직업이 나타나 있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임이 드러난다.

[라]는 생활과 윤리 고등학교 교과서 중 '문화와 윤리' 부분에서 발췌하였다. 교과서에 따르면 예술의 상업화를 경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술의 상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미적 가치의 추구라는 본래 목적은 경시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나 작품 고유의 가치가 아닌 상업성만을 추구하며 그 결과 대중의 감각적인 취향만 반영한 작품이 생산됨을 경계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조선 시대 후기의 화가 장승업의 생애와 예술은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성과 그 시대의 사회와 역사를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나타난 대로 예술가는 치열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일을 동일시하는 자아실현 성격이 강한 직업 및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직업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부와 세속적 권위에는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 또는 명예추구의 특성이 강조되지는 않고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가]에서 제시된 일의 세 가지 측면의 의미, 즉 경제적 보상을 얻음으로써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측면, 일과 인간됨의 일치를 통한 자아실현적 측면,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이 제시되었다. [가]에서 제시된 일의 세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나], [다], [라]에서 나타난 일의 양태를 이해하고 [가]에서 드러난 일의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측면이 부각되고 어떤 측면이 드러나지 않는지를 분석하여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서술 능력이 특정되어야 한다.

작성요령에 따라서 답안을 예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에서 일의 의미는 경제적 보상을 통한 물질적 욕구 충족, 일을 통해 얻어진 성취감과 자아(인간됨)의 실현, 사회 공헌의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나]는 뚝을 치우는 일로 더럽고 험하지만 개인에게는 경제적 보상과 함께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곳곳이 수행하는 사회 공헌의 의미가 드러난다. 다만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는 순박한 조선노동자를 지옥 같은 일본 공장에 팔아넘기는 일종의 사기다. 경제적 보상은 충분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된다. [라]는 다른 제시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일을 통한 자아의 실현과 예술을 통한 영속적 가치의 표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공헌의 측면이 두드러진다.

【 문제 3 】

출제의도

[문제3]은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학습 활동 평가이다. 문학(시), 생활·윤리, 문학(수필) 등에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활동을 평가한다. 세부 평가 요소는 제시문 이해 능력, 비판적 읽기 능력,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쓰기 능력 등이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이면에 과연 진정한 배려가 있었는지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새로운 대안 제시는 정책적 대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개인 개인의 진정한 배려심의 촉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활용하도록 한다.

문제해설

제시문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어과의 <문학> 과목 내의 시와 수필, 그리고 도덕과의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의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에서 발췌하였다. 서정주의 시 <신선 재곤이>는 앓은뱅이 재곤이의 삶을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의 배려를 다룬다. 그들은 재곤이가 살지 못하면 자신들이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재곤이의 의식주를 도와준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던 재곤이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다. 마을 사람들은 천벌을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지내는데 조 선달 영감이 '재곤이가 하늘에 신선이 되어 날아갔으니 걱정말라'고 대답하면서 안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교과서 학습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전통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지만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것이 재곤이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배려보다는 집단의 안녕이 더 중요하게 읽힐 수도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 이는 넓게 보면, 분배의 정의와 관련되는 문제이며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다루는 '동양에서의 분배적 정의' 설명과 관련이 있다. 목자, 공자, 맹자의 분배 정의론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라는 요구는 사회적 약자 재곤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의 속성을 파악하는 역량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 설명 상으로 보면 공자나 맹자의 분배 정의 개념이 여기에 어울린다. 두 개념 중에서 골라 각각의 논리에 따라 적용하면 무방하다. 그러나 정책적 대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시문 [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수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배려가 그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 과정임을 역설한다. 주체와 대상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절대평등의 마음, 자기 집착을 벗어나는 마음의 중요성이야말로 제도적 보장이나 정책적 대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재곤이의 실종 혹은 죽음'은 교과서 안에서는 그 원인이 드러나지 않지만 진정한 소통이 부재했다는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논지와 연결될 수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나]의 세 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논리를 뒷받침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대안으로도 재곤이의 불행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다]의 논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목자, 공자, 맹자의 분배 정의 모형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목자보다는 공자, 맹자가 적절하다. 공자는 공자의 논리를, 맹자는 맹자의 논리를 따르면 무방하다. 이런 정책 대안으로도 재곤이의 불행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기술하는 게 관건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재곤이에게 '마음을 열고'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벌을 면하기 위해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해줌으로써 진정한 배려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재곤이의 실종 이후로도 '재곤이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갔다'는 믿음에 의지해서 집단 불안심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 '말의 최면' '언어에 의한 상징 조작' 등의 개념이 적용되면 매우 뛰어난 비판 능력으로 평가한다.

[다]를 활용한 새로운 대안 제시는 정책적 배려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문제 해결방안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개개인의 '열린 마음'에 있다는 관점이다. 종교 지도자인 추기경의 말씀은 그 대안이 바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 절대평등의 가치관과 자기 집착을 버리는 '비움'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질문에 따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재곤이의 불행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재곤이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나 마을 단위에서 최소생활 기반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외 계층에 향산(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맹자의 입장이 적절하다. [가]에서 마을 사람들은 재곤이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어느 날 재곤이가 실종되고 만다. 마을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삶의 미덕'이 훼손된 데 대해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던 중 조 선달이 '재곤이가 하늘로 신선살이 하러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는 재곤이의 불행을 직시하지 않고 '말의 최면'을 통하여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집단 이기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재곤이의 실종 혹은 죽음은 제도적 보장이 부실한 데서 기인하거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배려와 소통의 부재 때문일 수 있다. 진정한 나눔이 그래서 필요하다. 정책적 대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는 제시하고 있다. 재곤이를 배려하기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자기 주체에 대한 집착을 끊고 나를 비워야 하며 바라보는 대상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절대평등의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자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인문계II)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빈곤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빈곤에 처한 개인은 영양 불균형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심각한 질병과 사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또 빈곤이 장기화 될수록 교육 기회의 상실 등으로 이어지면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어려워지고 결국 부모의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 혹은 가구의 빈곤 여부를 규정할 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의 평균 소득 혹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그 이하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의 빈곤선 수준은 전체 소득 분포 상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수록 그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절대적 빈곤의 문제보다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며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진다.

〈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과 소득 불평등 지표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대 빈곤율 (%)	14.0	14.1	14.3	14.1	14.2
소득 5분위 배율	7.74	7.86	7.51	7.60	8.08

〈자료〉 통계청, 'KOSIS', 2015

〈참조〉 소득 5분위 배율: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 『고등학교 경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인간은 누구나 부와 권력과 명예 등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와 권력과 명예 등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는 이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정 나눠 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사회의 희소가치라고 한다. 사회계층이란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불평등을 말하며, 이것은 바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왜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사회구성원은 그러한 불평등한 분배를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사회학자 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렌스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한다. 먼저 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고 전제한다. 당연히 희소가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간의 행동규범이나 가치는 사회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형성되면 인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가정한다. 렌스키는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도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한다. 모든 인간 조직은 불완전한 체계로, 사회구성원은 각자 추구하려는 목표에 따라 다른 구성원과 협동과 갈등을 한다는 것이다.

렌스키는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두 가지 분배의 법칙을 제시했다. 제1분배의 법칙은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범위 안에서 자원을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즉, 타인의 생산 활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그들이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을 나누어 줄 것이라 했다. 제2분배의 법칙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 이상의 잉여 자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경쟁과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능력 때문이다. 이것을 렌스키는 권력이라고 보았다. 즉, 잉여 자원의 축적은 권력의 향유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했다.

- 『EBS 수능특강 국어』

문제 1

[가]에 나타난 경제지표의 추이(推移)가 [나]에 제시된 렌스키의 주장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9~14줄 (250~400자)〉 [2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인류의 삶을 향상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한 언론가, 학자, 경제인들의 대답은 다양하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1992년 일본의 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는다. 아시아의 한 도시에 위치한 공장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최고급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취재 후 돌아오는 길에 신문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오랜 갈등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는 생각에 잠긴다.

프리드먼은 첨단 기술의 발달,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가족, 민족, 국가, 종교와 같은 전통적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를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렉서스는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변영의 시대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올리브 나무는 과거와 전통의 상징이다. 세계의 한편에서는 렉서스 자동차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과 오래된 가치 및 전통은 때로 긴장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리드먼은 궁극적으로 렉서스, 즉 세계화가 필연적으로 주도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더 좋은 렉서스를 만드는 것’, 즉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하여 부가가치가 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거듭하는 것으로 본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바닥이 날 때까지 파면 고갈된다. 만약 문화를 과잉 개발하고 낭비하면 시장은 속담처럼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과 같은 것이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인간 경험의 풍부한 문화 다양성을 전부 단계적 이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개발하기만 하고 재생산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문화 생산의 원료가 되는 인간 경험의 넓은 저수지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술의 위기』의 저자 요스트 스미르스는 세계화, 자유 무역의 보편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예술이 처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그는 문화, 특히 예술을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 논리에 의한 문화의 통제는 문화적 획일화를 가져와 지역문화를 소멸시키고, 개인의 창의성 발휘 기회를 박탈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행복 추구권과 문화적 기본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의 생산, 배급, 마케팅, 분배 전반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영화 ‘부시먼’(1980)은 우리가 사물을 실제로 어떻게 만나는지에 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부시먼 마을에 어느 날 백인 비행기 조종사가 마시고 버린 빈 콜라병 하나가 떨어진다. 부시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이 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신에게 돌려주기 위해 콜라병을 하늘을 향해 던진다. 하지만 거룩한 신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결국 부시먼들이 콜라병을 소유하게 된다. 콜라병은 부시먼들에게 그야말로 생면부지의 물건이다.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부시먼들에게 익숙한 사물의 질서로부터 비껴나 있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콜라병을 처음 마주했을 때 부시먼들의 반응은 실은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를 마주할 때 우리의 반응과 다르지 않다. 사물을 이해하는 인식체계는 특정한 문화나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부시먼들에게 콜라병이 생면부지의 물건으로 다가온 것은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인식체계와 문화적인 토양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 우리보다 미개하거나 ‘야만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부시먼들은 콜라병을 땅에 굴리거나 두드려 보고 병 주둥이에 눈을 대거나 입으로 불어도 보면서 여러 궁리를 한다. 쓰임새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궁리 끝에 부시먼들은 콜라병 주둥이로는 가죽에 무늬를 찍을 수 있고, 병 바닥으로는 곡식을 뿜을 수 있으며, 사냥할 때 쓰는 돌을 날카롭게 가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콜라병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분명 다르지만 자신들의 삶에 유용한 쓰임새를 찾아낸 것이다. (……)

부시먼이 생면부지의 콜라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며 원래 용도와는 다르지만 다양한 쓰임새를 알아낸 것처럼 사물의 가치는 사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다. (……) 제작한 사람의 의도대로 콜라를 마시고 병은 쓸모없다며 버리는 사람들보다 부시먼들이 더 창조적으로 콜라병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은 창조의 또 다른 이름이다.

- 『고등학교 국어 I』

[라] 각 지방의 방언이 의사소통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계의 국가들이 언어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은 왜일까? 혹시 언어의 문제는 통치 차원 이외의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 방언이나 언어는 한 민족의 역사와 같이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수십 만 년 동안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해온 문화적 전통이다. 다니엘 네틀(생물 심리학자)과 수잔 로메인(진화 사회학자)은 다양한 언어들의 사멸 위기를 경고하면서 방언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역설한다.

태평양 팔라우 섬의 어부들은 수백 종의 물고기 이름과 서식지, 어로 관습, 어로 기술 등과 더불어 전 세계의 과학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의 몇 곱절이나 되는 어종들의 음력 산란주기를 알고 있다고 한다. 북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누이트 족은 어떤 종류의 얼음과 눈이 사람과 개, 또는 카약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얼음과 눈의 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붙였다. 또한 필리핀의 민도로 섬에 1만 2천 명 정도가 모여 사는 하우누 족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천 500종의 식물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 중 1천 종 이상의 식물을 야생에서 채취하고 약 430종의 식물을 재배한다. 토지에 대해서도 10종의 기본 토질과 30종의 이중 토질을 구분하며 토양의 굳은 정도에 따라 네 가지의 다른 용어를 쓴다. 이들은 서로 다른 토질을 아홉 가지의 색깔로 구별하며, 땅의 지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할 뿐 아니라 땅의 경사진 정도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

해양학자들은 팔라우 어부들의 지식을 통해 해양 자원을 관리하는 지식을 배워야 하고, 지질학자는 이누이트 족으로부터 북극의 기후와 빙하의 구조에 대해 배워야 한다. 또한 동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면 하우누 족의 지식을 배워야 할 것이다. 토착민의 이러한 지식 중 상당 부분은 수천 년 동안 이들의 언어 속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왔으며 이들의 언어가 사라짐과 동시에 이러한 지식도 잊혀 가고 있다. 언어 속에 담긴 독특한 문화적 요소의 상당 부분이 언어의 사멸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보면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방언 속에 담겨 있는 인류의 지혜도 값진 것이다. 언어의 다양성은 곧 문화의 다양성이다. 다양성이 문화의 역동성임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 『고등학교 국어 I』

문제 2

[가]와 [나]의 두 견해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서술하시오.

〈9~14줄 (250~400자)〉 [25점]

문제 3

[다]와 [라]에 나타난 문화의 특징과 가치를 논거로 활용하여 [나]의 입장에서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9~24줄 (550~700자)〉 [50점]

●●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인문계II) ●●

【 문제 1 】

출제의도

우리나라 경제환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회적 특성을 경제지표의 추이를 분석하여 찾아내고, 이를 기준에 형성된 여러 사회학적 이론들 중 하나와 결부시켜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개선 방안의 도출에 활용하는 분석력, 논리적 이해력, 그리고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에서 빈곤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절대적 빈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 많은 국가에서 공적 빈곤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하는 것으로, 주로 특정 사회의 평균 혹은 중간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분위 배율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로 개인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집단으로 묶었을 때, 집단별 평균소득을 서로 비교한 값이다. 소득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소득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 배율은 감소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제시된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즉 우리사회의 풍요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환경이 사회 활동을 하며 만족감을 갖는데 필요한 생활 조건이나 환경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또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제시문 [나]에는 ‘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지속되는가?’에 대한 사회학자 렌스키의 주장이 실려 있다. 렌스키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전제로 두 가지 분배 법칙을 제시한다.

가정1.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

가정2. 인간의 행동규범이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정3. 모든 인간 조직은 불완전한 체계로, 사회구성원은 각자 추구하려는 목표에 따라 다른 구성원과 협동과 갈등을 한다.

제1분배법칙: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범위 안에서 자원을 나눠 갖는다. 즉, 타인의 생산 활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그들이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을 나누어 줄 것이다.

제2분배법칙: 생존에 필요한 자원 이상의 잉여 자원 획득을 위해 갈등이 일어난다. 경쟁과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능력, 즉 권력 때문이다. 따라서 잉여자원의 축적은 권력의 정도에 따른다.

정리하면,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구성원과 협조적 공유를 한다. 하지만 잉여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욕망에 따른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야기하고 이는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잉여 자원의 축적은 권력의 향유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권력을 지닌 계층이 사회의 잉여 자원을 분배하며, 권력의 향유 정도에 따라 잉여 자원의 축적이 결정되기에, 사회적 불평등은 잉여 자원이 권력에 의해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구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불평등한 분배구조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인간에게는 한번 결정된 체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문제1]은 우리나라 경제환경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회적 특성을 경제지표의 추이를 분석하여 찾아내고, 이를 기존의 사회학적 이론과 결부시켜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기에 분석력, 논리적 이해력 그리고 적용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우수답안에 속하는 답안이라면 렌스키의 주장을 이해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상대적 빈곤과 소득불평등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적절히 인식한 경우이다.

작성지침을 반영한 우수답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렌스키는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구성원과 공유하지만, 잉여자원 분배에 있어서는 집단의 능력(권력)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야기하기에, 사회의 불평등 현상이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힘없는 계층의 사람들은 최소생계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잉여 소득이 집단권력에 의해 분배되는 구조가 형성·유지되는 한 소득 불평등 현상은 지속되어,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잉여 소득의 축적이 집단권력의 향유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집단권력에 의한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 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에서의 탈출이 쉽지 않다. 이것이 소득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이다.

【 문제 2 】

출제의도

- (1)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의미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점으로 통합하여 이를 여러 가지 문제해결 상황에 적용하는 독서 능력을 확인한다.
- (2) 세계화에 대한 찬반의 상반된 입장을 지닌 두 개의 제시문을 읽고 사회·문화적 문제와 관련된 글의 논점을 파악하는 사고력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본적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세계화와 관련되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세계화와 전통적 가치의 충돌에 대한 두 글의 입장을 파악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세계화 논리와 그에 반대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그 다양성을 문화 재생산의 기초로 보는 입장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우선 두 글의 요지를 잘 파악하는 독서 능력이 요구되며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견해에 대해 생각해 본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 다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 국제법에 관한 내용, 윤리 등의 과목에서 배운 지식이 일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주어진 제시문의 요지를 잘 정리하고 세계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 다양성과 문화 획일성이 왜 세계화와 관련되는지도 파악해야하며, 논리적 전개 및 문장력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우수답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세계화와 전통적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를 표현한다. 세계화의 흐름과 전통적 가치의 충돌 과정에서 그는 세계화가 주도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의 과제를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하여 부가가치가 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리프킨과 스미르스는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며 획일적 세계화가 이런 다양성을 고갈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리프킨은 생물 다양성처럼 문화 다양성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원천이라고 하여 문화 과잉 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프리드먼이 세계화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면, 리프킨과 스미르스는 세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문화 다양성의 획일화라는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 문제 3 】

출제의도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의미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점으로 통합하여 이를 여러 가지 문제해결 상황에 적용하는 독서 능력을 확인한다. 세계화에 대한 찬반의 상이한 입장을 지닌 두 개의 제시문 [가]와 [나]를, 실제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다른 두 개의 제시문 [다]와 [라]와 연관시켜 읽음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논리적 사유능력을 평가한다. 다양한 사례 속에서 특정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논증의 근거를 찾고 자신의 논리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해설

제시문 [다]와 [라]를 통해 문화적 상대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한다. 사물에 대한 인식체계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문화를 창출해 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화의 창조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제시문 [다]에서 파악한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가치가 결국 문화적 역동성의 기반임을 제시문 [라]에서 읽어낸다. 이러한 요지 파악을 바탕으로 문화의 특징이 상대성, 다양성에 있고 이 두 특징이 각각 문화적 창조성과 역동성이라는 가치를 산출한다는 전제에서 문화 다양성이 세계화 혹은 경제 논리 중심의 문화적 획일성과 어떻게 충돌하며 문화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가를 생각한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주어진 제시문 [다]와 [라]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문화의 특징과 가치를 잘 이해한 뒤 세계화의 문제점을 제시문 [나]에서 비판하는 이유를 파악하여야 하며, 문화 상대성과 문화 다양성, 그리고 문화 창조성, 문화 역동성의 관계, 이러한 특징과 가치가 어떤 점에서 중요인지에 대해 제시문을 잘 요약하면서 서술하여야 한다.

작성요령에 따른 우수답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물을 이해하는 인식체계는 특정한 문화나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영화 ‘부시먼’은 우리와 다른 인식체계와 문화적 토양 속에서 살아가는 ‘부시먼’들이 미개하거나 야만적이지 않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인식체계와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시먼이 콜라병을 가지고 원래 용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콜라를 마시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백인들보다 더 창조적인 것이다. 또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는 그 속에 다양한 지식과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언어의 다양성은 곧 문화의 다양성이고, 그것이 문화의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은 문화 창조성, 문화의 역동성이라는 가치와 직결된다.

리프킨이 생물 다양성처럼 문화 다양성이 인간 경험의 풍부한 저수지라고 표현한 것은,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세계화가 문화를 과잉 개발할 경우, 언젠가는 프리드먼이 말한 부가가치가 큰 기술 개발의 원천 자체가 고갈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것이다. ‘부시먼’의 문화 창조성이나 ‘하우누 족’ ‘이누이트 족’의 언어가 지닌 문화적 역동성이 경제 중심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나면, 프리드먼이 말한 ‘더 좋은 렉서스를 만드는 것’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올리브 나무’를 지키는 일은 문화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역으로 문화의 창조성과 역동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인문계I)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본질에 관하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념이다. 그것은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회 구성원에 의해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이 실제 어떻게 다른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관념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자는 시집을 잘 가려고 대학에 간다.”라거나 “남자는 아내가 자기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담을 느낀다.”라는 인식이나 태도 등이다. 성 역할 고정 관념은 사회 구성원에게 너무나 익숙하여, 사람들은 특정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의 성 때문이라고 종종 단정짓곤 한다. 이처럼 성 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 및 생각을 지배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성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행동하므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주체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성별에 따라서도 언어의 변이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변이는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심리적·문화적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이다. 사회 언어학에서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남성	여성
과묵성, 경쟁적 대화	다변성, 협동적 대화
동시 발화나 말 가로채기가 많다	동시 발화나 말 가로채기가 적다
맞장구치기나 찬사가 적다	맞장구치기나 찬사가 많다
단정 어법, 직접 명령이 많다	애매 어법, 간접 명령, 청유법이 많다
정중법을 지향한다	공손법을 지향한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로 하여,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11~12줄 (330~36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비둘기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나 비둘기 개체군에서 매파형 돌연변이 개체가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매파형 돌연변이 개체가 비둘기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선 유리하다. 그러나 유리한 매파의 유전자는 급속히 퍼져 매파끼리의 싸움이 시작됨으로써 돌연변이 개체도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비둘기파의 공동 행위에 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우리는 ‘비둘기파의 공동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장기적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해 할 능력이 있으며, 이 공동 행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서로 논의할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서 우리를 낳아 준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우리를 교화한 이기적 밈*에게도 반항할 힘이 있다. 순수하고 사욕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안주할 여지도 없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가르칠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 밈(meme): 문화적 진화의 단위로,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복제된다. 밈은 좁게는 한 사회의 유행이나 문화 전승을 가능하게 하고, 넓게는 인류의 다양하면서도 매우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 도킨스(Dawkins, R.), “이기적 유전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퍼트남(Robert D. Putnam, 1941~)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의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 자본은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며 정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다] 1928년 영국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19세기까지 오랫동안 격렬하게 전개되어 온 참정권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1919년에는 미국이 여성의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여성 참정권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는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활발해진 여성의 경제·사회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총력전으로 진행된 전쟁에 여성들도 참여하였는데, 이 여성들을 향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중략)

제1차 세계 대전 후 공화정이 뿌리내리고 민주주의 제도가 확대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더욱 힘을 얻었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과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남성들과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였다.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살아 있는 세계사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라] 물방울 하나는 강물을 만들지 못하지만, 그 많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노력은 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모여 결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 개인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시민 단체나 비정부기구(NGO)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는 많다. (중략)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의미 있는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쁜 법률이나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을 올리거나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건설적인 의견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카페나 블로그를 만들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고등학교 도덕』

[마]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적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 데 합의(계약)하는 것이다. (중략) 만일 정부가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에 의해 타도할 수 있다.

- 로크, “시민 정부론”, 고등학교 『세계사』

[바]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며 동물적이다. 또한,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무정부와 공포,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고등학교 세계사』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어를 찾아 맥락상의 공통적인 주장을 기술하시오.

〈8~9줄 (240~270)〉 [30점]

문제 3

제시문 [다], [라], [마], [바]를 시대 순에 따라 배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요약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시민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22~23줄 (660~690)〉 [40점]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인문계1) ●●

【 문제 1 】

출제의도

[문제1]의 주제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이다. 제시문은 『사회·문화』 교과에서 나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개념, 그리고 『독서와 문법』 교과에 나오는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즉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이 나타나는 내용([표])을 발췌했다. 문제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남녀 대화의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향후 남녀 대화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을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문으로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주제로 삼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여 개인의 행동과 태도 및 생각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맞추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는 성별에 따른 언어변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과 아울러 언어 변이적 특성을 이분법적으로 정리한 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임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개념 요약형과 사회현상 분석형의 문제이므로 제시문의 주제가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임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서술 속에는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사회언어학,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 특성, 양성평등 등의 핵심 용어,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우수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시문 [나]와의 연관성을 서술해야 하며 3개 이상의 변화 요인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또한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작성요령을 반영한 답안을 예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인 성 역할의 내용은 사회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 차이가 때때로 차별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고정관념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여 개인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사고를 지배한다. (표)에서 제시된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화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언어의 변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개선, ‘남녀평등고용법’ 등과 같은 법체계 정립, 보육 등과 관련한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양성평등 가치 체계의 정립을 통한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들의 주체적인 노력 등에 의한 남녀 관계를 둘러싼 사회 심리적·문화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남녀평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 문제 2 】

출제의도

[문제2]의 제시문은 모두 고등학교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에서 발췌하였다.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사회』, 『도덕』, 『세계사』에서 수록된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에서 제시문과 질문을 구성했다. 그 내용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기심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2]의 제시문은 이타주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글에 속한다. 그 두 가지 글에 나타난 공통적 주장을 찾는 독해력과 그 공통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며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만이 자기 완결성을 찾아가며 타자와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기심을 이타적 측면으로 조정하여 제도로 승화할 수 있는 예외적 종(種)이라고 주장함을 내용에서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나]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한 지문이다. 여기서 핵심개념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내용은 이익집단과 시민사회가 사회 자본에 속하며, 이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서술하는 단순 설명형, 상황 해결형의 문제로 핵심어와 제시문 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영역, 핵심용어에 해당되는 것을 나열하면 이기주의, 이타주의, 시민사회 역할, 사회적인 성차 극복과 정치 참여, 국가의 지원 등이 있다. 우수답안에 속하는 답안이라면 제시문 [가]의 핵심어로 “공동행위”, “논의할 능력”, “이타주의”, “육성”을 지적하고 제시문 [나]의 핵심어로 “자발적”, “결사체”, “신뢰”, “협조”, “참여”, “시민사회”, “민주주의”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공통의 핵심어로 “참여”, “연대”, “협조”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제시하고, 동시에 맥락상의 공통된 주장으로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여”, “연대”, “협조” 등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 혹은 집단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적시해야 한다. 이외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적절한 어휘를 동원해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요령에 따라서 답안을 예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어(핵심어)들은 “공동행위”, “논의할 능력”, “이타주의”, “육성”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자발적”, “결사체”, “신뢰”, “협조”, “참여”, “시민사회”,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이 두 제시문에 공통인 주제를 유추해 보면 “참여”, “연대”, “협조”와 같은 개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제시문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여”, “연대”, “협조”를 통해 개인의 이기심 혹은 집단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문제 3 】

출제의도

[문제3]은 두 가지를 묻고 있다. 하나는 역사상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사상을 시대 순에 관계없이 제시하고, 그것을 시대 순에 맞게 정리하는 단순한 문제이다. 다음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실례를 제시하면서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응용 문제이다.

문제해설

제시문 [다]는 제시문 [나]와 마찬가지로,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시문의 주제는 사회적 성(性)차 극복과 정치 참여라 할 수 있다. 내용은 1920년대를 전후로 하여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폐쇄적 투표권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여성들이 남성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성(性) 이기주의에 대항한 결과, 여성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한 결과로서 투표권이 확대되어갔음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 [라]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과 연관된 지문으로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이들에 대한 차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제시되었다. 제시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며 현재적 관점에서 다수의 지성들의 노력을 통해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 사회와 조직의 노력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민주주의가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대안적 민주주의의 한 보기가 될 수가 있다.

제시문 [마]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해서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 분석하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사회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문이다. 제시문 [마]의 주제는 국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개된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시민혁명 시대의 가치를 주장한 이론으로서 영국과 미국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상이다. 과거 절대주의적 시대에 새롭게 등장해 온 시민 계층을 중심으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찾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론이다.

제시문 [바] 또한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 분석하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사회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제시하고 있다. 지문의 주제는 절대주의 국가의 기원이며 절대주의 시대에 계약을 통한 왕권을 옹호하는 철학적인 내용으로 요약된다. '리바이어던'은 그 자체가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분권적 상황 하에서의 쟁탈과 투쟁에서 다시 공동체와 국가의 안전판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이론화한 글이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되어 있어 세심하게 검토한 후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먼저 질문에 맞추어 제시문의 시대 순에 따른 배열,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요약과 함께 제시문 [라]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의 구체적 사례제시, 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의 긍정적 영향 등에 대해 별도로 서술해야 한다. 우수한 답안은 4가지 질문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시대 순에 따라 제시문 [바]→[마]→[다]→[라]로 배열을 지적하고, 각 제시문에 대해 제시문 [바]는 “홉스의 절대군주의 역할의 필요성”, 제시문 [마]는 “로크의 사회계약에 의한 시민 정부의 필요성과 인간 기본권론”, 제시문 [다]는 “여성까지 참정권 확대”, 제시문 [라]는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 등 시민의 다양한 자발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온·오프라인 상의 시민운동 사례를 적합하게 제시하고 그 시민운동이 참여, 절차, 공정성과 사회정의 실현 등에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현대의 시민 단체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하고, 그 다음 시민 단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이 정확하게 구사되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도 요구된다.

질문에 따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시문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바], [마], [다], [라]로 나열할 수 있다. [바]는 절대주의와 그 이후 자유주의적 이론의 발전에 단초가 되는 글이며, [마]는 시민혁명기의 대표적인 글이다. 그리고 [다]는 선거권 투쟁 말미에 여성의 참정권 운동으로 1920년대 이후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라]는 현대 사회에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민 사회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제시문 [라]에서는 현재의 다양한 시민 사회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나] 제시문에서 퍼트남은 시민의 참여가 자발적인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 비용과 정치적 효율성도 매우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시민 단체가 생겨났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익 집단과 시민 사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다. 한 예로써,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몰입 교육의 실시를 발표했을 때를 들 수 있다. 당시 시민 단체들은 그 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정책이 가져올 사교육 문제, 정책 결정의 졸속성을 들어서 거센 비판을 제기하였다. 결국 정부는 시민 단체의 반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 학부모 연대, 전국 영어 교사 모임 등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발달된 과학 기술과 인터넷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소위 “전자 민주주의”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시민 참여의 확대로 공론의 장이 활발해진 다양한 사례가 있다.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인문계II)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치 참여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회, 정부, 법원 등과 같은 공식적 정치 참여자가 주로 정치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또한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략)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참여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는 선거나 국민투표를 들 수 있다.

- 『고등학교 사회』

[나] 시민 대다수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소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선출되거나 영향력 있는 일부 지식인 또는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제로 정부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고등학교 법과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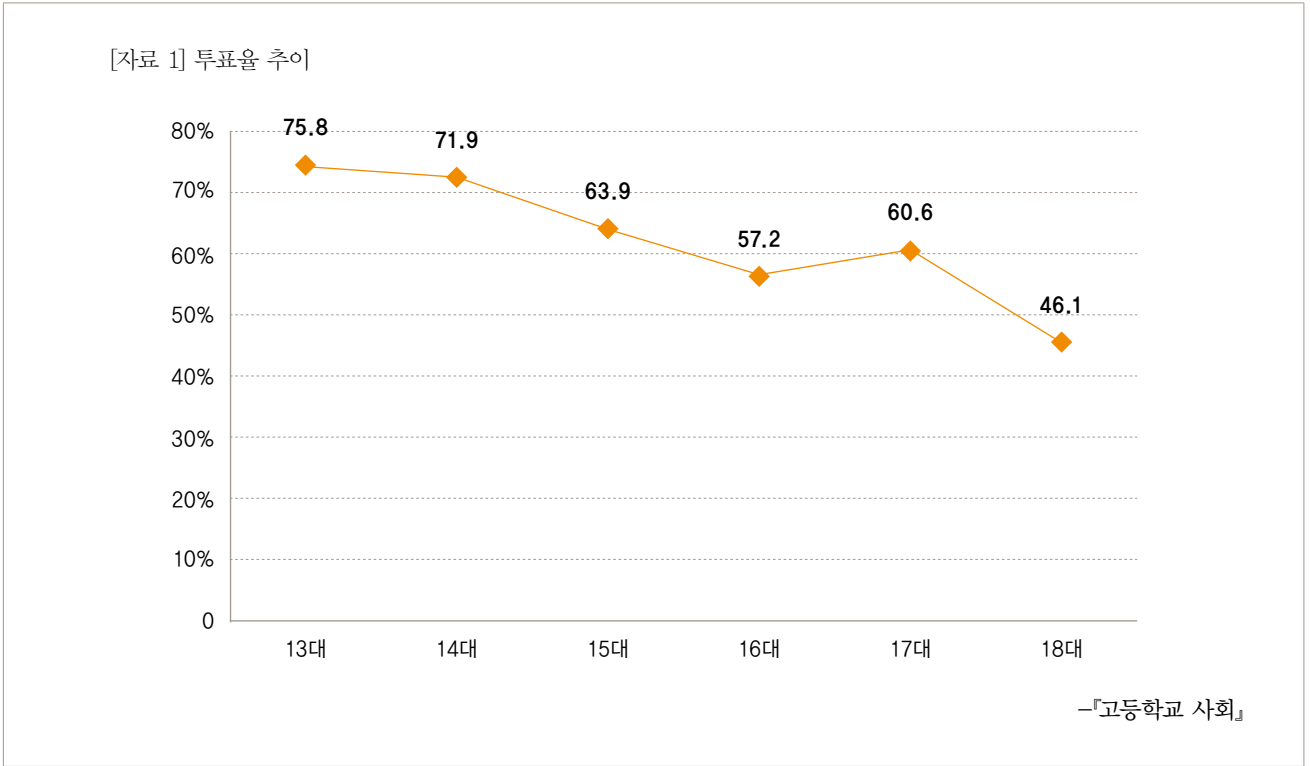
[다] 시민들이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얻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자율성을 실현하게 된다. 민주 정치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 형태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 내에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때 자율적인 주체가 된다. 또한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시민들의 요구는 정치 과정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계층이나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그들이 정치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해야 한다. 이밖에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유능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민주 정치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 『고등학교 사회』

[라] 그러나 무조건적인 참여의 확대가 항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정치 참여를 극대화 할 경우,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참여의 이유와 방법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결정해야 한다.

- 『고등학교 사회』

[마] 갑국은 2014년 제18대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 개표 결과 유권자의 투표율은 46.1%였다. 2010년의 제17대 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자료 1]은 갑국의 지난 20년 동안 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마]의 [자료 1]과 같이 갑국의 투표율 추이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제시문 [가]~[라]를 참고하여 갑국의 정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서술하시오.

〈9~11줄 (270~330자)〉 [25점]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족 형태는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과 범위를 기준으로 확대 가족과 핵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대 가족은 부부와 기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확대 가족은 보통 노동력과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고 가족 구성원의 양육과 보호에 함께 참여한다. 확대 가족은 가부장제적 질서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가족 전체의 결속과 유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달리 핵가족은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핵가족은 산업화로 가족과 일터가 분리되고 구직을 위해 가족의 이동이 잦아지는 등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핵가족은 부부가 가족 관계의 중심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핵가족이 가족 형태의 주류를 차지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가장 큰 결함은 그 비민주주의적 특성에 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 아래에서는 여성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고, 젊은이들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을 당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근본이 같다고 보는 현대인의 관점에 설 때,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 내지 가족 윤리에 포함된 비민주주의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가족에는 매우 좋은 점도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아(自我)가 개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족 전체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이다. ‘나’ 하나를 지키기에 급급한 인간상보다 ‘우리’를 위해서 작은 나를 잊을 수도 있는 인간상이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칸막이를 넘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우리’로서 고락을 같이하는 심성이 인간의 삶을 보다 값진 것으로 만들 것임에 틀림이 없다.

- 김태길, “이상적인 가족상”,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우리나라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

(단위: 천 가구,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혈연 가구 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핵가족	부부	5.4	5.0	6.4	7.8	9.3	12.6	14.8	18.0
	부부와 미혼 자녀	55.5	55.6	56.5	57.8	58.0	58.6	57.8	53.7
	한 부모와 미혼 자녀	10.6	10.1	10.0	9.7	8.7	8.6	9.4	11.0
직계 가족*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0	6.8	5.7
기타 가족	9.7	17.9	16.1	14.0	13.8	11.2	10.1	10.4	

* 직계가족: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 자녀로 구성된 가족

- 통계청, 인구 총조사, 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 결혼 및 이혼

구분	1980	1990	2000	2009(년)
조혼인율*	10.6	9.3	7.0	6.2
조이혼율**	0.6	1.0	2.5	2.5

* 조혼인율: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

** 조이혼율: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

- 통계청, 2010년,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라]의 조이혼율의 추이(推移)를 설명하시오.
(9~11줄 (270~33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온 수많은 역사화들이 있습니다.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중략)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중략)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신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약탈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관용은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 놓았습니다. 동과 서, 고(古)와 금(今)이 동시에 숨 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아·그리스·페르시아·로마·비잔틴·오스만튀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에페수스·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그리스·로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 프레스코: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의 하나. 새로 석회를 바른 벽에, 그것이 채 마르기 전에 수채로 그림.

- 신영복, “더불어숲”, 『고등학교 문학 II』

[나]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차디찬 밤이다//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러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나는 가슴이 짜릿한다/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찬 밤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짝기도** 전이다/어디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내 손에 오르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올고붙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어니젠가: 언젠가의 평안도 방언. 여기서서는 '어느 사이엔가'라는 뜻.

** 짝기도: 짝다=샤다,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

*** 가제: '갓', '방금'의 평안도 방언.

- 백석, 수라(修羅), 『고등학교 국어(하)』

[다] 미래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를 위한 문화도 설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술의 발달에 주목한다. 누구나 손쉽게 문화의 창조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덕분에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각자의 입맛에 맞는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를 직접 창조하고 전파하는 일도 점차 수월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자본이 없어도 자기만의 방송국을 만들고 전 세계로 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개인의 개성은 더욱 존중될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문화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상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문화가 다양해지는 것은 아니다. 큰 자본 없이도 방송국을 만들 수도 있고, 영화도 제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경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기업에서 제작된 영화는 우리의 영화를 밀어내고 있으며, 적은 자본으로 제작된 독립 영화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 선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기업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

문제 3

다음은 각 제시문의 학습 목표다. 이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다. •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공동체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새롭게 느끼거나 알게 된 점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다. •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① 제시문 이해에 필요한 공통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제목을 붙인 다음, ② 제시문의 개별적 특성들을 상호 비교하고, ③ 각 제시문의 특성을 반영한 공통 학습 목표 도달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20~23줄 (600~690자)〉 [45점]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인문계II) ●●

【 문제 1 】

출제의도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의 참여 주체는 시민이다. 특히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 시민 개개인이 대표자 선출과 중요 정책 결정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본 문제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해력과 추론능력 등 대학학업수행을 위한 기초역량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였다.

문제해설

이 문항은 사회, 법과 정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기능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서술형의 문제로 정치과정, 정치참여와 관련한 내용의 제시문들에 해당한다.

제시문 [가]의 주제는 정치 참여의 개념과 주체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 참여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찬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와 비교하여 정치 참여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정치 참여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민이다.

제시문 [나]의 주제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이며 내용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권력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시문 [다]의 주제는 정치 참여의 기능이며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을 실현시킬 수 있고, 시민들의 여론을 정치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라]의 주제는 바람직한 정치 참여이며 바람직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

제시문 [마]의 주제는 갑국의 투표율 변화라 할 수 있고 갑국의 의원 선거 투표율은 지난 20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우수한 답안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면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여 완결성을 갖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 중 다섯 가지 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 투표율이 낮은 경우 당선인은 유권자로부터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 (2)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책임 정치) 권력을 통제할 기능이 하락할 것이다.
- (3)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 (4)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권 의식(혹은 정치적 자율성)의 실현도 낮아질 것이다.
- (5) 투표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시민의 민주 정치 수준이 하락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제시문 [나]와 [다]로부터 (1), (2), (3), (4)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제시문 (라)로부터 (5)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5)의 경우 민주 정치의 발전 정도는 시민의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민주적 생활양식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작성지침을 반영한 우수답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경우라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으면 대표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은 경우 당선인은 유권자로부터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권력을 통제할 기능도 하락할 것이며,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밖에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 의식(정치적 자율성)의 실현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시민의 민주 정치 수준이 하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 문제 2 】

출제의도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도표를 이해하고 여기서 드러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가족 형태와 이혼율의 변화를 소재로 삼았으며, 각 가족 형태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하는 제시문을 함께 제공한다. 제시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도표 해석에 적용하는 능력, 제시된 형태별 특징을 응용하여 합리적 추론을 전개하는 능력이 요청되므로 이해력, 분석력, 추리력, 응용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행학습(사교육)이 불필요하도록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만 뽑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미 익숙한 내용이며, 만일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제시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의 주제는 확대 가족과 핵가족이다. 내용은 가족 형태 중에서 주요한 두 유형인 대가족과 핵가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주제는 전통적 가족 제도의 장단점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으나, '나'보다 '우리'에서 의미를 찾는 정서적 유대를 제공하는 좋은 점을 가졌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주제는 우리나라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다. 내용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혈연 가구 중에서 핵가족과 직계 가족(확대 가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동의어로 볼 수 있음)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핵가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확대 가족은 감소하고 있다.

제시문 [라]의 주제는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추이다. 표에서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사회의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혼율은 급속하게 증가해왔지만 2000년부터 대체로 안정적 추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문제유형은 서술형으로 가족형태의 변화추이와 이혼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하게 답할 수 있다. 서술 과정에서 핵가족, 확대가족, 이혼율, 사회변동, 정서적 유대, 여성의 권익, 갈등의 조정 등의 핵심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혼율의 상관성을 서술하고, 그것의 통계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고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서적 유대, 여성의 권익뿐만 아니라 갈등 조정자의 존재까지도 서술하여야 한다.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우수답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조이혼율은 그간 빠르게 상승해왔다. 이것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깊은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핵가족 중에서는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 가족에서만 이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에서 보듯 이들 항목의 합계치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반면, 확대 가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 형태인 확대 가족은 여성 권익의 보장에는 취약하지만 '우리'라는 정서적 유대를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확대 가족의 개념은 부부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이혼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조이혼율의 상승은 핵가족의 확산 및 확대 가족의 감소에 병행하는 현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문제 3 】

출제의도

장르와 성격이 다른 세 제시문을 읽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역량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독서와 문법)의 성취 기준을 따른 것이다. 각 제시문에 첨부된 개별 학습 목표를 참고하여 공통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글에 제목을 붙이는 쓰기능력 수행도 점검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통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는 성취 기준(화법과 작문)을 측정하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비교 분석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수용과 생산(이해와 표현)’ 미덕을 통합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문제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의 주제는 공존과 대화의 역사적 가치이며 내용은 15세기에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나서 소피아 성당을 보호한 정책적 판단이 비잔틴 문명을 500년 이상 보호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배려가 있는 역사적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시문 [나]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따라 문학이 인간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묻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방안에서 거미를 발견하여 무심결에 문 밖으로 쓸어버렸는데, 잇달아 찾아오는 큰 거미, 새끼거미들을 바라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모두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이 거미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이웃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다]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지구촌 문제를 통해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제시된 지문이다. 주제는 미래 사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며 급격한 문화변동을 맞게 되는 미래 사회에 소수와 다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화론적으로 진단하고, 문화 다양성 사회의 도래를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이 문제는 서술형 문항으로, 공존과 배려의 삶을 주제로 내세워 비교분석과 대안제시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출제되었다. 핵심내용과 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존과 대화, 함께하는 삶, 바람직한 공동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성찰, 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의 존중 등을 제시하고, 이를 서술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상급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공존과 배려의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라는 공통학습 목표에 따라 “함께하는 공동체” 등의 제목을 붙이고, 세 제시문의 개별적 특성 즉, 세 제시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간양상(과거, 현재, 미래)과 문화양상(역사, 종교, 미술, 문학, 문화일반, 기술 등)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논리성과 문장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작성요령에 따른 우수답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함께하는 공동체

세 제시문은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담론을 보여준다. [가]는 마호메트 2세의 소피아 성당 보호 정책이 비잔틴 미술 보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나]는 시적 화자가 직면한 현실 삶의 구체적 경험으로서 거미 일가족에 대해 느끼는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다]는 미래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소수와 다수의 공존에 관한 글로서 문화일반 및 테크놀로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공존과 배려의 삶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인간 삶의 소중한 가치이며,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작동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이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화해가 필요하다. 예컨대, 아시아의 변명과 공존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 필요하다. 과거의 과오가 현실 공존공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지금 여기’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미래사회의 소수와 다수의 공존에 대한 문제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또는 이타심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해결 가능하다. 가령 문화자본을 앞세운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응하는 독립 영화들에 대한 보호, 문화 소수자들을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기반 확충들도 필요하다.

〈인문계〉

동국대학교 논술, 이렇게 대비하라!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교사 원치승 】

▣ 대입 논술고사의 특징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입 논술고사는 2014학년도 교육부의 '고교 교육 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교과서와 EBS교재 등)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수험생이 염두해야 할 각 대학 논술문제 출제 시의 핵심 고려 사항은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논술 주제의 연관성 그리고 쉬운 제시문으로 수험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 변별성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각 대학별 모의논술과 수시논술 출제 유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 각 대학별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 및 평가 목표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2013학년도 논술고사 평가기준(이해력·분석력(20점), 논증력(30점), 창의력(40점), 표현력(10점))은 여러모로 타 대학의 논술고사 우수답안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주요 상위권 대학의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 및 평가 목표 또한 이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요약을 요구하는 문항, 제시문을 활용한 추론능력과 문제 해결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여러 영역의 지식을 통합, 비판적 사고능력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문에 근거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답안 작성,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 제시문의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 차별성 있는 논거와 참신한 사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텍스트 분석력,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평가,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해결 능력 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서강대학교는 제시문 읽기를 통한 문제 발견 및 해석 능력, 문제와 관련한 의견의 조정 및 추론 능력,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및 기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문제적 상황에 대한 창조적 대안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동국대학교 인문계 논술의 특징

각 대학들이 기 출제된 논술 유형을 최대한 유지하듯이 동국대도 마찬가지이다.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독해 능력, 제시문 분석과 핵심어 선정 능력 그리고 주장과 논거 설정 능력과 논제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견해 표현 능력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유형을 지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러한 출제 유형은 타 대학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요 상위권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과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통합 논술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논술고사의 평가 목표와 출제 유형이 유사하다는 것은 동국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주요 상위권 대학 논술고사를 대비함에 있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수험생들은 대입 논술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대비방법

대교협에서 분류하는 논제의 유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대교협에서는 요약형 논제(단일제시문요약형, 복수제시문 요약형), 평가형 논제(비판 옹호형, 기준제시 평가형), 설명형 논제(기준제시설명형, 자료활용설명형), 분석형 논제(비교분석형, 단순자료해석형, 상황해결형), 논술형 논제(대안제시형, 자유의견개진형)까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논제를 분류하고 있다. 논제를 이 분류에 의해서 분석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무엇을(what) 어떻게(how)하라'는 명확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조화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하면 정답을 몇 단락으로 써야하는지도 쉽게 파악된다는 장점이 있다.

기출문제를 통한 동국대 출제유형을 학습하라.

각 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북과 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제공된 출제 방향을 최대한 유지한다. 동국대도 다르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평가기준을 빼내러하여 문제해설, 예시답안을 자신이 작성한 답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과서(탐구활동과 읽기 자료 포함)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한 논술 학습을 해야 한다.

2017학년도 논술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논술 시험'이었고 2018학년도 다르지 않다. 중앙대는 2017학년도 논술자료집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교과서와 EBS 교재의 지문을 100% 사용한다."라고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앙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동일하다. 더하여 동국대 논술 준비의 중요한 Tip은 교과서의 탐구활동과 읽기 자료를 잘 챙겨 읽어야한다는 것이다. 성균관대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교과서의 교과서들은 본문 외에 탐구 활동 또는 읽기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에 관한 심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많은 경우 본문의 주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또는 본문 주제에 관한 심화 읽기 자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다시쓰기를 하라.

작문의 고쳐쓰기 과정과 유사한 다시쓰기는 글을 고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글쓰기 방법론이다.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알아서 다시 글을 쓸 때 수정하거나 장점을 키워갈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면 간결한 문장쓰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단락에서 중요한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을 위계에 따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더하여 글 전체의 주제를 초점화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결국 자신의 글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사고과정이 논리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DONGGUK UNIVERSITY

2018 동국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2016·2017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자연계〉

2016, 2017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IV

1) 논술 전형 특징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고교과정의 수학과 과학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문제는 수리 논술 문제와 통합형 과학 논술로 구성되어 있다.

수리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수학교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통합형 과학탐구 논술은 고교과정의 공통과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과목에서 출제되었다. 논술문제는 주로 고교과정에서 배운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영화 속의 상황이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수식만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를 지양하고, 과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발휘하여 설명해야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였다. 통합형 과학탐구 문제는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능력과 함께 설득력 있게 논리 정연한 글을 쓰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 논술의 경우, 2015학년도 이전에는 논술고사에서 기사문, 전문 보고서 지문, 도표,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의 제시문이 사용되었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교재 중 공통과학,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 내에서만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재학 중 선택한 과학탐구 교과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과학 교과가 제시문으로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제시문의 내용만으로도 논제를 파악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2) 논술 전형 유의사항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논술고사를 치르는 다수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논술문제는 교육과정 내에 한정하면서도 교과서에 바탕을 둔 실생활이나 영화 속의 과학적 현상에 대한 논제를 제시하여 단순히 답만을 구하는 형식이 아닌 통합적인 과학적 사고력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과학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글쓰기 역시 자신의 몸에 익어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근육의 움직임 배워서 이론에 따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를 몸에 익히듯이, 글쓰기 역시 생각이나 글의 흐름을 차근차근 익혀 글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글쓰기는 실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다. 아래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논술에서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였다. 참고하여 글쓰기를 익히면 논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논술,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이론보다 실제로 쓰는 경험이 중요하다.
쓰고, 평가 받고, 고쳐 쓰기 과정을 반복하라.



〈사전준비〉

- ▶ 우리대학의 출제유형을 철저히 익힌다.
- ▶ 우리대학의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연습한다(시간안배, 문제 요구사항 숙지 등).
- ▶ 우리대학의 채점기준을 파악한다.

〈논제와 제시문의 올바른 파악이 기본〉

- ▶ 논제가 중요한 이유는 제시문 분석에 필수적이며 출제자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 ▶ 논제를 분석하는 요령 중 하나는 논제에 쓰인 명령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 논술하라 : 주장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한다.
 - 분석하라 : 주제를 구성요소로 나누고 각 부분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밝힌다.
 - 요약하라 : 핵심내용이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교(대조)하라 : 두 사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밝힌다.
 - 비판하라 : 어떤 주장의 타당성이나 가치 등을 평가한다.
 - 설명하라 : 사실, 주장 등을 쉽게 풀어서 밝힌다.

〈논술이 요구하는 글쓰기 요령〉

- ▶ 통일성과 완결성이 있는 글을 써야 한다.
- ▶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 ▶ 제시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금물이다(특히 요약의 경우).
- ▶ 부적절하고 맥락이 맞지 않는 지식 과시용 인용은 역효과로 작용한다.
- ▶ 천편일률적 대안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 ▶ 동어반복,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진술, 문구는 삼간다.
- ▶ 과격하고 지나친 단정은 위험하다.
- ▶ 짧고 간결한 문장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어떻게 쓸 것인가〉

- ▶ 의문문, 청유형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 ▶ 무의미한 진술을 삼가며 바로 논점으로 들어간다.
- ▶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 ▶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도록 한다.
- ▶ 추측성의 모호한 어미는 피한다.
- ▶ 감탄형 표현과 감상적인 어조는 피한다.
- ▶ 번역투의 문장은 피한다.
- ▶ 비유적 표현을 삼간다.
- ▶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단정한 필체로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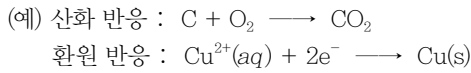


3) 논술 문제 및 해설

●●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자연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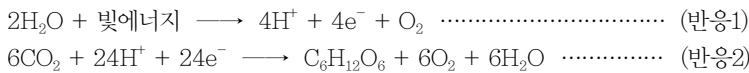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광합성과 호흡 및 연소는 지구계의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반면, 호흡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반응이다. 결국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역반응 관계이다. 한편, 연소는 호흡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이용하여 탄화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반응이다. 광합성과 호흡 및 연소는 화학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이다. 산화는 산소가 결합하거나 수소(또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은 산소가 분리되거나 수소(또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어떤 분자가 산소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자에서 산소가 분리되어야 하므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 『고등학교 과학, 화학I』

[나] 태양의 빛에너지는 물 분자를 분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 반응이 쉽게 일어났다면 바다는 이미 오래전에 수소와 산소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물의 분해 반응이 어떤 생물 안에서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생물이 세포 속에 물질대사를 도와주는 매우 다양한 효소를 갖고 있어서 화학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광합성 박테리아의 경우 물 분해 효소를 갖고 있으므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쉽게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물의 분해로 생긴 전자와 수소 이온은 효소를 이용한 연속된 반응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포도당을 만든다. 이렇듯 광합성 작용의 과정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는 과정(반응1)과 이산화탄소를 환원하는 과정(반응2)으로 나눌 수 있다.



- 『고등학교 과학』

[다] 식물은 탄소 순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유기 물질인 포도당으로 바꾸어 몸에 저장하거나 다른 생물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녹색 식물의 이 같은 작용은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 태양에너지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는 수소를 얻어 포도당이 되므로 환원된 것이며, 물은 최종 산물인 포도당에 수소를 제공하여 산소가 되므로 산화된 것이다. 이 작용으로 결국 이산화탄소는 환원되어 식물에 저장되고, 물 분해의 부산물인 산소는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물들의 호흡에 이용된다.

- 『고등학교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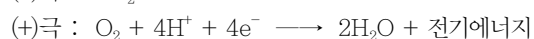
[라] 수소는 핵융합의 원료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와 같은 연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수소는 연소하면 물을 생성하는데 화석연료와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고,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원료로 물이 풍부하게 존재하므로 원료가 고갈될 우려가 없다.



실제로 아폴로 11호 우주선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를 개발하여 대기권 밖에서 동력원으로 이용하였다. 수소에너지는 석유를 연료로 삼는 모든 엔진과 석유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연료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과학』

[마] 수소-산소 연료전지에서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수소-산소 연료전지에서는 전자가 방출되는 산화 반응이 (-)극에서 일어나고, 전자를 받아들이는 환원 반응이 (+)극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전기에너지가 생성된다.



결국 수소-산소 연료전지에서의 반응은 수소의 연소 반응인데 효율이 매우 높으므로 연료가 절감되고 열병합 발전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연료 전지를 탑재한 수소 자동차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험 운행 중에 있으며 사용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 『고등학교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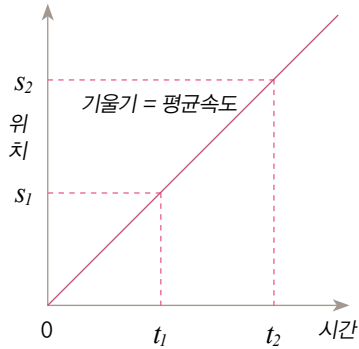
문제 1

제시문을 근거로 연료전지의 개발 원리와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화학 반응식과 산화-환원 반응 개념을 이용하여 서술하고, 두 원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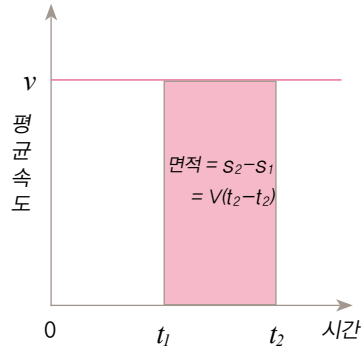
〈13~15줄 (390~45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림 1】은 위치-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므로 등속도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 보면 【그림 2】와 같이 수평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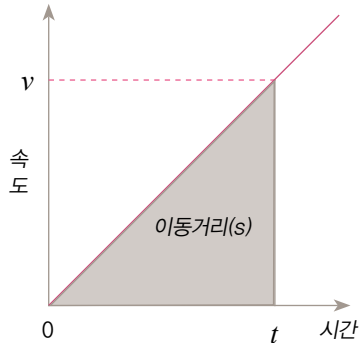
【그림 1】 위치-시간 그래프



【그림 2】 속도-시간 그래프

- 『고등학교 물리 I』

[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가속도가 일정하고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한다.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물체나 가만히 들고 있다 놓은 물체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다(【그림 3】참조).



【그림 3】 속도-시간 그래프

- 『고등학교 물리 I』

[다] 책상 위에 있는 책에 힘을 가하여 밀었을 때 책은 움직이다가 멈추는데, 이는 책상표면과 책 바닥의 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물체가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 『고등학교 물리 I』

[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일직선으로 등속 운동한다. 이를 뉴턴 운동 제1법칙 또는 관성 법칙이라고 한다. 이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 물리 I』

[마]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가속도가 크고,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는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가속도가 작다.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를 뉴턴 운동 제2법칙 또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 물리I』

[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다른 물체도 그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를 뉴턴의 운동 제3법칙 또는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 물리I』

[사] 지면에 있는 사람이 낙하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공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다. 공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엘리베이터, 사람, 공 모두 똑같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엘리베이터, 사람, 공이 모두 중력가속도로 낙하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측정하면 크기가 0이다. 하지만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다른 힘이 있어야만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가속좌표계에서 볼 때 실제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한다.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다.

- 『고등학교 물리I』

문제 2

나는 노천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급정거로 핸들에 얼굴을 부딪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나의 입장과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가]~[사] 중 적합한 제시문을 있는 대로 선택하여 물리적 개념으로 논술하시오.

〈13~15줄 (390~450자)〉 [30점]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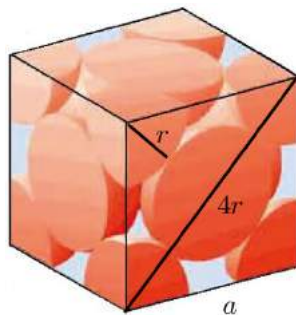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 인 지점을 지나고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반지름이 r 인 반구를 잘랐을 때 생기는 넓이가 $S(x) = \pi(r^2 - x^2)$ 일 때, 반지름이 r 인 구의 부피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반지름이 } r \text{인 구의 부피 } V = 2 \int_0^r \pi(r^2 - x^2) dx$$

철수와 영희는 정해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 반지름이 r 인 공 모양의 구를 조밀하게 쌓기로 하였다. 철수는 1층에 4개의 구를 사용하여 정사각형 모양(구의 중심을 연결한 모양)으로 평면을 채운 후, 각 정사각형 모양의 중앙에 1개의 구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2층을 쌓았다. 즉, 1층 4개의 구 사이의 골에 구를 1개 올려놓아 2층을 만들었다. 홀수(3, 5, 7, ...)층은 1층과 같은 모양으로 쌓고, 짝수(2, 4, 6, ...)층은 2층과 같은 모양으로 쌓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채웠다. 영희는 1층에 정육각형 모양(구의 중심을 연결한 모양)으로 평면을 채운 후 골이 생기는 곳에 구를 1개씩 올려놓아 2층을 쌓았다. 즉, 1층 3개의 구 사이의 골에 1개의 구를 올려놓아 2층을 만들고, 3층은 2층 3개의 구 사이의 골에 1개의 구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채웠다. 기본공간을 한 변의 길이가 a 인 정육면체로 잡아서 기본공간의 부피를 구하고 기본공간 안에 구가 차지하는 부피를 구하여 구의 밀도 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text{구의 밀도 식} = \frac{\text{기본공간 안에서 구가 차지하는 부피}}{\text{기본공간의 부피}} \times 100 (\%)$$

영희가 쌓은 모양의 기본공간의 예시는 주어진 그림과 같다.



일반적으로 구의 밀도 식 값이 큰 쪽이 작은 쪽보다 더 많은 구를 쌓을 수 있다고 한다.

- 『고등학교 미적분Ⅱ』

문제 2

제시문에 주어진 적분을 이용하여 구의 부피를 구하고, 철수와 영희가 쌓은 모양에 대한 구의 밀도 식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누가 정해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 더 많은 구를 쌓을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15~17줄> [40점]

●●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자연계) ●●

【 문제 1 】

출제의도

고교 과학과 교육과정 중 공통 교육과정 '과학' 교과 학습내용인 '광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확인하고, 광합성 작용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신기술인 '연료전지'의 학습내용을 연계한 통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내용을 통해 광합성 작용의 화학 반응 개념을 알려주고, 고교 과학과 교육과정 중 선택 교육과정인 '화학'의 기본 학습목표인 화학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 작성 능력 및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분석

- ① [가]는 광합성, 호흡, 연소에 대한 화학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음
- ② [나]는 광합성의 화학 반응을 태양에너지에 의한 물 분해 반응과 포도당 합성 반응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③ [다]는 생태계 탄소 순환에서의 광합성의 역할 및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음
- ④ [라]는 수소의 연소 반응식을 통하여 화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의 친환경성을 설명하고, 수소-산소 연료전지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⑤ [마]는 에너지 신기술로서 개발된 수소-산소 연료전지의 개념과 전기 생성 원리를 연료전지 내 화학 반응식을 통해 설명하고, 연료전지의 에너지 효율적 장점을 설명하고 있음

문항 해설(분석)

문항에서는 제시문 [마]와 [바]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료전지의 개발 원리를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다]에서 제시한 화학 반응식에 근거하여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연료전지의 개념 및 원리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답안(예시답안)

풀이 1

연료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일종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수소-산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수소이온과 전자로 산화시키고($2\text{H}_2 + \text{O}_2 \rightarrow 4\text{H}^+ + 4\text{e}^-$), 수소이온과 전자에 의한 산소의 환원 반응을 통해 물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text{O}_2 + 4\text{H}^+ + 4\text{e}^- \rightarrow 2\text{H}_2\text{O} + \text{에너지}$). 광합성은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산화-환원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으로 환원되고, 물은 포도당에 수소를 제공하고 산소로 산화된다.

식물의 광합성과 연료전지는 모두 화합물의 산화 반응을 통해 수소이온과 전자를 생산하고, 환원 반응을 통해 최종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광합성은 물 분해라는 산화 반응으로 산소를 생산하지만, 연료전지는 환원 반응을 통해 산소로부터 물을 생산한다는 상반된 차이점을 가진다.

풀이 2

연료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일종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수소-산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수소이온과 전자로 산화시키고($2\text{H}_2 + \text{O}_2 \rightarrow 4\text{H}^+ + 4\text{e}^-$), 수소이온과 전자에 의한 산소의 환원 반응을 통해 물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O_2+4H^++4e^-\rightarrow 2H_2O+$ 에너지). 광합성은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산화-환원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으로 환원되고, 물은 포도당에 수소를 제공하고 산소로 산화된다. 식물의 광합성과 연료전지는 모두 화합물의 산화 반응을 통해 수소이온과 전자를 생산하고, 환원 반응을 통해 최종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연료전지는 수소의 산화 반응(연소)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문항별 평가기준

채점 기준	배점
<p>【채점 요소】</p> <p>(1)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포함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이해도</p> <p>(2) 연료전지의 개념과 개발 원리에 포함된 산화-환원 반응의 이해도</p> <p>(3) 광합성 작용 및 연료전지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통합적 사고 및 이해도</p> <p>(4) 화학 반응식의 사용 및 활용 능력</p> <p>【채점 준거】</p> <p>- 고등학교 과학 교과와 내용만을 활용</p> <p>- 광합성이라는 자연 현상과 에너지 신기술의 개발 원리의 통합적 상관관계의 이해도 평가</p> <p>【유의 사항】</p> <p>- 다양한 자연 현상에 관련된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p> <p>- 탐구 활동 수행 능력과 이를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p>	30

상	S	채점 요소 (1)~(4)를 모두 만족하며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A	채점 요소 (1)~(3)을 만족하나 (4)의 화학 반응식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중	B	채점 요소 중 구분 없이 3개 요소를 만족하며 (3)을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C	채점 요소 중 구분 없이 3개 요소를 만족하나 (3)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경우
	D	채점 요소 중 구분 없이 2개 요소를 만족하나 (3)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하	E	채점 요소 중 구분 없이 1개 요소만 작성하였으나 (3)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F	채점 요소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비논리적인 내용을 작성한 경우

【 문제 2 】

출제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겪을 수 있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고교 교과 과정의 물리 1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물리적 현상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고교 교과 과정의 물리 1에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동일한 조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자동차 안에서는 자동차의 빠르기와는 무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음을 먼저 파악하고 운전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마찰력이 작용함을 기술한다. 그 마찰력은 작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성의 힘이 작용하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관성력으로 운전자가 핸들에 부딪힘을 설명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분석

- ① [가], [나]는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찾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음
- ② [다]~[바]는 뉴턴의 세 가지 운동법칙을 설명하며, 1차원 운동 상황을 위 운동법칙으로 분석하고 있음
- ③ [사]는 상대성이론을 바탕으로 빅뱅우주모형을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과거 우주관과 비교하고 있음

문항 해설(분석)

- ① [가]~[사]의 제시문 중 본 문제를 기술하기 위해 연관이 있는 제시문을 선택해야함([가], [다], [라], [사])
- ② 자동차의 급정거에서 자동차의 빠르기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안의 동일 조건(등속도 운동, 마찰력)에서 밖에서 보는 나의 관점(관성)과 운전자의 관점(관성력)을 정확하게 물리적 개념을 통해 설명해야 함
- ③ 안전띠를 매지 않은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적인 개념(마찰력)을 통해 설명해야 함
- ④ 관성과 관성력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⑤ 뉴턴의 운동 제2법칙과 관성력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함

모범답안(예시답안)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도 자동차와 똑같은 처음 속도를 갖고 있다. 달리던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면 자동차의 속도는 줄어들지만 운전자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인체와 좌석의 **마찰력**만이 작용하게 된다.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 인체와 좌석의 마찰력은 운전자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힘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운전자는 계속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핸들에 얼굴을 부딪치는 것이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 달리던 자동차가 급정거할 경우 자동차의 가속도 방향은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과 반대방향이다. 운전자는 가속도가 뒤 방향인 자동차 안에서 핸들에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의 가속도와 반대방향인 **앞쪽으로 작용한 관성력** 때문에 핸들에 얼굴을 부딪치는 것이다.

문항별 평가기준

상	S	<p>【채점 요소】</p> <p>- 등속도 운동(①) - 마찰력(②) - 관성(법칙)(③, ④)에 대한 개념과 결론 - 관성력(⑤, ⑥)에 대한 개념과 결론</p> <p>【채점 준거】</p> <p>- ① 운전자도 자동차와 똑같은 처음 속도를 갖고 있다. (등속도 운동)</p> <p>- ② 인체와 좌석의 마찰력만이 작용하게 된다. (또는 제시문 [다]의 내용)</p> <p>- or 인체와 좌석의 마찰력은 너무 작은 힘이다.</p> <p>- ③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운전자는 계속 앞으로 진행(제시문 [라]의 내용)</p> <p>- ④ 관성</p> <p>- ⑤ 자동차의 가속도 방향은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과 반대방향(제시문 [사]의 내용)</p> <p>- ⑥ 관성력</p>
	A	<p>【채점 요소】</p> <p>- 등속도 운동(①) - 마찰력(②) - 관성(법칙)(④)에 대한 결론 - 관성력(⑤, ⑥)에 대한 개념과 결론</p> <p>【채점 준거】</p> <p>- 등속도 운동, 마찰력, 관성, 관성력의 키워드나 유사 설명이 있고, 관성이나 관성력에 대한 설명이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됨.</p> <p>- 6개의 항목 중 5개의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p>
중	B	<p>【채점 요소】</p> <p>- 등속도 운동(①) - 마찰력(②) - 관성(법칙)(④)에 대한 결론 - 관성력(⑥)에 대한 결론</p> <p>【채점 준거】</p> <p>- 등속도 운동, 마찰력, 관성, 관성력의 키워드나 유사 설명이 있으면 됨.</p> <p>- 6개의 항목 중 4개의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p>
	C	<p>【채점 요소】</p> <p>- 마찰력(②) - 관성(법칙)(④)에 대한 결론 - 관성력(⑥)에 대한 결론</p> <p>【채점 준거】</p> <p>- 마찰력, 관성, 관성력의 키워드나 유사 설명이 있으면 됨. 또는 등속도 운동의 내용은 있고, 관성, 관성력, 마찰력 중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경우</p> <p>- 6개의 항목 중 3개의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p>
	D	<p>【채점 요소】</p> <p>- 관성(법칙)(④)에 대한 결론 - 관성력(⑥)에 대한 결론</p> <p>【채점 준거】</p> <p>- 마찰력, 관성, 관성력의 키워드나 유사 설명이 있으면 됨. 또는 등속도 운동 또는 마찰력 중 하나의 내용과 관성 및 관성력에 대한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기술한 경우</p> <p>- 6개의 항목 중 2개의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p>
	E	<p>【채점 요소】</p> <p><u>관성(법칙)(④)</u> 및 <u>관성력(⑥)</u>에 대한 하나만의 결론</p> <p>【채점 준거】</p> <p>- 관성, 관성력 중 하나의 키워드나 유사 설명이 있으면 됨.</p> <p>- 6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만을 만족하는 경우</p>
하	F	<p>- 답안을 작성하지 않아 내용이 없는 경우</p> <p>- 논지와 요구 형식을 벗어난 엉뚱한 답안을 작성한 경우</p>

【 문제 3 】

출제의도

중학교에서 배운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고등학교 미적분II에서 배운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는 수학의 내적 연결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주어진 정육면체 안에 구를 어떻게 배치하여 쌓을 때 최대한 많은 구를 쌓을 수 있는지 수학적 근거를 이용하여 주장하고 논리를 펼칠 수 있는지 평가하여, 학생의 공간 추리능력과 공간 배치 능력 그리고 실제 현실 상황에서 수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로 이 문항을 출제하였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구 쌓기에 대한 설명문들과 고등학교 미적분II의 적분법에서 정적분의 활용 중 구의 부피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문항 해설(분석)

정해진 공간 안에 구를 쌓을 때 어떻게 쌓는 것이 효율적으로 많이 쌓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제시문에서 그 방법을 두가지 설명해 주고 그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구를 쌓을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논증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본공간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능력은 공간에 대한 추론 능력과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의 발상을 묻는 문제로서 중학교 수학 수준의 능력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모범답안(예시답안)

[풀이 1]

반지름이 r 인 구의 부피 = $2 \int_0^r \pi(r^2 - x^2) dx = 2\pi \left[r^2x - \frac{1}{3}x^3 \right]_0^r = \frac{4}{3}\pi r^3$ 이다. 철수의 방법에서 기본공간을 한 변의 길이가 a 인 정육면체로 잡으면 각 꼭지점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구가 $(\frac{1}{8})$ 개씩 있고 중앙에 1개의 구가 있다. 따라서 기본공간 안에는 $1 + 8 \times (\frac{1}{8}) = 2$ 개의 구가 들어 있다. 한편 정육면체의 대각선을 따라 3개의 구가 접하고 있으므로 a 와 r 의 관계는 $\sqrt{3}a = 4r$ 이다.

따라서 쌓기 밀도 식 = $\frac{2(\frac{4}{3}\pi r^3)}{a^3} \times 100 = \frac{8}{3}\pi \left(\frac{\sqrt{3}}{4}a\right)^3 \times 100 = \frac{\sqrt{3}\pi}{8} \times 100$ 이다. 영희의 방법에서 기본공간을 한 변의 길이가 a 인

정육면체로 잡으면 각 꼭지점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구가 $(\frac{1}{8})$ 개씩 있고 각 면마다 $(\frac{1}{2})$ 개의 구가 있다. 따라서 기본공간 안에는 $6 \times (\frac{1}{2}) + 8 \times (\frac{1}{8})$ 개의 구가 들어 있다. 한편 정육면체의 각 면의 대각선을 따라 3개의 구가 서로 접하고 있으므로 a 와 r 의 관계는 $\sqrt{2}a = 4r$

이다. 따라서 쌓기 밀도 식 = $\frac{4(\frac{4}{3}\pi r^3)}{a^3} \times 100 = \frac{16}{3}\pi \left(\frac{\sqrt{2}}{4}a\right)^3 \times 100 = \frac{\sqrt{2}\pi}{6} \times 100$ 이다. 또한, $\frac{\sqrt{3}}{8} < \frac{\sqrt{2}}{6}$ 이므로 $\frac{\sqrt{3}\pi}{8} \times 100 < \frac{\sqrt{2}\pi}{6} \times 100$ 이다.

따라서 영희의 구 쌓기 밀도 식 값이 철수의 구 쌓기 밀도 식 값 보다 크므로, 영희가 철수보다 정해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 더 많은 구를 쌓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풀이 2]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 = $2 \int_0^r \pi(r^2 - x^2)dx = 2\pi \left[r^2x - \frac{1}{3}x^3 \right]_0^r = \frac{4}{3}\pi r^3$ 이다.

1. 철수의 방법에서

① 정육면체를 이용할 경우

기본공간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로 잡으면 각 면에는 $\frac{1}{2}$ 구가 6개, 각 꼭지점에는 $\frac{1}{8}$ 구가 8개가 들어가 있으므로 $2\sqrt{2}r = a$ 이다.

따라서 쌓기 밀도 식은 $\frac{16\pi r^3/3}{16\sqrt{2}r^3} \times 100 = \frac{\sqrt{2}\pi}{6} \times 100$ 이다.

② 직육면체를 이용할 경우

1층 4개구와 3층 4개구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육면체를 생각하여 가로와 세로는 2r, 높이를 h라 하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 4r 이므로,

$$h^2 + (2r)^2 + (2r)^2 = (4r)^2 \text{에서 } h = 2\sqrt{2}$$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2r) \times (2r) \times (2\sqrt{2}r) = 8\sqrt{2}r^3$ 이다.

직육면체에는 중앙에 구 1개가, 꼭지점에는 $\frac{1}{8}$ 구가 8개 있으므로, 구하는 밀도식은 $\frac{1 \times \frac{4\pi r^3}{3} + 8 \times \frac{1}{8} \times \frac{4\pi r^3}{3}}{8\sqrt{2}r^3} \times 100 = \frac{\sqrt{2}\pi}{6} \times 100$ 이다.

2. 영희의 방법에서

기본공간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로 잡으면 각 꼭지점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가 $(\frac{1}{8})$ 개씩 있고 각 면마다 $(\frac{1}{2})$ 개의 구가 있다. 따라서

기본공간 안에는 $6 \times (\frac{1}{2}) + 8 \times (\frac{1}{8})$ 개의 구가 들어 있다. 한편 정육면체의 각 면의 대각선을 따라 3개의 구가 서로 접하고 있으므로 a와 r의

관계는 $\sqrt{2}a = 4r$ 이다.

따라서 쌓기 밀도 식은 $\frac{4(\frac{4}{3}\pi r^3)}{(2\sqrt{2}r)^3} \times 100 = \frac{\sqrt{2}\pi}{6} \times 100$ 이다.

따라서 영희와 철수의 구 쌓기 밀도 식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영희와 철수는 정해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같은 수의 구를 쌓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문항별 평가기준

철수의 경우 정사각형 모양 배열을 만들 때

[풀이1] 1층 4개, 2층 1개, 3층 4개의 구가 정육면체를 이룰 때

[풀이2] 1층 4개의 구를 접하게 배열 했을 때에 따라 답안이 다르다.

채점 기준	배점
<p>[풀이 1]</p> <p>(1단계)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를 구한다.</p> <p>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 = $2 \int_0^r \pi(r^2 - x^2)dx = 2\pi \left[r^2x - \frac{1}{3}x^3 \right]_0^r = \frac{4}{3}\pi r^3$</p> <p>(2단계) 철수가 쌓은 모양에 대한 구의 밀도 식 값을 구한다.</p> $= \frac{2(\frac{4}{3}\pi r^3)}{a^3} \times 100 = \frac{8}{3}\pi \left(\frac{\sqrt{3}}{4}a\right)^3 \times 100 = \frac{\sqrt{3}\pi}{8} \times 100$ <p>(3단계) 영희가 쌓은 모양에 대한 구의 밀도 식 값을 구한다.</p> $= \frac{4(\frac{4}{3}\pi r^3)}{a^3} \times 100 = \frac{16}{3}\pi \left(\frac{\sqrt{2}}{4}a\right)^3 \times 100 = \frac{\sqrt{2}\pi}{6} \times 100$ <p>(4단계) 철수와 영희의 값을 비교해서 누구 값이 더 큰지 설명한다.</p> <p>$\frac{\sqrt{3}}{8} < \frac{\sqrt{2}}{6}$ 이다. 따라서 영희의 방법으로 쌓은 모양의 구 쌓기 밀도 값이 철수의 방법으로 쌓은 모양의 구 쌓기 밀도 값 보다 크다.</p> <p>(5단계) 영희의 구의 밀도 식 값이 크다는 것을 사용하여 영희가 철수 보다 더 많은 구를 정해진 컨테이너 박스에 쌓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p> <p>구의 밀도 식 값이 큰 쪽이 작은 쪽 보다 더 많은 구를 쌓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영희가 철수 보다 더 많은 구를 쌓을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p> <p>[풀이 2]</p> <p>(1단계), (2단계), (3단계) [풀이1]과 동일</p> <p>(4단계) 철수와 영희의 구의 밀도 식 값을 비교해서 누구 값이 더 큰지 설명한다.</p> <p>영희의 방법으로 쌓은 모양의 구 쌓기 밀도 값과 철수의 방법으로 쌓은 모양의 구 쌓기 밀도 값이 같다.</p> <p>(5단계) 밀도식 값이 같으므로 영희와 철수는 같은 수의 구를 쌓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p>	40

상	S	철수의 경우 1층4개, 2층1개, 3층4개의 구를 정육면체를 이룸을 설명하고(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맞게 기술하고 논술 방법이 매끄럽게 전개 되어 설득력이 있는 경우
	A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맞게 기술하였으나 논술 방법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중	B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만 맞게 기술한 경우
	C	(1단계), (2단계), (3단계)만 맞게 기술한 경우
	D	(1단계), (2단계)만 맞게 기술한 경우, 또는 (1단계), (3단계)만 맞게 기술한 경우
하	E	(1단계)만 맞게 기술한 경우
	F	아무 단계도 맞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백지 포함)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자연계)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7세기 천문학자 케플러(Kepler, J.)는 포도주 통에 든 포도주 양을 측정하는 당시 상인들의 방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상인들은 포도주 통에 막대기를 세워 넣은 뒤 막대기에 표시된 포도주 자국으로 포도주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런데 포도주 통의 모양은 원기둥 모양이 아닌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이어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케플러는 구분구적법을 도입하여 포도주 통의 부피 등 여러 가지 회전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나] 함수 $x = g(y)$ 가 구간 $[c, d]$ 에서 연속일 때, 곡선 $x = g(y)$ 와 y 축 및 두 직선 $y = c, y = d$ 로 둘러싸인 도형을 y 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부피 V 는 다음과 같다.

$$V = \pi \int_c^d x^2 dy = \pi \int_c^d \{g(y)\}^2 dy$$

-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다] 미분가능한 함수 $y = f(x)$ 의 도함수는 $f'(x) =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로 정의한다.

또한 삼각함수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 (1) $y = \sin x$ 이면 $y' = \cos x$
- (2) $y = \cos x$ 이면 $y' = -\sin x$
- (3) $y = \tan x$ 이면 $y' = \sec^2 x$

- 『고등학교 수학 II』

문제 1

제시문 [가] ~ [다]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곡선 $y = \frac{x^2}{2} - 1$ 과 y 축 및 두 직선 $y = 0, y = 5$ 로 둘러싸인 도형을 y 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회전체 모양의 빈 통(용기)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통에 포도주를 넣어 시간이 t 일 때 이 통에 든 포도주의 부피가 $\pi \tan^2 t$ 이고 통의 바닥으로부터 포도주의 높이가 $h(t)$ 라고 하자. $h(t)$ 의 순간변화율 $h'(t)$ 의 최댓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서술하십시오.

(단, $0 \leq t \leq \frac{\pi}{4}$ 이고, 통(용기)의 두께는 무시한다.)

<10 ~ 15줄> [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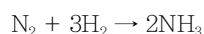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질소는 생물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나 핵산 등의 중요한 성분으로, 대기 중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생물은 대기 중의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질소를 토양에 있는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의 형태로 뿌리를 통해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질소 고정이 일어나야 한다. 토양 속에 있는 뿌리혹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 고정 세균은 대기 중의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은 질화 세균들에 의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은 식물이 흡수하여 이용한다. 식물에 흡수된 질소 성분은 식물의 질소 동화 작용에 의해 단백질과 핵산 등으로 합성된다.

- 『고등학교 생명 과학』

[나] 1904년 독일의 과학자 하버(Haber, F. 1868-1934)는 공기 중에 78% 정도 존재하는 질소, 그리고 메테인에서 생산된 수소를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사산화 삼철 (Fe_3O_4)을 촉매로 사용하여 암모니아(NH_3)를 생성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 후 화학 공업 회사에 근무하던 보슈(Bosch, C. 1874-1940)가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로 인해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6배 이상 향상되어 당시 부족했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농경지에 뿌려지는 질소 비료의 약 40%가 하버와 보슈에 의해서 개발된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질소 성분은 공기 중에 78%나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데, 왜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사용하지 못할까? (중략)

식물에게 필요한 성분은 물속에 녹아 있어야 물이 흡수될 때 녹아 있던 성분을 뿌리를 통해 흡수하는데…….

- 『고등학교 과학』

[다] 수소와 같이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만들어진 공유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 하고, 단일 결합은 결합선을 사용해 H-H로 나타내기도 한다. 수소뿐 아니라 질소, 탄소, 산소와 같은 다른 원자들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 부딪혀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우주 공간에서 질소와 질소 원자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질소는 공유 결합을 하여 질소 분자(N_2)를 형성한다.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했던 것과는 달리, 질소는 원자 사이에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한다. 이러한 결합을 3중 결합이라고 한다. 질소 분자의 3중 결합은 수소 분자처럼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한 단일 결합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쉽게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 번 형성된 질소 분자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 『고등학교 과학』

[라] 암모니아(NH_3)의 분자 구조

단계 1. 루이스 전자점식: 중심 원자인 질소(N)와 수소(H) 원자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3개 존재한다.

단계 2. 전자쌍 수: 공유 전자쌍의 수 3개, 비공유 전자쌍의 수 1개

단계 3. 기하학적 구조: 삼각뿔형

암모니아 분자는 중심 원자인 질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진 공유 결합 화합물로서 삼각뿔형의 구조를 가진다.

- 『고등학교 화학』

[마] 수소 분자(H₂)는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은 같다. 즉 두 수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는 같으며,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에 동등하게 끌리게 된다. 이러한 결합을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며, 이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한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무극성 분자에는 수소 외에도 질소, 산소 등이 있다.

그러나 염화수소 분자를 구성하는 염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다르다. 즉 염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3.0)가 수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2.1)보다 커서 염소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따라서 공유 전자쌍은 염소 원자 쪽으로 치우쳐 있어 염소 원자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δ^-)를 띠며, 수소 원자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δ^+)를 띤다. 이것은 마치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여 극성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이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한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극성 분자에는 염화수소 외에도 물, 암모니아 등이 있다.

- 『고등학교 화학』

[바] 가정에서 손쉽게 입속의 매운맛을 없애려면 물보다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는데, 그 이유를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화학에 있어서도 ‘유유상종’의 원리가 통한다. 즉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게 되는 원리이다. 이것은 물과 에탄올이 서로 잘 섞이거나,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원리와 같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분자 구조로 보아 무극성에 가까우므로 물이나 다른 수용액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우유 속의 지방 성분에는 잘 녹게 된다. 따라서 지방을 함유한 음료를 마시면 훨씬 쉽게 매운맛을 없앨 수 있다.

- 『고등학교 화학』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나 있듯이 식물은 질소 분자 형태가 아닌 암모니아 형태로 질소를 흡수하여 이용한다. 그 이유를 각각의 분자 구조를 기반으로 제시문 [다] ~ [바]를 활용하여 비교 서술하시오.

(12~15줄 (360~45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평행판 축전기가 얼마나 많은 전하로 대전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전기용량 C 이다. 즉 C 의 값이 클수록 많은 (+)전하와 (-)전하를 각각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전기용량의 크기는 축전기의 모양에 따라 결정된다. 금속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고, 금속판의 간격이 좁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전기의 전기용량 C 값이 작으면 축전기는 교류에서 저항역할을 크게 하게 된다. 또 교류의 주파수 f 가 작아도 축전기의 저항이 커지게 된다. 교류에서 축전기에 의한 저항을 용량 리액턴스라 하고, 그 크기 X_C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X_C = \frac{1}{2\pi fC}$$

- 『고등학교 물리』

[나] 패러데이법칙에 의하면 코일에 변하는 자기장이 걸리면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정도를 코일의 유도용량이라고 하며, 유도용량 L 이 클수록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크게 생길 수 있다.

교류가 코일에 흐르면 코일은 저항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코일의 저항은 코일의 유도용량 L 과 교류의 주파수 f 에 따라 달라진다. 교류에서의 코일의 저항을 유도 리액턴스라 하고, 그 크기 X_L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X_L = 2\pi fL$$

- 『고등학교 물리』

[다] 단위시간 당 소모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전력이라고 하며, $P = VI = I^2R$ 가 되고 단위는 J/s , W 이다.

전선에서의 전력손실은 전류의 세기와 저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력손실을 줄이려면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전선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 전선의 저항을 줄이려면 전선을 저항이 작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굵게 만들어야 한다.

- 『고등학교 물리』

[라] 도선의 전기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선의 굵기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곧 송전선의 무게를 증가시켜 송전선의 생산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무게를 견딜 수 있게 거대한 송전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비용까지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변함없이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더 굵은 송전선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 『고등학교 물리』

[마] 교류회로에서 변압기를 이용하면 두 회로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전력을 수송할 수 있고, 전압도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코일이 지니고 있는 저항과 철심에서 발생하는 맴돌이 전류 때문에 실제 변압기의 효율은 90~99%범위에 있다. 따라서 전기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압기에서 손실된 양만큼 전기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원에서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 『고등학교 물리』

문제 3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이 전달되는 전력수송과정은 저항, 코일, 축전기가 교류전원에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회로에 공급된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할 때, 제시문 [가] ~ [마]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저항, 코일, 축전기의 구성 방법을 모두 서술하시오. (단, 전기에너지 효율과 경제적 효율을 모두 고려할 것.)

〈12~15줄 (360~450자)〉 [35점]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자연계) ●●

【 문제 1 】

출제의도

1번 문제는 적분법을 활용하여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능력과 실제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출제하였다.

제시문 분석

① 제시문 [가]

주제	정적분과 회전체의 부피
내용 요약	정적분을 활용해서 회전체의 부피를 연구한 배경 설명

② 제시문 [나]

주제	정적분과 회전체의 부피
내용 요약	주어진 곡선을 활용하여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정적분 공식

③ 제시문 [다]

주제	도함수의 정의와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관한 공식
내용 요약	문제에 활용가능한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관한 공식

문항 해설(분석)

주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에 든 포도주의 부피와 포도주의 높이에 관한 공식을 유도하고, 높이의 순간변화율의 최댓값을 구함.	
출제범위	과목명	고등학교 수학 적분과 통계, 수학 II
	내용영역 또는 핵심개념/용어	정적분, 회전체의 부피, 순간변화율, 최댓값
답안 유형	주관식 서술형	
답안작성 예상시간	30~35분	

모범답안(예시답안)

[풀이 1]

시간 t 일 때 바닥으로부터 포도주의 높이가 $h(t)$ 이므로 제시문 (나)를 적용하면, $y = \frac{x^2}{2} - 1$ 에서

$$\pi \int_0^{h(t)} x^2 dy = \pi \int_0^{h(t)} (2y+2) dy = \pi [y^2 + 2y]_0^{h(t)} = \pi(h(t)^2 + 2h(t)) \text{이다.}$$

$\pi(h(t)^2 + 2h(t)) = \pi \tan^2 t$ 이므로 정리하면 $h(t)^2 + 2h(t) - \tan^2 t = 0$ 이다.

이차방정식의 근의 정리를 적용하여 $h(t) = -1 \pm \sqrt{1 + \tan^2 t}$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h(t)$ 는 음수가 아니고 $1 + \tan^2 t = \sec^2 t$ 이므로 $h(t) = -1 + \sqrt{1 + \tan^2 t} = -1 + \sec t = -1 + \frac{1}{\cos t}$ 이다.

높이의 순간변화율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미분하면 $h'(t) = \frac{\sin t}{\cos^2 t} = \sec t \tan t$ 이다.

$\sin t$ 와 $\frac{1}{\cos^2 t}$ (또는 $\sec t$ 와 $\tan t$)는 모두 $0 \leq t \leq \frac{\pi}{4}$ 에서 음수 값을 갖지 않고, 증가함수이므로 $h'(t)$ 도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t = \frac{\pi}{4}$ 에서 최댓값 $h'(\frac{\pi}{4}) = \frac{\sin(\pi/4)}{\cos^2(\pi/4)} = \frac{\frac{\sqrt{2}}{2}}{\frac{1}{2}} = \sqrt{2}$ 를 갖는다.

[풀이 2]

시간 t 일 때 밑바닥으로부터 포도주의 높이가 $h(t)$ 이므로 제시문 (나)를 적용하면, $y = \frac{x^2}{2} - 1$ 에서

$$y = \frac{x^2}{2} - 1 \text{에서 } \pi \int_0^{h(t)} x^2 dy = \pi \int_0^{h(t)} (2y+2) dy = \pi [y^2 + 2y]_0^{h(t)} = \pi(h(t)^2 + 2h(t)) \text{이다.}$$

$\pi(h(t)^2 + 2h(t)) = \pi \tan^2 t$ 이므로 정리하면 $h(t)^2 + 2h(t) - \tan^2 t = 0$ 이다.

이차방정식의 근의 정리를 적용하면 $h(t) = -1 \pm \sqrt{1 + \tan^2 t}$ 이다.

그런데 $h(t)$ 는 음수가 아니고 $1 + \tan^2 t = \sec^2 t$ 이므로 $h(t) = -1 + \sqrt{1 + \tan^2 t} = -1 + \sec t = -1 + \frac{1}{\cos t}$ 이다.

높이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미분하면 $h'(t) = \frac{\sin t}{\cos^2 t} = \sec t \tan t$ 이다.

한 번 더 미분하면 $h''(t) = \frac{1 + \sin^2 t}{\cos^3 t}$ 이고 $0 \leq t \leq \frac{\pi}{4}$ 에서 $h''(t) > 0$ 이므로 $h'(t)$ 가 $0 \leq t \leq \frac{\pi}{4}$ 에서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t = \frac{\pi}{4}$ 에서 최댓값 $h'(\frac{\pi}{4}) = \frac{\sin(\pi/4)}{\cos^2(\pi/4)} = \frac{\frac{\sqrt{2}}{2}}{\frac{1}{2}} = \sqrt{2}$ 를 갖는다.

문항별 평가기준

상	S	<p>(1) $\pi \int_0^{h(t)} x^2 dy = \pi \int_0^{h(t)} (2y+2) dy$</p> <p>(2) $\pi \int_0^{h(t)} x^2 dy = \pi \int_0^{h(t)} (2y+2) dy = \pi [y^2 + 2y]_0^{h(t)} = \pi(h(t)^2 + 2h(t))$</p> <p>(3) $h(t) = -1 + \sec t = -1 + \frac{1}{\cos t}$</p> <p>(4) $h'(t) = \frac{\sin t}{\cos^2 t} = \sec t \tan t$가 증가함수(또는 단조증가함수)임을 밝히거나(풀이1, 2 참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t = \frac{\pi}{4}$에서 최댓값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임.</p> <p>(5) 최댓값은 $h'(\frac{\pi}{4}) = \sqrt{2}$이다.</p>
	A	(1)부터 (5)까지 중에서 4가지를 보임.
중	B	(1)부터 (5)까지 중에서 3가지를 보임.
	C	(1)에서 (5)까지 중에서 2가지를 보임.
하	D	(1)에서 (5)까지 중에서 1가지를 보임.
	E	질문의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답안, 백지답안.

【 문제 2 】

출제의도

원자의 결합으로 생성된 분자의 공유 결합 방식과 그 삼차원적 구조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연현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동종 이원자 분자인 질소 분자와 이종 다원자 분자의 암모니아 및 물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공유결합 방식과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하여 각 분자의 극성 및 비극성 특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에서 식물이 질소 분자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를 이용하는 현상을 각각의 분자 구조로 인한 특성과 연결 시켜 제시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제시문 분석

① 제시문 [가]

주제	질소의 순환
내용 요약	생물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나 핵산의 중요한 성분인 질소가 자연계에서 어떻게 순환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과정 (질소고정)을 통해 분자 상태의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의 형태로 전환되어 뿌리를 통해 흡수됨을 소개함.

② 제시문 [나]

주제	하버의 암모니아 생산 공정 및 질소 비료
내용 요약	인류 식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었던 하버의 촉매를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법에 대해 소개 하고 분자 상태의 질소가 식물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식물이 필요한 성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녹아 있는 상태로 흡수된다는 사실을 소개함.

③ 제시문 [다]

주제	공유결합
내용 요약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분자로서 수소와 질소의 공유 결합을 예를 들어 비교함으로써 단일 결합의 수소 분자와 삼중 결합의 질소 분자의 특성에 대하여 소개함. 질소 분자의 삼중 결합은 수소 분자의 단일 결합보다 안정하여 질소 분자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소개함.

④ 제시문 [라]

주제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
내용 요약	암모니아의 분자의 삼차원적 구조를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질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3개 존재하고 그 구조가 비대칭적인 삼각뿔형임을 소개함.

5 제시문 [마]

주제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
내용 요약	수소 분자를 예로 하여 동종 이원자 분자의 경우 그 결합이 무극성 공유 결합이며 형성된 분자도 무극성 분자임을 설명하고 질소, 산소 등도 이에 속한다고 예시함. 또한 염화수소 분자를 예를 들어 구성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공유한 전자쌍의 편극을 유도하여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함을 설명하였고 극성 분자의 예로 물과 암모니아가 이에 속한다고 예시함.

6 제시문 [바]

주제	유유상종의 원리
내용 요약	가정에서 손쉽게 입속의 매운맛을 없애는 방법을 예로 하여 매운 맛을 나타내는 분자가 상대적으로 무극성에 가까워 극성인 물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우유 속의 지방 성분에는 잘 녹아 쉽게 매운맛을 없앨 수 있다는 현상으로 화학에서의 '유유상종'의 원리를 소개함.

문항 해설(분석)

주제	분자의 구조 차이에 의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연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출제범위	과목명	과학, 생명 과학, 화학
	내용영역 또는 핵심개념/용어	질소 순환, 질소 고정, 공유 결합, 단일 결합, 삼중 결합, 분자 구조, 전자쌍 반발 원리,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답안 유형	주관식 서술형	
답안작성 예상시간	25~30분	

모범답안(예시답안)

[가], [나]에서 식물은 대기 중의 질소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물에 녹아 있는 암모늄 이온을 뿌리를 통해 흡수한다고 하였다. 질소 분자는 [다]와 [마]를 통해 3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이며 암모니아는 [라]와 [미]를 통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극성 분자임을 알 수 있다. [바]에서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인다고 하였으므로 식물이 질소 분자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인 물에 잘 녹아 쉽게 뿌리를 통해 흡수하여 분해 할 수 있으나 무극성인 분자인 질소는 물에 잘 녹지 못하고 설사 녹는다고 해도 3중 결합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쉽게 단백질이나 핵산으로 변환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항별 평가기준

상	S	(1) 식물이 공기 중의 질소 분자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물에 녹은 상태의 암모니아 형태로 뿌리를 통해 흡수됨을 서술함. (2) 질소 분자가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무극성 분자이며 3중 결합을 하고 있는 안정한 상태임을 설명함. (3) 암모니아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극성 분자이며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함. (4)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인 물에 잘 녹는 반면 무극성 분자인 질소 분자는 잘 녹지 않음을 설명함. (5) 단일 결합으로 존재하는 암모니아에 비해 3중 결합으로 존재하는 질소 분자는 흡수 되더라도 결합력이 강해 쉽게 단백질이나 핵산으로 변환 되지 못함을 설명함.
	A	S등급의 5가지 기준 중 4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B	S등급의 5가지 기준 중 3가지만 서술한 경우
	C	S등급의 5가지 기준 중 2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D	S등급의 5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서술한 경우
	E	질문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답안, 백지답안

【 문제 3 】

출제의도

전력수요 만족에 따른 전기에너지의 효율 향상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자연계 지원 학생들의 경우 향후 본인이 선택한 진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실생활의 밀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고교 교과 과정의 물리1에서 배운 저항, 코일, 축전기에 관한 내용을 통해 실생활의 전압조건인 교류와 주파수에서의 그 소자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기본 회로를 중심으로 교류 전압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주파수에서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의 공식을 이해하고, 동일 전압 상에서 전력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높여야 하며, 전류를 높이기 위해 직렬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 코일 그리고 축전기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 전압 상에서 전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항과 코일의 값을 작게 하고 축전기의 값을 크게 하면 좋지만 저항의 경우 그 값을 작게 할수록 경제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코일의 경우 맴돌이 전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서 전력손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축전기의 값 변화만을 통해 전류를 상승시켜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분석

① 제시문 [가]

주제	전기용량과 용량 리액턴스
내용 요약	축전기의 전기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조건 및 축전기에 의한 저항인 용량 리액턴스에서는 전기용량의 크기는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관계를 보여줌.

② 제시문 [나]

주제	유도용량과 유도 리액턴스
내용 요약	코일에 의한 저항인 유도 리액턴스 용량과 유도용량의 크기는 유도 리액턴스와 비례관계임을 보여줌.

③ 제시문 [다]

주제	전력과 전력손실
내용 요약	전력의 개념과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한 저항의 관계를 보여줌.

④ 제시문 [라]

주제	전력감소와 저항과의 관계
내용 요약	저항 감소를 위한 송전선의 굵기, 무게와의 관계를 알고, 경제적 가치를 보여줌.

⑤ 제시문 [마]

주제	변압기
내용 요약	저항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변압기의 경우 맴돌이 전류의 흐름으로 전력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방안을 보여줌.

문항 해설(분석)

주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직렬 교류회로에서의 저항, 코일, 축전기의 제작 구성	
출제범위	과목명	과학, 물리
	내용영역 또는 핵심개념/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파 발생과 안테나를 통한 수신과정 전력 수송과정에서 에너지 손실 소모되는 전력을 줄이는 방법 전자기파, 직렬회로, 교류회로, 저항,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전력, 전력 수송, 소모전력, 에너지 효율
답안 유형	주관식 서술형	
답안작성 예상시간	30~35분	

모범답안(예시답안)

저항, 코일,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교류회로에 공급된 전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기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높여야 한다. 이 때 이 회로에 연결된 코일(인덕턴스)과 축전기(커패시턴스)의 저항인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의 단위는 저항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주파수에서 전류의 세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코일(인덕턴스)의 값은 저항과 같이 작게 해주고, 축전기는 크게 해주어야 한다. (제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항은 기존의 상태보다 작게 할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고(또는 주어진 조건이 낮은 전압상태라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저항이 작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굵게 만들어 사용하고), 코일의 경우 맴돌이 전류로 전기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모되므로 저항과 더불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여 사용하고, 축전기의 경우 금속판 면적을 넓게 그리고 간격을 좁게 제작하여 저항, 코일, 축전기를 직렬회로로 연결하면, 동일 전압과 동일 주파수가 주어질 때 전류가 상승하여 전기에너지 효율과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항별 평가기준

상	S	<p>동일 전압에서 전력수요 만족(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류를 상승시켜야 한다.</p> <p>(1) 전류 상승을 위해 저항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p> <p>(2) 전류 상승을 위해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p> <p>(3) 전류 상승을 위해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은 크게 해야 한다.</p> <p>(4) 저항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상태를 유지하며 사용 하는 게 효율적이다. (※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저항이 작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굵게 만들어 이용한다고 기술하여도 무방함. 단, 제시문 [라]에서 제시한 송전선이 아닌 낮은 전압 상태라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함.)</p> <p>(5) 코일(또는 인덕턴스)은 맴돌이 전류 발생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하며 사용 하는 게 효율적이다.</p> <p>(6)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금속판 면적을 넓게 그리고 간격을 좁게 제작하여 사용한다.</p>
	A	<p>동일 전압에서 전력수요 만족(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류를 상승시켜야 한다.</p> <p>(1) 전류 상승을 위해 저항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p> <p>(2) 전류 상승을 위해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p> <p>(3) 전류 상승을 위해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은 크게 해야 한다.</p> <p>(4) 저항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상태를 유지하며 사용 하는 게 효율적이다. (※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저항이 작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굵게 만들어 이용한다고 기술하여도 무방함. 단, 제시문 [라]에서 제시한 송전선이 아닌 낮은 전압 상태라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함.)</p> <p>(5)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을 작게 하기 위해 (철심을 감고 있는) 코일의 턴수(감는 횟수)를 적게 한다. (또는 다른 이유)</p> <p>(6)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금속판 면적을 넓게 그리고 간격을 좁게 제작하여 사용한다.</p>
중	B	<p>동일 전압에서 전력수요 만족(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류를 상승시켜야 한다.</p> <p>(1) 전류 상승을 위해 저항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p> <p>(2) 전류 상승을 위해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p> <p>(3) 전류 상승을 위해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은 크게 해야 한다.</p> <p>(4) S의 (4), (5), (6)의 각 소자의 제시 방법 중 2가지만 기술 한 경우</p>
	C	<p>동일 전압에서 전력수요 만족(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류를 상승시켜야 한다.</p> <p>(1) 전류 상승을 위해 저항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p> <p>(2) 전류 상승을 위해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p> <p>(3) 전류 상승을 위해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은 크게 해야 한다.</p> <p>(4) S의 (4), (5), (6)의 각 소자의 제시 방법 중 1가지만 기술한 경우</p>
하	D	S의 (1)~(6)번에 대하여 기술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른 내용으로 기술한 경우
	E	질문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답안, 백지 답안

〈 자연계 〉

동국대학교 논술, 이렇게 대비하라!

【 마포고등학교 교사 지석우 】

타 대학과 구분되는 동국대학교 자연계 논술고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 ① **논제 및 제시문의 명확한 영역(수학 및 과학) 구분**
- ② **해결전략 수립 및 답안 작성 시 주도적 설계 및 구조화 역량 필요**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인 「① 명확한 영역 구분」은 수학 및 과학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타 대학과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수월하게 느껴지는 장점은 있다. 반면 「② 주도적 설계 및 구조화 역량을 필요로 하는 답안 작성」은 단계별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소논제를 제시하는 타 대학과 비교하면 답안 작성 시 논리적인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변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문항별 평가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학

▣ 수리논술의 의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제작 및 배포한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Ⅵ_자연계 수리」(2014)에 따르면 수리논술이란 ‘수학적 원리나 개념에 바탕을 둔 어떤 것에 대한 논리적 서술’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

- ① **수학적 원리 또는 개념에 바탕을 두다** : 수학적 원리나 개념은 수학적인 가정을 이용하여 보통 수식이나 그림, 그래프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식이나 그림,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어떤 것** : 서술해야 하거나 풀어야 할 주제에 해당한다. 제시문이나 논제의 분석을 통해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다.
- ③ **논리적** : 논리는 사전적으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지칭하며 논술에서는 근거와 주장의 연결과정이 정당화됨을 의미한다.
- ④ **서술** : 사건이나 생각을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방향을 갖고 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대비방법

동국대학교 수학문제를 살펴보면 평소에 접한 문제를 외워서 풀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대학의 수리 논술에 필요한 준비 방법일 수도 있지만 동국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에 따른 준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 Ⅵ(2014)_자연계 수리 7p 인용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한 교과서 기본개념 이해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닌 원리를 유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개념의 필요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학습 필요

교과서 정리, 공식 등을 직접 증명 및 유도

논술에서 제시문은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교과서의 읽을 거리 등에도 집중

중요한 단원과 내용에 대한 완벽 이해

해석학(대학 세부전공)에 해당하는 '수열, 미분, 적분'은 동국대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단원의 개념, 용어, 주제 등을 완벽 이해

기출문제 및 모의논술을 활용한 서술형 풀이 연습

기출문제 및 모의논술문제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주도적 연습 필요

단순 확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습해 보는 훈련과정이 필요

동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모의논술 및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출문제 적극 활용

끝으로, 기출문제의 문제 출제의도와 평가방법을 완벽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되는 동국대학교 논술은 반복적인 학습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

■ 과학논술의 의미

대교협에서 제작 및 배포한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Ⅵ_자연계 과학」(2014)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학논술의 구성은 수학적 원리와 개념에 바탕을 두는 수리논술과는 본인의 주장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²⁾.

- ① **어떤 것** : 서술해야 하거나 풀어야 할 주제에 해당한다. 제시문이나 논제의 분석을 통해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다.
- ② **의견** : 본인의 주장에 해당한다.
- ③ **논리적** : 논리는 사전적으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지칭하며 논술에서는 근거와 주장의 연결과정이 정당화됨을 의미한다.
- ④ **서술** : 사건이나 생각을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방향을 갖고 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대비방법

동국대학교 과학논술은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 출제되었다. 특히,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동국대 과학논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제시문에서 해답을 찾아 답안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논술하는 즉, 논술고사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학습하고 연습해야한다. 물론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글자수 및 작성요령을 지키는 것 또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출제경향을 미루어 볼 때, 내년에도 실생활과 연관된 생물, 물리, 화학 문제가 출제 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문제를 꼼꼼히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한다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도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제의 난이도는 비교적 높지 않으므로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평상시 준비하는 수능시험 수준에서 개념정리 및 해석 능력을 높이는 학습을 반복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 Ⅵ(2014)_자연계 과학 7p 인용



V

DONGGUK UNIVERSITY

2018 동국대학교
논술가이드북

논술우수자 전형 합격생 합격수기



신현승

경찰행정학부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hin, Hyun-Seung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합격하여 현 경찰행정학부에 재학 중인 신현승입니다.

Q.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창시절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고 즐겼던 학생이었습니다. 교내, 교외를 비롯한 여러 글짓기 대회에서도 단순히 글을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써보고 싶은 마음에 장르를 불문하고 참여하여 나쁘지 않은 수상을 몇 번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한 외중 자연스레 입시에 큰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서 성적이 월등하지 않았던 제게 논술전형은 꽤나 매력적인 입시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논술전형을 선택하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논술준비 시기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나요?

대략적인 시기는 약 2년 정도로 추정되고, 전문적으로 대학이 원하는 논술 답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시간은 3개월 정도라 하겠습니다. 2년간 글쓰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듬었고, 논술 고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원하는 바인 입학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합격점에 가까운 글을 써내고 싶어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Q. 논술준비 방법과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글쓰기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는 논술전형이 고민 많을 입시 생활에 커다란 전략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처럼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하지 않았다면 글을 평소 자주 접하는 학생, 글을 즐기는 학생에게는 논술전형만큼 입시에 있어서 타 학생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전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술전형은 글짓기를 평소에 많이 접하지 못하였던 학생이라도 자신의 논리성을 당당히 펼쳐 볼 자신이 있다면, 그러한 고민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볼 마음가짐 정도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전형입니다. 그렇기에 망설이지 말고 가능한 과감하게 논술준비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의 논술 전형에는 결코 쉽지 않은 최저학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논술을 위해 중요한 입시생의 시간들을 논술에만 몰두하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키포인트는 수험생인 만큼 먼저 공부에 집중하여 최저학력을 넉넉하게 맞출 수 있을 실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논술 시간을 할애하되, 해당 시간만큼은 역시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논술을 어떻게 준비했었는지를 돌아본다면 가장 각인되는 것은 역시 '대학이 논술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와 '대학이 나를 입학시키기 위해 나에게

해 논술로써 알고자 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논술전형을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본다면 최저학력을 갖추었을 때, 해당 성적권의 수많은 학생들에게서 대학이 뽑아내고자 하는 것은 작성한 글 하나로 두드러지는,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입니다. 그렇기에 논술을 무작정 잘 쓰는 것보다 대학이 원하는 글을 썼는가를 염두하고 준비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논술 기출 문제를 볼 때, 주로 물어보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한 그 문항의 모범답안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보면서 왜 이러한 답안이 그 문항의 모범답안인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답안이 모범답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답안에서 드러나는 논리성이나, 인상 깊었던 표현 등이 대학이 원하는 바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논술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보다보면 연습 삼아 글을 직접 작성할 때, 차차 모범답안을 파헤쳤을 당시 중요히 여겼던 점이 글안에 녹아들게 되면서 자신의 글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부합니다.

Q.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인문논술의 경우 기출 문제의 제시문들을 모두 모아 천천히 살펴만 보아도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거나 유별나게 이해가 안가는 문항들은 없습니다. 답안 분량 역시 막연하게 길고 긴 분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있어서 동국대 논술 제시문들은 길었던 학교생활의 기본정도만 충실히 해도 답안 작성의 길을 어렵지 않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동국대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하면서 느끼게 될 것이지만 모범 답안이 간결하고 알차게 나온 만큼 충실히 읽고 연습하여 그러한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하면 동국대 논술이 특이하게 곤란한 부분은 없습니다.

Q.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논술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최우선입니다. 처음에는 글 쓰는 과정이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무조건 '내가 가장 잘 쓴다, 내가 가장 잘 써 보일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신감은 글에도 묻어나오게 됩니다. 학업에 열중하면서 중간 중간 연습 삼아 논술을 작성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모범답안에서 읽고 느꼈던 특징들을 나 역시도 담아내겠다는 각오로 글을 쓰다보면 논술 전형은 입학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줍니다. 힘찬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몇 안 되는 논술준비시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곽대환

경찰 행정 학 부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wak, Dae-Hwan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학업적인 면에서 다른 고등학생들보다 좀 더 역동적인 고교생활을 보냈습니다. 외고에 진학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동으로 문과를 선택할 것처럼 보였으나, 2학년을 시작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과로 전과하며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문사회와는 멀어진 줄 알았으나 대입 원서 시즌에 사회과학계열 대학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한 번 교차지원을 결정했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수시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전학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학생부종합도 힘들어보였고, 내신도 과목별 편차가 심해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번의 전과로 인문사회 논술도, 수학과학 논술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 정시만 보려했던 전형적인 '정시파'였습니다. 그러나 수시지원 시즌이 되자 주변에서 한나들 지원 상담을 받고, 자소서를 쓰고, 논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만 이 길을 걷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지원하고 싶던 대학들 중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듯 보이는 논술전형으로 6개의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Q. 논술준비 시기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나요?

논술을 처음 생각했던 시기가 수시지원 기간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여 원서가 접수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2주 정도의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논술에만 올인한다면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Q. 논술준비 방법과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매우 늦게 논술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능원서접수 기간에 교차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인문논술이라는 건 생각도 못해본 문제였습니다. 교내에는 마땅히 첨삭을 해주실 수 있는 국어선생님도 계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EBS의 논술강좌를 찾아 내가 지원했던 대학들 위주로 청강하고, 거기서 뽑아낸 비교, 분석, 자료 활용 등의 스킬을 토대로 기출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물론 첨삭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

기에 제시된 모범답안과 비교해보기만 했지만 대충 감은 잡혔습니다. 중요한 건 대학마다 논술시험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다고 해서 지원하지도 않는 대학의 기출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풀었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Q.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는 많은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본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논술에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동국대학교 인문논술은 보통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혹은 자료에 관한 도표를 보여주며 이에 맞춰 분석하라고 하거나 혹은 2개의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는 전통적인 비교 문제 등의 전형적인 분석, 비교, 비판 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전형적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본이라는 뜻이며 연세대학교처럼 3가지 견해를 비교하는 '3중 비교'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논술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 시작점으로 동국대학교 기출문제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Q.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무리 저처럼 정시파라고 하더라도 논술 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 준비기간이 2주일밖에 없었는데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확실히 논술시험은 어렵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논술준비 별로 투자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논술합격수기를 쓰고 있지만 필자는 추가모집, 소위 말하는 '뒷문 닫고 들어온' 마지막 추가합격자로 운이 받쳐줬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시험을 너무 쉽게 보지 말고 적어도 5월부터는 논술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월부터 저처럼 하루 중 12시간을 논술 준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주 만에 끝내야 했던 것들에 +알파를, 5월부터 꾸준히 조금씩 해나간다면 시간에 쫓기는 일없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부, 아니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는 예비 후배님들 모두 이 글을 읽고 여유롭게 준비해서 당당히 동국대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찬빈

사 학 과

Department of
History



Hwang, Chan-Bin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사학과 17학번 황찬빈입니다.

Q.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방 출신인 저의 수험생활 중 목표는 오로지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기였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입시 상담을 받으면서 추천받은 전형은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좋았고, 수능최저를 맞추는 데에 무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한 전형이든 제가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독 논술전형에는 '그 전형은 특목고출신들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닐까?'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술로 대학에 진학한 학교 선배들을 통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모의논술 시험에 참가하여 수상하게 되었고, 그에 자신감을 얻어 한번 진지하게 논술전형에 도전해 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Q. 논술준비 시기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나요?

제가 본격적으로 논술전형을 준비하게 된 시기는 다른 논술전형 수험생들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남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논술준비에 투자해야 했고, 이는 저에게 많은 조급함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빨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에 준비를 시작했다면 조금하지 않고 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논술준비 방법과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논술 준비를 하며 느낀 것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한 사회탐구 영역의 지식들이 논술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과목의 개념을 간략하게 노트에 정리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출문제 풀이 경험이 실제 논

술 시험장에 갔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 문제에 익숙해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더 빨리,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보며, 혹은 예시답안을 보며 내 글을 다시 고쳐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글을 쓸 때에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을지 가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수능공부입니다. 논술전형의 기본 조건은 수능최저충족이기 때문입니다.

Q.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동국대의 논술의 특징은 타 대학 대비 쉬운 문제, 적은 글자 수 제한, 짧은 시험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쉽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답변을 생각하는 것은 편할 수 있지만 적은 글자 수 안에서 내 생각을 전부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제시문을 정리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인 언어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시간이 짧으니 시간 분배를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동국대 문제가 타 대학보다 쉽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문제를 만만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보고 그 이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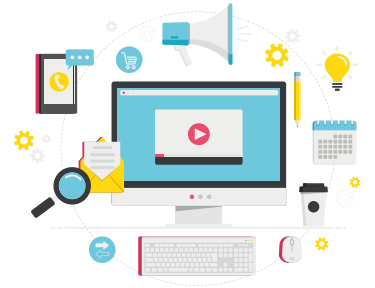
Q.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앞에서 준비기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하긴 했지만 그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고, 결국 논술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 보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논술에 더 노력을 기울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만큼 끝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하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Lee, Ha-Rim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7학번 이하림입니다.

Q.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다양한 대입 전형이 있어, 예전처럼 무조건 성적순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논술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의 점수 반영비율이 다른 수시 전형보다 낮으면서, 같은 학교라도 정시 전형으로 원서를 쓸 만큼의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잘만 한다면 자신의 내신, 혹은 수능 성적에 비해서 상향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도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논술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논술전형을 선택하였습니다.

Q. 논술준비 시기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나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겨울부터 논술준비를 하였습니다. 글쓰기의 특성상 계속 연습 할수록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 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 전날, 혹은 당일 날 아침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연습했습니다.

Q. 논술준비 방법과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논술전형에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내신, 수능 성적이 좋아도, 혹은 아무리 글을 잘 해석하고 잘 써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논술고사를 봤어도 평가대상이 되지 않거나, 시험장에 나가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6만원 짜리 볼펜을 얻었다.' 이런 농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비싼 원서료를

내고 남은 것은 시험장에서 나누어 준 볼펜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서 6월, 9월의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두 시험에서 모두 충족했던 최저학력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에 원서를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내신 산출이 끝나는 3학년 1학기 이후부터는 수능 공부에 더욱 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술고사를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해당 학교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도 친절하게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기출문제 및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보며 알아내야 할 것은 학교가 원하는 답안의 특징입니다. 이 때 예시답안보다는 문제의 유형과 채점기준을 눈여겨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동국대학교의 경우 짧은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의 유형이고, 그 안에서 논리성과 지문해석능력, 서술능력을 모두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요지만을 짚고 간결하게 쓰는 연습, 그리고 글의 요지를 파악하기 쉽도록 두괄식으로 글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짧지만 완성도 있는 글을 위해 바로 답안 작성에 들어가기 보다는 문제지의 여백에 글의 전개방식과 단락구성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적는 것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Q.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논술 전형이 매력적인 만큼, 수많은 학생들이 논술전형에 도전하여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아무리 반영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동시에 챙겨야 하며, 논술 실력도 갖추어야하기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술전형에 대해 잘 알고, 차분히 잘 대비한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겁먹지 말고, 지금처럼 논술전형을 위해 합격수기를 찾아보고 있는 열정과 의지라면 꼭 성공해낼 것입니다. 화이팅!

조은철

경 영 학 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 Eun-cheol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에 논술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17학번 조은철입니다.

Q.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비슷하고 성적이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한정된 수시 6장의 선택지를 사용하는 데에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을 다 지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논술 전형을 지원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글을 쓰는 것 또한 즐거웠기에 부모님께서 논술도 한번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셔서 논술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논술준비 시기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나요?

3월부터 논술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대학들의 논술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동국대학교의 논술시험 준비를 시작한 것은 시험 2달 전부터입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해야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도 써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술 시험은 되도록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Q. 논술준비 방법과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3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대학들의 논술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 시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논술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대학마다 정형화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을 접해보고 되도록 빨리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의 기출문제만을 인쇄해서 풀어보고 답안지를 보고 첨삭하면 됩니다. 많은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첨삭했던 글을 다시 처음부터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의 유형은 같기 때문에 첨삭 후에 다시 처음부터 쓰는 과정을 통해 유형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배부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읽어보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출문제, 모의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Q.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글자 수가 다른 대학의 논술시험에 비해서 적습니다. 작년 논술시험에서 글자 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16학년도까지 동국대학교 논술은 첫 번째 문제는 330~360자 내외 두 번째 문제는 240~270자 내외 세 번째 문제는 660~690자 내외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었지만 제가 시험을 치렀던 17학년도 시험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250~400자 내외 세 번째 문제는 550~700자 내외로 글자 수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의 논술에 비해 글자 수가 적은 편이기에 부담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제한된 글자 수안에 핵심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논술 1번 문제는 (가), (나) 두 가지 지문을 연관지어 서술하는 문항이 나오므로 지문을 읽을 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는 (가)와 (나) 두 가지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3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문제 같아 보이지만 다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문을 읽을 때와 답을 쓸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사실 논술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논술시험을 준비 할 때에는 '과연 나랑 논술이 잘 맞는가?'하고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글을 써보고 답안지와 비교해가며 첨삭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에 지원하시는 여러분을 내년에 캠퍼스에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컴퓨터공학전공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ark, Sang-Hyun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7학번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제가 고3 때이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당시 대입에 대해서 많이 불안했던 것만큼 여러분들 또한 불안감을 마음속 한편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불안감을 없애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논술전형을 어렵고 힘든 전형이라고만 생각해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3 때 책자와 교지를 찾아보았을 때 논술은 잘 준비하기만 하면 결코 어렵지만 한 전형은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상담, 정보 수집을 충분히 하고 난후에 제 자신이 놓여도 될 전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논술전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글 쓰는 법도 모르고 식을 전개하지도 못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점점 많은 유형과 예시를 보면서 점점 논술을 쓰는 방식을 깨달아서 논술을 준비한 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Q. 논술준비 시기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나요?

저는 고2 때까지 정시를 준비하다가 고3 3월에 교실에 놓인 책자를 보고 논술을 결심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논술시험은 10월, 11월에 보는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는 정시 준비까지 생각하였을 때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논술 준비기간이 2년 정도였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부터 논술을 시작하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논술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고 기초만 탄탄히 다져놓으면 7개월도 그리 적은 시간은 아니라 느끼실 겁니다.

Q. 논술준비 방법과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논술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많은 유형을 익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중에 출판되어있는 논술 문제집을 사서 처음 풀 땐 저 혼자 풀어보고 안되면 체크를 해둔 뒤 체크한 문제를 또 따로 풀어보았습니다. 체크한 문제를 유형 분석하여 노트에 정리를 하고, 제가 부족한 유형이 무엇인지 또는 어느 부분에서 자주 막히는지 등을 파악해 그 유형 관련 공식이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노트에 정리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 완벽하게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트 정리 공부법은 실제 논술에서 공식 등을 생각해내거나 비슷한 유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수학 정시 문제집을 풀 때에도 어려운 문제는 논술 문제의 식을 쓰듯이 노트에 간단하게 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의논술을 여러 번 보는듯한 느낌을 주

었고 논술식을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논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시문의 내용을 끌어와서 식을 전개하고 푸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논술은 모두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에서 주어진 공식이나 제시문에서 주어진 사실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제시문에 나와 있으므로 과학 문제를 풀 때에도 세 과목을 모두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논술을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제시문 분석 및 문제 분석을 하여 문제에 맞는 제시문을 골라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Q.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동국대 논술은 과학 2문제 수학 1문제인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과학 2문제는 대체적으로 1번은 화학, 생물이 섞여 나오고 2번은 물리가 나오는 형식인데 이 때문에 물, 화, 생 중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과학 2번 물리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문제와 상관없는 것도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쓸모 있는 제시문과 쓸모없는 제시문을 거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글의 윤곽이 잡히고 글의 윤곽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좋은 글을 시간 안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논술 용지가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원고지에 쓰라고 하고 글자 수 제한이 있거나 문장 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논술을 준비할 땐 필요한 말을 정리하는 기술을 익히거나 딱 필요한 식만 전개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많은 문장을 쓰면 그중에 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논술을 풀면 안 되고 딱 필요한 문장만 용지에 쓰고 채점자가 원하는 식을 용지에 적어야 합니다.

Q.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이맘때쯤 고민이 정말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을 무엇으로 지원할지 결정해야 하고 정시도 등급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열심히 눈앞의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며 나아가다 보면, 분명 11월뿐만 아니라 12월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국의 고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셔서 웃는 얼굴로 대학에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물론 동국대에 오시는 것을 더욱 환영합니다. ^^

Q. 기타 하고 싶은 말

논술전형은 자기 원래 성적보다 높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전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신 등급이 안 좋거나 수능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지만 수학이나 과학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논술전형에 지원해 보길 바라며, 제시문 보는 연습과 기초만 쌓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유형이니 자신이 없는 분들도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경식

화 공 생 물 공 학 과

Department of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Seo, kyeong-Sik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이번 17학년도 동국대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서경식이라고 합니다.

Q.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 유독 영어 성적이 낮았지만 수학과 과학은 자신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최저를 맞춘 뒤 자신 있는 수학과 과학만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고3담임 선생님의 충고 덕분에 논술전형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있었고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논술전형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논술준비 시기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나요?

논술을 처음 준비한 것은 9월 모의평가가 끝난 뒤였습니다. 작년 동국대 논술은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수능 전에 논술시험을 봤기 때문에 준비한 기간은 1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들에 비해 많이 늦은 시작이었지만 평소에 쌓아놓은 실력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논술준비 방법과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늘 들어온 식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때문에 교과서에 적혀있는 수학 공식을 공부할 때 절대로 공식을 외우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할 경우 시험장에서 공식을 까먹어도 본인 이 유도해서 공식을 만들어 쓸 뿐만 아니라 공식을 유도하는 것 그 자체가 논술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비단 논술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수능 수리영역의 고난도 문제해결능력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과학도 개념이 중요한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과학 개념은 잘 모르는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과학에서 정확한 용어를 써주는 것은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시험장에서 긴장하게 되서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풀어서 서술하면 용어를 정확히 적는 것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과학에 관련된 칼럼 또는 잡지 등을 읽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수학, 과학 잡지를 오랜 시간 구독하며 수학이나 과학을 독자에게 설명을 위한 서술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논술의 정답을 서술할 때 보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쁜 고3 시기에 주기적으로 잡지를 읽는다는 것은 힘든 일 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잡지를 구독하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과학적 이슈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세 번째는 기출문제의 정답과 나의 정답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남들보다 논술 준비를 늦게 시작한 탓에 첨삭에 대한 지도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스스로 시간을 재서 논술시험을 본 뒤 제 답과 기출문제의 답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개과정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빠트린 조건 없는지 또는 이 학교는 기하적인 풀이를 좋아하는지 대수적인 풀이를 좋아하는지도 체크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첨삭 지도를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정답과 다른 풀이 일 경우 수학 선생님께 여쭙봐서 풀이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Q.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동국대 논술은 타 대학에 비해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배운 개념들과 제시문에 나온 내용들을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문제를 서술할 때 점수가 깎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Q.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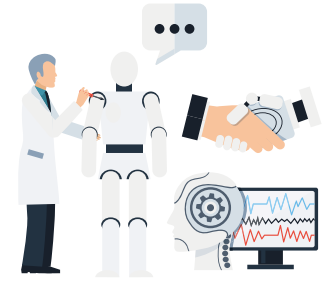
저는 위에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왔는데, 이 방법이 다른 분들에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하는 논술지도라든지 네이버 카페 가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현명하게 논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합격수기를 보시는 모든 학생, 학부모 분들 수시 챙기랴, 정시 공부 하랴, 이거하랴 저거하랴, 다들 바쁘고 힘드실 텐데 모두 수시, 정시 대박 나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서인혁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Robotics and Energy Engineering



Seo, In-Hyuk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면 경쟁률이 상당히고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논술우수자 전형의 장점과 제가 논술을 공부했던 방법들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Q.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평소에 수학, 과학에 나름 자신이 있었고, 내신 성적도 4.03이라 낮은 편이었지만 논술전형은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학, 과학의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모집의 6개를 모두 논술전형으로 선택했습니다. 논술전형은 수학, 과학에 자신이 있다면 내신 성적이 어떠한 합격이 충분히 가능한 전형입니다.

Q. 논술준비 시기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나요?

논술을 처음 접해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방과 후 수업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에는 수학, 과학의 지식이 거의 없을 때였기 때문에 논술을 직접 글로 써보는 것 이외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1월부터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논술고사를 볼 때까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준비 때문에 실제로 논술 공부를 한 시간은 5달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굳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할 필요는 없고, 고등학교 3학년 초반부터 5달 정도면 논술 문제에 익숙해지고 수학, 과학의 실력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논술준비 방법과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작년 동국대학교의 논술은 수능 전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름방학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마음도 편하고 수능 준비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수능 최저도 있기 때문에 수능에 소홀한 채 논술 공부에만 매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국대학교 수학 논제의 경우 말로 설명하는 형태이고, 문제 이해와 실제 상황의 수리적 분석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풀이형 공부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형태와 요구 사항 등을 익혀두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좋고, 실제로 논술 답안을 써보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학 논제의 경우 미리 공부해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 화, 생 각 과목별로 기초적인 부분만이라도 공부해가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고 질문에 답변을 구성하는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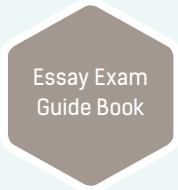
습을 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각 과목의 교과의 읽을거리, 실생활 활용 부분을 잘 읽어두면 좋습니다.

Q. 동국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동국대학교의 논술은 다른 학교의 논술과 비교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답안을 원고지에 적어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어색한 느낌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답안을 많이 적어보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국대학교의 논술은 수학 1개, 과학 2개의 논제가 출제됩니다. 수학 논제에서는 그냥 푸는 수학문제보다는, 수리적 상황을 언어적으로 제시하고 제시문에 관련된 수학 개념을 알려주면, 그 개념을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학적 지식과 제시문 활용능력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 논제의 경우 2논제가 물, 화, 생 개념들이 섞여서 출제되고 매년 출제과목이 다릅니다. 수능 과학탐구 과목 선택의 유불리는 거의 없고, 융합과학, 과학 1 교과서의 실생활에 쓰이는 과학 이야기 등이 주로 출제되므로 평소에 읽어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은 제시문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제시문 내용을 이용해 질문에 대답을 구성하면 됩니다. 대체로 자신의 수능 선택과목의 경우 편하게 느끼는 편이고 아니면 어려워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제시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해하면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Q.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앞서 얘기해 드렸던 내용들을 참고로 동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수시에 논술전형으로 6개 대학에 지원했는데 그 중 하향지원이라 생각했던 학교들은 떨어지고, 상향 지원이라 생각했던 학교들은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논술 시험을 볼 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절실하게 시험을 봤던 학교들은 모두 붙었고, 대충 쉬엄쉬엄 봤던 학교들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저는 동국대 논술을 보러 갔을 때 "이 학교는 무조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들 경쟁한 사람들일 테니 절실하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필사적으로 시험에 임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시험 종료 10~20분 전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를 다 풀고 펜을 내려놓고 있을 때 저는 시험 종료 시까지 답안지의 단어 하나 하나를 체크해 가며 수정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이런 절실한 마음이 통하여 합격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절실하고 필사적인 마음가짐으로 논술시험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논술전형 Q & A VI

Q.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A. 올해 우리대학 논술우수자 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논술 60%, 학생부 40%입니다. 학생부는 교과 20%, 출결 10%, 봉사 10%로 반영됩니다.
반영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며, 고교 1~3학년 해당 교과목 전체 중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됩니다.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하면 만점이며, 봉사활동은 30시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Q. 인문I, 인문II 논술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인문계 논술은 고사 당일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고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고사시간의 차이 때문에 인문I(오전), 인문II(오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인문I, 인문II는 서로 동일한 유형의 논술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 인문계 논술을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인문I, 인문II 기출문제를 모두 참고하여 준비하기를 권장합니다.

Q. 자연계 논술에서 과학문제는 수험생이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나요?

A. 우리대학 자연계 논술의 과학문제는 수험생이 선택하여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고등학교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모두 출제될 수 있으며 출제된 문제는 모두 풀이하여야 합니다.
일부 수험생은 이런 점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의 출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으나, 출제범위를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으로 제한하고 있고, 특정 한 과목의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닌 제시문을 이해하고 제시문에서 답을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통해 사전에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논술 문제 출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출제위원장 1명, 문제유형별(인문Ⅰ, 인문Ⅱ, 자연) 각 3명의 출제위원과 계열별 1~2명의 문제검토위원이 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통제된 상태로 출제가 진행됩니다. 이 때, 문제검토위원은 현직 고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모든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제를 위한 참고자료로 고등학교 교과서 및 EBS 교재가 주어지는데, 출제를 시작하기 전 출제위원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 참고서 내용을 철저히 연구 및 검토하며, 특정 교과영역의 단순 암기위주식 지식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고 응용하기에 적합한 제시문을 선별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합니다.

Q. 논술 답안 채점 시 평가 주안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논술 답안을 채점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지문과 주제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이는 답안에 작성되어야 하는 핵심어(키워드)의 유무를 보면 수험생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능력(비교·분석력, 추리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답안의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많이 충족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 등급은 나뉘게 됩니다.

Q. 논술 답안 채점 시 글씨체, 맞춤법도 채점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채점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해당 답안의 내용입니다. 즉, 글씨체가 예쁘지 않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작성한 답안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우수한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채점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글씨체 또는 맞춤법 오류는 채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논술전형 준비기간 동안 평소에 잘 훈련해 두기 바랍니다.

Q. 논술전형 대비를 위해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A. 우리대학 논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문계 수험생은 교과서 내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소 비판적 사고능력을 통해서 여러 영역의 지식을 통합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 보기 바라며, 자연계 수험생은 수학, 화학, 생명과학, 물리 교과서에 빈출하는 원리를 실생활의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배양한다면 논술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 학과

Department of
Food Industrial Management



Info



1960

선도적 창설



82.3%

2015년 취업률/진학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식량, 식품, 자원 환경문제 연구

TIP

식품산업관리학과

- ▶ 사회과학대학 소속(인문계열)
- ▶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등의 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농업, 식품, 자원 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하고 연구하는 응용경제학



식품생명공학과

- ▶ 바이오시스템대학 소속(자연계열)
- ▶ 유기화학, 생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등의 기초학문과 소재 및 제품개발, 식품가공 및 생산관리, 식품의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

교육목표

- 1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경제·사회적 현상 문제와 식품환경 및 안전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학습하여 식품산업의 잠재된 경제·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된 식품의 수요공급이란 국민 경제적 과제와 함께 식품산업과 식품벤처 개발 및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기업 경영자를 양성
- 2 식품 생산·가공·분배 및 유통과 소비부문에서 요구되는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교육과정 및 전공세부영역〉

5개의 세부전공분야가 있으며 관련한 전공기초 및 전공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전공기초	→	전공전문
지역식품산업 시스템	식품경제의이해 / 식품경제원론 식품경영학	→	식품산업경영실습 / 식품브랜드마케팅론 / 식품산업조직론
식품산업환경 및 안전	식품경제의이해 / 식품경제원론 지속가능시스템 / 식품환경경영론 조사및통계처리 PC실습	→	식품경영전략세미나 / 환경성평가방법론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안전관리론
식품유통 및 마케팅	식품경제의이해 / 식품경제원론 푸드시스템론 / 식품유통론 / 식품경영학	→	식품마케팅론 / 식품정책론 식품물류관리론 / 협동조합론
식품경영	식품경제의 이해 / 식품경제원론 식품경영학 / 식품산업경제학	→	식품산업경영실습 / 식품산업경영분석론 외식산업경영세미나 / 애그리비즈니스세미
식품산업경제	식품경제의 이해 / 식품경제원론 식품거시경제론 / 식품미시경제론	→	식품산업조직론 / 식품계량경제학 조사 및 통계처리PC실습

〈특장점〉

- ▶ 미래 사회의 식품산업분야는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
- ▶ 미래 사회의 식품자원 유통과 관련된 고도의 경제 사회적 전문지식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식량 공급이라는 중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 ▶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는 농업·농촌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과 소비에 걸친 사회과학과 공학의 융합적인 접근을 통한 식품산업전반에 걸친 제반학문을 연구,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 제공(대부분의 식품관련학과(농업경제,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는 농업·농촌 생산중심의 경제 및 경영이론과 식품기능에 따른 영양과 공학적 개념만을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교육목표

- 1 사회안전 관련 분야의 학문적·실무적 지식을 두루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공의 안녕에 실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융·복합적 인재 양성
- 2 경찰학, 범죄과학, 산업보안, 교정학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건전한 가치관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배양

〈교육과정 전공세부영역〉

- ▶ **경찰학전공** : 경찰에 관한 학문의 총체로서 경찰의 역할과 본질을 정립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찰활동의 방법과 경찰의 역할, 효율적이고 건전한 경찰조직의 형태를 연구
- ▶ **범죄과학전공** : 범죄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그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효율적인 범죄정책을 모색하는 Crime Data Scientist를 양성
- ▶ **산업보안전공** : 범죄학·경영학·컴퓨터공학·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되어 있는 융합학문으로, 첨단기술과 개인의 지적 재산, 특허 등 각종 정보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서 보안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정보자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 **교정학전공** : 형사사법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과학적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이론을 연구하고, 교소도 및 보호관찰소 등에 근무하는 중견간부를 양성

〈학생활동 및 교육지원〉

- ▶ 유도, 축구, 농구, 야구 동아리를 운영(신체 단련 및 단증 취득기회 제공)
- ▶ 전공 관련 분야 스터디를 구성(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도모)
- ▶ 학생 자치 순찰활동인 캠퍼스 폴리스를 운영(지역사회 치안에도 이바지)
- ▶ 현직에 진출한 선배를 초청한 특강 기획 및 학술제를 통한 학생-교수 대화의 장 형성



TIP

Q. 자연계열 학생도 경찰행정학과 관련한 진로를 꿈꿀 수 있나요?

A. 2017학년도부터 경찰행정학과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자연계열 학생의 지원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학부 내 신설된 4개의 전공 중 범죄과학, 산업보안 전공에 다수의 자연계열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이고 해당 전공들은 범죄학, 법학 등에 빅데이터분석 및 정보처리·IT기술을 더해 학제간 융복합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학 및 과학적 역량을 갖춘 자연계열 학생들도 진로를 꿈꿀 수 있습니다.

Info



1963

국내 최초



72.5%

취업률/진학을 4년 평균



사람이
우선이다

4개 전공

(경찰학, 범죄과학, 산업보안, 교정학)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 사회안전 분야의 창의 인재 양성

공과대학 멀티미디어 공학과

Department of
Multimedia Engineering



Info



83.1%

취업률/진학률 4년 평균



컴퓨팅 기술 기반의 공학양성



TIP

Q. 멀티미디어공학과와 핵심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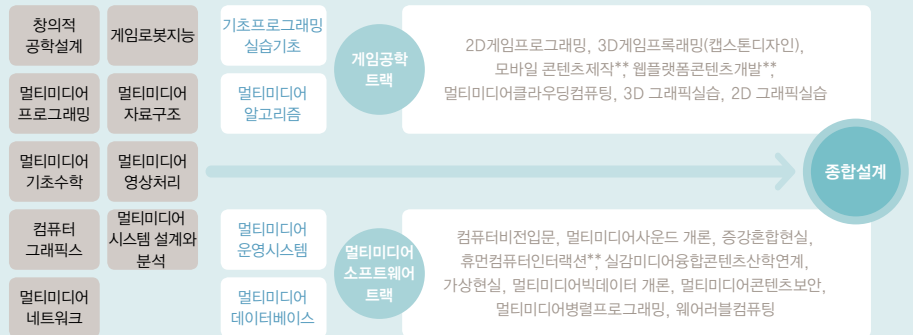
A. 타 대학의 미디어학부나 유사학과와 다르게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는 컴퓨팅기술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공학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1 컴퓨팅(computing) 기술을 중심으로 영상, 사운드, 텍스트 등의 다양하고 방대한 멀티미디어 빅데이터를 다루는 공학적인 이론과 기술을 교육
- 2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인 개발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고급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및 전공세부영역〉

멀티미디어공학과는 게임공학트랙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트랙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수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각 트랙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각 트랙에서 개설된 6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각 트랙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활동 및 교육지원〉

- ▶ 게임타루(전공 관련 스터디 모임)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게임엔진에 대한 재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스터디를 진행하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통해 재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공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 FC멀티플(학과 내 축구 소모임)은 선후배들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연습과 시합을 진행하며 다양한 학내 대회에 참여하여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 ▶ 인류 문화 발전의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된 융복합 학문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
- ▶ 가상 및 증강현실, HCI,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됨.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의료 시술, 우주선 운행, 원자로 운전 실험, 비행기 조종, 재난 방지 등의 교육이 가상환경에서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함.
- ▶ 2016년부터 SW중심대학 지원 사업에 전공학과로 참여, 국제적 경쟁력을 겸비한 SW 전문인력 양성
- ▶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 대학원의 NUI/NUX 플랫폼 연구 센터에서 수행 중인 ITRC 사업 및 BK21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인재 양성

공과대학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Energy and Materials
Engineering



교육목표

- 1 신소재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두루 활용되고 미래 기술 산업에 기여가 됨. 이에 다양한 기초이론교육, 실험·실습으로 유능한 공학도를 배출하고자 노력함.
- 2 각 소재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기본 이론과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서 실무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 3 나노소재, 전자/정보, 에너지소재 등 각 분야에 대한 심층 지식과 응용을 접목할 수 있는 공학도 양성
- 4 올바른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여 팀의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교육과정 전공세부영역〉

기존의 금속/재료/세라믹/고분자재료를 바탕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나노 소재', '에너지 소재', '전자/정보소재'의 3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노소재** : 나노 소재의 결정구조, 미세조직, 상변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계적,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강의하며,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소재, 공정의 개발을 위한 나노 영역에서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원리와 응용 교육
- ▶ **에너지 소재** :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나노 소재 및 전자/정보소재의 융·복합구성으로 Fuel Cell 및 Battery소재의 이해 교육
- ▶ **전자/정보 소재** : 유기, 무기, 고분자 합성 및 다양한 가공 기술 등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회로 소재 등의 다양한 전자제품 등의 소재 교육

〈특장점〉

- ▶ 재료 분야에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노 소재'에너지 소재'전자정보 소재'의 3개 트랙을 전문 분야 안에서 융합
- ▶ 일부 '인문사회과학 소양' 분야를 교육 과정에 학제간 융합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
- ▶ 다양한 분야의 전공(물리, 화학, 화학공, 재료 등)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나노소재, 에너지소재, 전자정보 소재 등 신소재에 대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응용, 전자소재 분야 응용, 광전자소재 분야 응용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 제공

TIP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신소재(나노, 전자정보, 에너지소재)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응용기술까지 습득한 융합형인재를 양성



화공생물공학과

화학공학 및 생물공학 전반의 능력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

Info



2013

신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기초지식과 응용을 접목하는 공학도,
신소재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분야 등의 응용

예술대학 연극학부

Division of
Theater



Info



국내 최초



2018

학생부 종합 전형 최초 선발



연출 및 기획

교육목표

전문 직업배우와 공연예술가, 공연예술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극학자의 배출

〈전공세부영역 : 8개의 교과목과 24개의 세부전공 교과목 구성〉

- ▶ 연극 및 뮤지컬 공연제작 전반 및 연기와 관련한 체계적인 강의로 구성
- ▶ 연극학부의 커리큘럼은 연출과 연기 등, 연극 관련 실기수업이 전체 수업의 90%에 이를 정도로 체계적인 실기 전문 교육으로 구성

실기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공통 연기(1, 2), 가창실기(1, 2), 프로덕션 제작실습(1, 2), 연극제작실습 •2학년 공통 연기(3, 4), 가창실기(3, 4), 프로덕션 제작실습(3, 4), 소리훈련, 신체훈련 •3, 4학년 공통 연극연출, 신체올직업, 매체연기, 고급연기, 연극 제작실기, 뮤지컬 제작실기, 프로덕션 디자인&테크놀로지, 뮤지컬연기, 뮤지컬성악, 뮤지컬댄스, 오디션 테크닉, 현장실습
이론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공통 연극개론, 연극제작기초 •2학년 공통 연극사1, 연극사2 •3, 4학년 공통 연극사3, 희곡론, 극장경영,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재연구 및 지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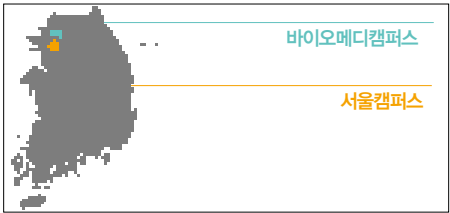
〈특장점〉

- ▶ 학교기업 동국아트컴퍼니와 문화기술(CT)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통한 현장 밀착형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 ▶ 기존의 공연 제작 외에 공연에서의 실감 미디어 개발 등 CT 관련 분야의 연구도 포함하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작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비전을 추진
- ▶ 전문공연공간인 '이해랑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소극장인 '블랙 시어터'와 4개의 연습실과 2개의 무용실, 디자인실, 기재실, 분장실 등을 시설 완비
- ▶ 오토메이티드 라이팅 시스템, 쇼콘트롤 시스템, 디지털 프로젝션 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 공연실습 장비 구비(학생들의 공연 연습 및 수업 진행을 위한 우수한 시설 활용도 및 수준)
- ▶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연계전공'과정을 마련하여, 인문학적 상상력, 창조성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한 창의 인재를 육성 및 문화예술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학생 활동〉

- ▶ **Staff 활동 모임 '인턴'(학부 모든 공연 staff의 주축)** : 연출 및 디자인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 전반에 관한 시스템 및 장비 활용 등을 배우는 모임. 제작 실기에 직접 참여하여 극장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대에 구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공연 모임 '워크샵'** :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연습을 하여 무대에 올리는 연극학부의 가장 특색 있는 활동.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단순한 공연 제작뿐만 아니라 연기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추가되어 진행.
- ▶ **스터디 모임 '독서 클럽'** : 연출 전공 및 독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연출 관련 전공 서적이거나 인문학 관련 서적에 대한 study 모임 진행

동국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서울캠퍼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이용
3,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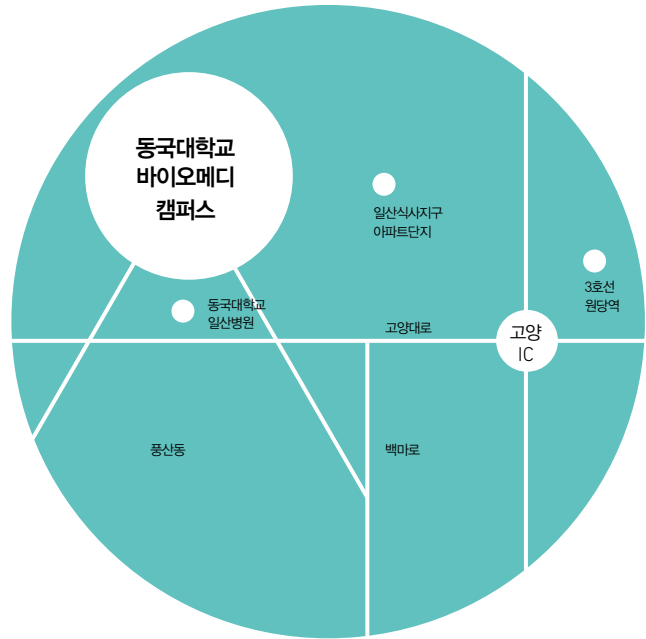
버스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 7212
간선버스 : 144, 301, 407, 420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 7011
간선버스 : 104, 105, 140, 421, 463, 507, 604



바이오메디캠퍼스

대중교통

지하철 + 버스 연계(동국대학교 병원 하차)
3호선 원당역(2번 출구) : 097, 098, 099, 567, 7733

자가용

강남/영등포방면

자유로 → 정항 IC → 백마교 지나서 첫 번째 삼거리 좌회전(좌측 SK주유소) → 동국대학교

고양시청/구파발방면

구파발사거리 우회전 → 동산삼거리 킨텍스 → 고양시청 → 덕양구청 방면 좌회전 → 고봉동주민센터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방면 우회전 → 동국대학교

※ 우리대학 입학처 방문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동대입구역 방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각종 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는 안내된 고사장과 가까운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DONGGUK UNIVERSITY
Essay Exam Guide Book



서울캠퍼스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 2260-8861 <http://ipsi.dongguk.edu>

입학관리실 Fax. 02) 2260-3696

입학사정관실 Fax. 02) 2260-3969